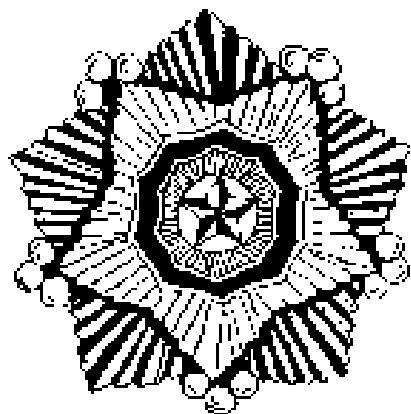




7

주체 88 (199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88(1999)년 제7호

(루계 제 621 호)

◆◆◆◆◆◆◆◆◆◆

차 례

◆◆◆◆◆◆◆◆◆◆

위대한 영생과 5년	4
김일성	6
첫 선물	7
세월과 우리 수령님	20
언감자국수	21
《행복의 높이는 충성과 효성의 높이이다.》	23
태양의 궤도(외 1 편).....	24
진주돌에 대한 이야기	24
영생의 노래	25
누가 묻는다면	26
내 나라, 내 조국 땅위에 영원할 기적소리	27
금수산의 노을속에	29
기다리는 땅	30
백전백승하리라	36
몸소 강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37
평론묵음을 내면서	38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38
장편소설 《철의 신념》과 신념의 인간들의 감동깊은 형상.....	40
오늘도 《평양시간》은 흐른다.....	42
당성단련을 위한 교과서-장편소설 《녀당원》	44
미나리밭	46
《조선문학》과 나	47
갈 망.....	50
7 월의 생각	51
구월산 폭포	53
사랑의 메아리	54
우리 사람들(외 4 편).....	67
나에게 하는 말	67
무사치 않을것이다	67
미리 말해준다	67
조선의 힘	68
아침과 저녁길	68
모성의 권리	69

위대한 영생과 5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5년세월이 흘러갔다.

5년, 수천년 인류력사에서 5년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은 이 세상에 인류가 기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또 체험할수도 없는 류달리 의미깊고 숭고한 력사의 나날이었으며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의 거대한 변화와 성장을 이룩한 나날이었다.

돌이켜보면 5년전 아버지수령님과 영결하던 때 우리 인민이 쏟은 비애의 피눈물은 그 얼마이며 슬픔의 곡성은 또 얼마나 강산에 메아리쳤던가. 그러나 그 슬픔의 눈물바다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아버지수령님은 가신것이 아니라, 절대로 가실수 없다는것,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것을 한결같이 꿰치고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절대의 믿음이고 철의 신념이었으며 용암처럼 끓는 심장의 분출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통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수령님께서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지도자로서, 민족의 대양으로서 영생하고계십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 계신 영생의 나날이었다.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하여, 수령님께서 조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온갖 시련의 고비를 넘고 헤치시며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그 길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받아안음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념을 지닌 자주적인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

소한 혁명의 길을 첫걸음부터 모든것을 새롭게 탐구하고 개척해나가면서 사소한 편향없이 승승장구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영원한 **김일성** 민족의 념으로, 인류자주위업의 해불로 그 위력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과 더불어 우리 인민과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결출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한평생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민족의 독립과 조국의 통일번영을 이룩하시며 주체조선의 위업을 누리에 떨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고요한 서재나 집무실이 아니라 몰아치는 설한풍과 포연탄우를 헤치시며 미일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조국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빛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며 심각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우리 식대로 수행하시여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찾아 걷고 걸으시였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시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끄시였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어려있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자옥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값높은 자주적삶은 꽃피났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의 세기적기적들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는 우리의 사회주의조선, **김일성** 민족의 부강번영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한없이 고매한 덕성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아 행복의 상상봉에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의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가꾸어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수령님께서도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혁명에 구현하시여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리상사회를 세우시였으며 한없이 파사로운 육친의 사랑과 믿음을 베푸시여 우리 인민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체와 강한 자주정신,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닌 혁명적인민으로 키워주시였다. 또한 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차

별없이 따뜻이 품어주시며 그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최상으로 빛내이도록 하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덕망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결출한 령도, 고매한 덕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년전 가슴무너지는 그 7월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어 수령영생위업의 성스러운 길을 개척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기 위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시고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었으며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혁명무력을 영원히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내이기 위한 불면불휴의 령도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5년세월 일편단심 아버지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며 수령님의 위대한 존함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기울으신 그 충효심의 깊이와 넓이, 그 뜨거움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진정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아버지수령님은 생존시와 다름없이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영생하고계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난 5년간 우리 문학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인 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똑같이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창조에 깊은 사색과 탐구, 창작적열정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에서는 수령형상창조사업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왔으며 여기서 새롭고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지난 5년간 우리 문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는 두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생존시의 모습을 그리면서 위대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에 대한 형상창조는 우리 문학에서 일관하게 지향되고 빛나게 실현되어왔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해방후 항일의 혁명적문학 예술전통의 뿌리에서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수령형상, 수령칭송 문학의 새 장을 펼치었으며, 지난 50여년간 수령형상창조의 숭고한 모범을 이룩하였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은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이 빛나게 결속되고 해방후편들이 련이어 창작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과 업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재현하는 문제는 훌륭히 실현되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에 전후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로정과 위대한 품모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이 창작되었다.

특히 장편소설 **《영생》**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하여 소설은 수령님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파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며 수령님은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세기적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 주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과 함께 **《사냥의 아침》**, **《매혹》**을 비롯한 단편소설들과 시 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력적으로 벌리신 혁명활동과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품모를 형상하는 사업이 보다 더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하여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불같은 마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에서는 이와 함께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한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반영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

와 불멸의 업적, 자애로운 사랑에 대한 잊을수 없는 뜨거운 추억을 안고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여기서 시문학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가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창작되었다. 이에 이어 서사시 《영원 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평양시장은 영원하리라》,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시작품들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대한 절대의 부정과 수령님을 잃은 절감감, 못잊을 추억의 나날과 더불어 뜨겁게 불타오르는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세월의 흐름속에서 더더욱 절감하게 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 수령님의 유훈 관철의 맹세속에 울리는 영생기원의 숭고한 념원 등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 심오하게 반영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아버지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 철석같은 믿음과 신념을 일관한 서정으로 다양하고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수령님의 영생의 의미를 심원한 시형상으로 일반화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절통한 심정과 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고한 사상감정은 단편소설 《불멸의 영상》, 《새벽노을》을 비롯한 소설작품들에도 깊

이있게 반영되어있다.

이러한 작품들의 창작은 수령님은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생활속에, 조국의 오늘과 래일과 더불어 영생하고계신다는것을 심오한 철의 진리로 깊이 새겨주고있다.

지난 5년간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한길에서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하여 수령님을 형상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은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며 무궁한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영생하신다.

우리 작가들은 이미 이룩한 창작적성과에 기초하여 수령영생위업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위인적품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비해볼 때 그리고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우리 인민의 높은 충효심에 비추어볼 때 수령형상창조사업은 더 높은 수준에서 더욱 왕성하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수령님의 참된 제자,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

마리안 벨렌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그이는 세계 인민들에게 휘황한 미래

펼쳐주시었나니

우리모두의 마음은 그이와 이어져있어라

그이는 어린이들의 미소속에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속에 계시여라

그이의 사상은 우리의 밝은 앞길 밝혀주고

그이의 잊을수 없는 영상은 지구상의

수백만 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져있어라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

인민들은 희망 안고

인류의 모든 예지를 집약하고있는 로작

그 구절구절이 예지의 정화로 되는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연구하여라

그이를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의 행복 끝없어라

그이의 위대한 사상은 세상사람들모두에게

앞날을 밝혀주는 영원한 등대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고생많던 조선인민은 영원한 행복을 찾았어라

온 세상인민들 마음 하나로 모아

행복의 노래로 그이를 칭송하여라

지구상의 모든 언어들로 장엄한 송가

울려퍼지여라

-만민의 수령에게 영광을!

아버지수령님께 영광을!

위대하고 현명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께 영광을!

(필자는 로씨야 작가임)

첫 선물

조상호

사람들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포상장》(상장제를 선포하면서 주는 첫 상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의례히 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대단히 큰 일을 해놓은 이름있는 공로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 위대한 수령님의 《포상장》을 받은 당시 교통성 자재국장으로 일하던 김석모는 김책부수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야 수령님께 심려만 끼쳐드렸구… 부수상동지에게서는 처벌을 받은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해온 제가 어떻게… 사실 지금 나라에 일 잘하구 공로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죄다 사실이었다. 김석모가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많고 김책에게서는 처벌을 받은 일까지 있다는것도… 그리고 김석모 못지 않게 일 잘하고 공로 큰 사람들이 많은것도…

김책은 그때 김석모에게 뜻깊은 말을 많이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수령님의 첫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공화국이 창건되어 한달밖에 안되었던 주체37(1948)년 10월부터 시작된다.

1

풍요한 가을이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푸르게 들리웠고 대지는 무르익은 열매들을 무겁게 실었다. 어디서나 난알익는 구수한 냄새가 짙게 풍긴다.

한낮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촌에 현지도 나오셨던김에 농민들과 함께 벼가을을 하고계시었다. 농립모를 쓰고 우에 흰 내의차림을 한 수령님께서서는 왼손으로 벼대들을 휘어잡으며 오른손에 든 낫으로 스투크 스투크 걸싸게 베여나가시었다. 팔에 실리는 벼이삭들의 무게가 농민들의 행복의 무게인듯 가슴을 흐뭇하게 해준다. 저쪽 논판에서는 어느 여성이 부르는지 청아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

수령님께서서는 허리를 펴시었다. 허리춤에 찻던 타올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시며 흥성이는 논벌을 둘러보시었다. 수령님께서 계시는 논판은 물론 금빛물결 일렁이는 드넓은 논벌 여기저기에 벼가을하는 사람들의 농립모와 아얀 머리수건

들이 보인다. 선들바람이 아득한 논벌 저쪽에서부터 금물결을 일으키며 구수한 냄새를 싣고 불어온다.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푸른 하늘에서는 새들이 춤추며 날아댄다. 풍년든 이 땅, 노래소리 넘치는 흥겨운 일터...

얼마나 좋은가. 제땅에서 제손으로 씨뿌리고 제손으로 가꾸어 제손으로 거두어들이는 이 재미는...

풀메뚜기 한미리가 수령님의 손등에 올라앉았다가 포르릉 날아내린다.

빙그레 웃으시며 허리를 다시 굽히려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들판 한가운데로 난 행길에 까만 승용차 한대가 달려와 멎는것을 보시었다. 차문이 열리더니 회색 중절모를 쓴 키가 흰칠한 사람이 내려섰다.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뜻밖에도 홍남에 가있던 김책부수상이였기때문이었다. 김책은 행길에 세워둔 승용차를 먼지솔로 닦고있는 수령님의 차 운전사에게 몇마디 묻는듯하더니 한손을 눈언저리에 대고 들판을 둘러보다가 서둘러 논두렁에 내려섰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김책이 공연히 신발에 감탕을 묻힐가봐 넘어져 《들어오지 마요. 부수상동무, 내 나가겠소.》하며 농립모를 들어보이시었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펴는 농민들에게 오늘 팔목이 시큰해지도록 벼가을을 좀 해보려 했더니 그렇게 될것 같지 못하다고 아쉬운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농민들이 따라나오려는것을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며 김책에게로 마주 걸어나가시었다. 함께 일하던 부관과 일꾼들이 뒤따랐다.

《수고했소. 그래 홍남에서 언제 돌아왔소?》

수령님께서서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김책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었다. 김책은 올라온지 몇시간 잘된다고 하면서 정중히 그러면서도 좀 빠른 어조로 그간의 사업정형을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렸다.

《장군님께서 지난 6월 홍남에 다녀가신 다음 그곳 비료공장에서는 더욱 분발해서 1호, 4호, 9호, 10호, 12호 질소분리기와 1,500마력 압축기 보수정비를 끝냈고 제2류안과의 11호, 12호 포화기도 복구하였습니다. 이 기세대로 나가면 자기들이 결의한대로 연간계획을 능히 한달이상 앞당겨 끝낼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진제강소에서는 3호회전로 복구공사를 끝냈고 강선과 성진 제강소들에서는 장군님께서 파

업주신 첫 차륜시제품생산에서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음… 우리 로동계급이 정말 장합니다.》

다 익은 두렁콩이 위병대처럼 줄지어서있는 논둑길로 김책과 함께 걸어나가던 수령님께서서는 앞에 실도랑이 나지자 그를 돌아보며 랑해를 구하시였다.

《가만… 내 장화를 좀 씻어야겠는데… 어찌겠소. 잠깐만 기다려주오.》

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이 발을 씻기 위해 놓은듯한 물가의 자그마한 돌우에 걸터앉으시였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빨간 고추잡자리가 장화를 씻고계시는 수령님의 어깨우에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참, 흥남비료의 그 고수머리총각이 잘 있소? 내가 갔을 때 기침을 하면서 오늘월 감기는 무엇도 안걸린다는데 정말 창피하다고 하던 그 친구 말이요.》

《잘 있습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끝내구 잔치를 하겠는데 절터더 정 바쁘지 않으면 꼭 오라고 합니다. 처녀네 집에서 이제야 겨우 문맹을 퇴치한 로동자라구 아직도 씨원치 않아하는 모양입니다. 처녀는 교원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어이가 없어 껄껄 웃으시였다.

《팬찮아. 공화국의 부수상을 자기의 인격을 높이는데 써먹자는건데… 거 아주 결작이요. 우리 나라야 로동자, 농민의 세상인데 부수상에게 그 좁한것은 요구할수 있지. 그렇지 않소? 허허허. 좋은 동무요. 일욕심도 많구… 앞으로 공부도 시키구 잘 도와주어서 훌륭한 일군으로 키웁시다.》

《알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났던 몇몇 사람들의 안부를 더 물으시였다. 김책이 수령님의 물으심에 일일이 다 대답드리고나서 조심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사실 이번에 제가 갑자기 올라온것은 철도전기화공사장에서 제기된 문제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약간 긴장되는 감을 받으시였다.

《부수상동무가 여기까지 찾아나올 정도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김석모동무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일을 잘못해서 그만…》

《김석모?》

수령님께서서는 장화를 씻던 손을 멈추고 김책을 돌아보시였다. 고추잡자리가 놀란듯 파르릉 떠오르더니 어디론가 날아갔다. 김책이 죄스러운듯 눈길을 떨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리를 이르시였다. 자못 신중해지시였다.

《그래 그 문제란게 어떤거요?》

잠시후 승용차가 평양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자 수령님께서서는 뒤좌석에 함께 앉은 김책에게 조용히 물으시였다.

심각한 낮빛으로 차창밖을 내다보던 김책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동무가 지금 중앙검찰소에 가있습니다.》

《검찰소에?》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한 눈길로 김책을 돌아보시였다.

김석모는 철도전기화공사장에 현장책임자로 나가있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가 무슨 잘못으로 검찰소에 가있단 말인가.

《농림성에서 쓰려고 실어오던 원목 열방통을 화주와 토론도 안하고 고원에서 공사장으로 끌고갔다고 합니다.》

《배짱이 있구만. 그런데…》

《그 원목은 실어가자마자 절반이상이나 불에 타버렸답니다. 나쁜놈들의 작간인것 같습니다.》

《음…》

수령님께서 안색을 흐리우며 차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금빛으로 일렁이는 벼바다우로 멀리 푸르싱싱한 가을무우배추밭이 바라보였다. 그뒤로 보이는 빨간 고추타래를 매단 집들의 지붕마다에서는 동이같은 호박들이 한가하게 누워누렇게 익어가고있었다.

《보다 엄중한것은 며칠전 내무성에서 잡은 간첩놈의 진술입니다. 그놈은 김석모를 남조선으로 데려가려고 들어왔다는것입니다. 검찰소에서 전화가 왔길래 급히 올라와보니 부인할수 없는 물질적증거들이 있어서…》

《가만… 그 동무 처가가 남조선에 있다고 하지 않았소?》

《남강원도 강릉에 장인과 장모, 처남들이 다 있습니다.》

《들은 기억이 나오. 장인이 강릉의 주문진에서 개인병원을 크게 차려놓았다고 했던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첩이 바로 김석모와 일본에 같이 건너가서 공부한 동창이라는것입니다. 그의 동창생들이 남조선 괴뢰정부의 요직들에 있는데 그들이 리승만과 리범석(괴뢰 국무총리)의 련명으로 된 초청장까지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간첩놈은 김석모의 집에 몇번 찾아갔던 모양인데… 지어 술까지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술이야 마실수도 있지. 그런데… 음… 그렇다.》

수령님께서서는 더 말씀을 안하시였다. 당장 하늘이 무너진대도 끄떡 안하던 김책이 무엇때문에 벼가를 현장에까지 찾아왔는지 리해가 되시였다.

저앞에 개울이 나타났다. 들국화가 하얗게 핀 방축길에서는 송아지들이 가담가담 풀을 뜯으며 마을로 가고있는 황혼이 비낀 내가에서는 아이들이 첩병거리며 반두질을 하고있다.

한손엔 들국화를 꺾어 들고 다른손엔 고기다래끼를 든 예닐곱살쯤인 소녀가 그옆에 서서 호기심어린 눈길로 낫선 승용차들을 바라보고있다.

물끄러미 그들을 내다보느라니 수령님께서는 문득 김석모가 어렸을 때부터 저런 반두질이나 낚시질같은 천렵보다는 체육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하던 김책의 말이 생각나시였다. 열다섯살때 몰래 집을 뛰쳐나와 서울에 가서는 순전히 콩나물장사와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을 했다는 김석모다. 그는 한때 《조선고학생갈등회》 회장까지 했는데 그때는 물론 일본에 건너가 철도전문학교에 다니면서도 야구나 축구는 학교팀의 주장으로, 공격수로 맹활약을 하였다는것이다. 지금도 그는 체육이라면 오금을 못쓰는데 김책은 무슨 회의를 소집하다가 그가 없으면 먼저 어디서 체육경기를 하지 않는가부터 알아보고 그리로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 그러면 그는 영악없이 경기장의 관중들 한복판에 틀고앉아 엉덩이까지 들썩거리며 《야, 7번 넘기라. 가운데로... 좋아좋아. 10번 뭘해, 돌입하라, 빨리... 숫샷!》하고 선수단 지도원보다 더 열이 올라 고향을 지르고있다는것이다.

고향은 리원군 염성리...

해방직후 함흥에 파견되였던 김책이 쓸만한 사람이라면서 데려왔었다. 그들의 첫 대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함흥철도관리국에서 일하던 김석모는 해방이되자 자칭 《자위대장》이 되어 《자위대》를 못고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함흥역과 기관구를 지키고있었는데 김책이 부관과 함께 찾아가니 뜻밖에도 야구방망이를 들고나오더라는것이다. 반동놈들이 철도의 설비부속들을 마구 뜯어가고 파괴하던 시기여서 밤중에 보초병과 들어가자느니 못들어간다느니 욕신각신하는 소리를 듣고 또 나쁜놈들이 온줄 알았다는것이다. 범같은 《자위대장》이 날이 어둡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평양에서 왔다한들 어떻게 믿고 들여보내겠는가고 딱 잡아떼는 《보초병》의 책임성이 마음에 들어 부관과 욕신각신하는것을 뒤에 서서 흐뭇해서 지켜보기만 하던 김책은 김석모가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뛰어나와서야 껄껄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자기 소개를 했다.

《함흥엔 철도전화만이 살아있다길래 밤중이지만 이렇게 찾아왔소. 평양과 연계를 좀 취해줄수 없겠소?》

김석모는 그렇게 하자고 자기 방으로 안내하면서 야구방망이는 꼭 틀어쥐고 옆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걸었다. 걸핏하면 한방망이 안길 잡도리였던것이다.

그때까지도 김책이네가 믿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의 방에 들어선 김책은 또다시 가슴흐뭇해지

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책상우에는 설계도면과 함께 전동기며 압력계며 코일이며 하는것들이 잔뜩 널려져있는데 그앞에 금방 식사를 하다가 뛰쳐나갔는지도 밥그릇이며 찬그릇들이 열려진채로 놓여있었던것이다. 책상옆에는 까만 치마에 흰저고리를 입은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눈매가 고운 아릿다운 녀성이 밥그릇을 싸들고온듯싶은 보자기를 들고 서있다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의 집사람입니다.》

야구방망이를 방구석에 세우며 자기 안해를 소개한 김석모는 이어 수화기를 들고 평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은 김책과 부관을 훑고있었다. 평양이 나왔다면 수화기를 넘겨준 김석모는 그대로 서서 지켜보다가 김책의 입에서 《장군님께 연결해주시오.》 하는 소리가 나오자 금시 눈이 화동잔만해져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김석모가 안해를 데리고 황황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미소짓고 바라보던 김책은 전화가 연결되자 장군님께 함흥실태와 그간 사업정형을 보고드리고나서 다시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파정에 김석모가 한편으로는 함흥역과 기관구를 지키면서 짬만 좀 생기면 놈들이 파괴해놓고 달아난 기관차와 기관구설비들을 제손으로 살펴보려고 그렇게 밤을 날라다먹으면서 아글타글 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파견원동지! 여기 함흥철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살려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 말에 김책은 더더욱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철도기술자대렬은 어떻게 꾸리고 로동자들은 어떻게 조직동원하라고 구체적으로 과업을 주었다. 김책은 함흥에 파견되어 있는 기간 그에게 각별히 관심을 돌리면서 자주 새 임무를 주곤하였다. 그렇게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면서 듬직한 일꾼으로 키워 수령님앞에 내세웠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김석모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줄이야...

승용차가 산굽이를 돌아서자 앞에 파수원이 나타났다. 받침대를 대주었는데도 땅에 드리울듯 무겁게 휘늘어진 사과나무가지마다에서는 소담스런 사과가 알알이 붉어 그 싱그러운 향기가 차안에까지 풍겨오는듯싶다. 갑자기 그 파수원에서 조무래기 서넛이 뛰쳐나오더니 호주머니를 움켜쥐고 죽기내기로 달아난다. 그뒤로 흰 바지저고리에 농립모를 쓴 늙은이 비슷한 키 큰 남자가 주먹을 흔들며 따라가다가 뿔쩍 주저앉는다.

그들을 묵묵히 내다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김석모에게 철도전기화공사를 맡기던 일을 상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철도운수를 기어이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고야말겠다는 그의 기개가

마음에 들고 내밀성이 있는데다가 일욕심도 있어서 철도전기화공사지휘부 문제를 토론할 때 김책에게 현장책임자로 김석모를 시키면 어떻겠는가 의향을 물으시였었다. 그러자 김책은 것처럼 손때묻혀 키워온 김석모인데도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심각한 어조로 《지식도 있고 전경력도 있기는 한데… 그런 중요한 공사를 꽤 해낼수 있겠는지…》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였었다.

사실 철도전기화공사가 물질기술적토대가 매우 빈약한 현조건에서는 도저히 실현불가능하다는 론조가 내각회의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었기때문이었다.

며칠전에도 수령님께서는 래년도부터 공화국이 창건되어 처음으로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으로 들어가야 하는것만큼 물매가 심한 구간들의 철도전기화문제를 미룰수 없는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금년말까지 두달반동안에 할수 없겠는가 론의에 붙이시였었다. 오늘의 우리 실정에서 나라의 모든 구간을 다 전기화할수는 없지만 제일 물매가 심한 만포선의 개고령(당시)과 평원선의 거차령만은 꼭 해야 하였던것이다. 지금처럼 도제 화차 다섯량을 달고도 그것도 기관차 두대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야 넘어갈수 있는 수준으로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도저히 감당해낼수가 없기때문이었다. 수송은 그대로 생산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그런데 서해벌의 콩이 동해쪽으로 가는 로상에서 《콩나물》이 되고 만포쪽으로 들어가는 소금이 개고령(당시)을 넘기도전에 서슬로 되고마는 현상태에서는 그 방대한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담보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그 공사의 절박성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으면서도 적지 않은 일군들은 도리머리를 했었다. 경제발전의 상승기에 있던 일제도 기술과 로력, 설비와 자재 그 모든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조건에서 50키로메터를 3년 4개월이나 걸려서 겨우 해냈는데 우리같이 모든것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것도 가장 물매가 심하고 차굴이 많은 양덕-천성사이와 개고-고인사이의 70여키로메터를 두달반동안에 전기화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어떤 일군은 이제는 우리가 공식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니 큰 나라들의 방조를 받자고 했었다. 아무래도 갓난애기는 보호자의 방조가 있어야 첫걸음마를 뻔수 있는것처럼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의 실정에서는 큰 나라들의 도움을 받는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의견들에 공감할수가 없으시였었다. 공화국의 첫걸음을 남의 도움을 받아 뻔다는것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면야 무엇때문에 구차스레 손을 내밀겠는가, 남의 도움을 받는 그 길이 일시적으로는 쉽고 편안할지 몰라도 처음부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 남의 힘에 매달리게되고 어쩔수 없이 자기 존엄을 팔게 되며 궁극에는 예측의 올라미에 얽매여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없다는것이 바로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근대력사의 피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다고 개고령과 거차령의 철도전기화를 금년내로 할수 없다는 의견도 받아들일수 없는 론거였었다. 철도를 전기화하는것은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과 문화성을 높이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며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철도의 통과능력을 높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 결정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전력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모든 철도를 다 전기화해야 한다고 수령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결심하고계시였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벌써 나라가 해방된 해인 45년 가을 평양철도공장에 나가시여 철도전기화의 구상을 펼쳐주시였으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대를 꾸어주시고 필요한 기술일군들을 키우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던것이다. 이제는 개고령과 거차령의 철도전기화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고 볼수 있었다. 래년도부터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 들어가야 하기때문이었다. 그러니 철도전기화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것도 무조건 금년내로 끝내야 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갓 창건된 공화국의 첫 공사로 이 구간들의 철도전기화를 결심하시였던것이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중요한 공사이기에 그 책임자를 두고 김책이 심사숙고하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김책은 산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들중 어느 한 동무에게 맡겼으면 하는 의향같았다.

수령님께서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김책에게 빙긋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었다.

《김석모동무야 부수상동무가 키우자고 데려온 사람이 아니요. 그에게 맡기시다. 그는 꼭 해낼게요.》

그러면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철도전기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갔다는 김석모에게 앞으로 공사를 우리 힘으로 꽤 해낼수 있겠는가 물으시였던 일을 회상하시였었다. 사실 김석모가 종합해온 실태조사자료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할 정도로 한심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었지만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철도전기화의 절박성을 느끼시였기때문이었다. 김석모는 흥분해서 단마디로 말했었다. 《장군님, 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 결패있는 성격이 마음에

드시였었다. 더구나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것으로 새 조국 건설에 한몫하려는 그의 지향과 포부가 귀중하시였었다. 그래서 김책을 총책임자로 하고 김석모를 자재부책임자 겸 현장책임자로 하여 공사지휘부를 꾸려주면서 김석모에게 이렇게 강조하시였었다.

《석모동무,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공사가 시기상조라고도 하고 큰 나라들의 방조를 받아야만 할수 있다고 하기도 하오.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1~2년내로는 불가능하다는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금년내로 끝내야 하오. 그 누구를 바라볼것도 없소.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야 하오. 공사는 중요하지만 부수상동무는 산업전반을 보아야 하기때문에 동무가 주인이 되어야 하오. 나는 동무가 꼭 해내리라 믿소.》

이어 돌격대가 조직되어 건설장으로 떠나갔었다.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이끄시는 그 바쁜속에서도 자주 철도전기화공사형편을 알아보곤하시였었다.

김석모는 한편으로는 자재를 끌어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밤낮이 따로없이 로반을 정리한다, 전차선을 늘인다, 차굴바닥을 낮추고 전주목을 세운다 하면서 전투를 벌린다고 했었다. 경기장에서 활약하던 그 기질로 냅다 밀고나간다고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갑자기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가.)

승용차는 어느덧 평양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차창밖에 눈길을 주신채 나직이 물으시였다.

《석모동무네 집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중앙검찰소에서 사건조사때문에 몇번 갔댔더니 알고있을겁니다.》

《음...》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문득 올해 4월 남북련석회의때 꽃다발을 안고 주석단에 올라왔던 김석모의 안해 강관순의 아련한 모습이 떠올랐다. 무한한 행복감에 다 익은 복숭아빛으로 발갛해졌던 그 동그스름한 아릿다운 얼굴... 도덕과 지성과 정서가 겸비되어있는 리성적인 녀인이였다. 아이 셋을 데리고 노상 건설장에 나가사는 남편을 뒤받침하느라 애쓰면서도 철도일군가족들의 녀맹사업까지 불안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다기에 한번은 김책이 김석모에게 영화표 두장을 주며 강제로 집으로 떠밀어보냈다고 한다. 김석모는 할수 없이 집에 들어가 안해에게 영화구경을 가자고 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처음엔 선뜻 믿으려 하지 않던 안해는 표까지 보고서야 기뻐하며 애들을 옆집에 맡기고 오래간만에 나란히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한다. 그

러나 안해의 그 기쁨도 한순간이였다. 김석모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겹쌍인 피로에 못이겨 등받이에 머리를 찌르고 드르릉 드르릉 요란스레 코를 끌어땀던것이다. 주위사람들이 자주 돌아보며 눈총을 쏘는것이 너무 미안해서 안해는 누가 볼세라 남편의 옆구리를 살그머니 꼬집었다. 그러자 김석모는 자던 사람같지 않게 벌떡 일어나며 그 큰소리로 《뭘? 침묵이 도착했어?》하더라는것이다.

그렇게 일박에 모르던 남편이 검찰소에 가있더니 것처럼 마음 여리고 남편에게 헌신적이던 안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타격에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쓰러져 울고있을지도 모른다.

수령님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물으시였다.

《김책동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책이 조심히 대답올렸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중요한 철도전기화공사에 관한 문제이고 더우기는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문제인것만큼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겠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면서 결론들을 앞세우는것을 보면 보다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어둠이 깃드는 차창밖을 이윽도록 내다보다가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해도 매듭은 하나 인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것 없이 차라리 이번 내각협의회에서 이 문제도 함께 취급합시다.》

2

회의는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있었다.

농림상은 뿜어오르는 격분을 가파스로 자제하는듯 사업수첩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토론하고있었다.

《...저 사람의 행동은 그야말로 강도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전 이런 무법행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의 법에 대한 영상이 흐려지구 법기관들이 유명무실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한쪽 구석에 피고처럼 머리를 숙이고 후줄근해서 앉아있는 김석모를 민망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농림상의 말은 옳다. 갓 창건된 공화국이기에문에, 반동들이 더욱 피를 물고 날뛰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첫걸음부터 법을 엄격히 지키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레타리아독재기구로서의 국가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의 보루로 만

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게 강한 법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저 김석모는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가슴아픈 눈길로 김석모를 내려다보다가 약간 갈린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석모동무, 농림상동무의 말이 사실입니까?》

김석모가 고개를 못든채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기여들어가는 소리를 했다.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중앙검찰소 검사총장이 일어났다.

《보다 엄중한건 각성이 없이 간첩놈과 친구라면서 두번씩이나 술좌석을 같이한것입니다. 남조선피뢰정부의 초청장까지 받고도 그리고 간첩놈을 하루밤 집에서 재우기까지 하면서도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시다. 본인은 그가 처음엔 간첩인줄 몰랐고 초청장을 주었을 땐 코웃음을 치면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나가 내가 이렇게 초청장을 찢더라고 말하라면서 내쫓았다지만… 여하튼 간첩을 그냥 돌려보냈고… 이번 원목사건도 파고들면…》

김석모의 머리는 점점 더 수구러졌다.

수령님께서는 초췌해진 그 모습을 보느라니 가슴속 깊은곳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는 울분을 어찌할수가 없어 주먹으로 지그시 책상을 누르시었다. 분하시었다.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도 저렇게 주눅이 들어버릴수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시었다. 왜 저렇게 되었는가? 왜?...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해와 목단추를 벗기고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여시었다. 선들선들 밤바람이 불어들어오며 문가림보가 훑날렸다. 푸른 달이 가을밤의 신비로운 정서를 돋구면서 온 누리에 은은한 빛을 쏟아붓고있었다. 저 멀리 달빛 설레이는 대동강물위로 철새가 끼룩끼룩 우짖으며 날아가는것이 보였다. 그 소리와 함께 풀벌레우는 소리도 화음을 이루며 바람결에 실려왔다.

하지만 방안은 여전히 저기압이 드리운듯 답답하기만 하다. 수령님께서는 어제날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역시 이 청소한 조국을 이끌고나아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정말 순탄치 않다는 느낌이 새로이 드시었다.

새 조국을 건설하자고 모두들 주먹을 부르짖고 일떠섰지만 지난날 나라가 너무도 뒤떨어져있었고 그나마도 폐허나 다름없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기술도 경험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일이어서인지 적지 않은 일꾼들은 벌써부터 신심을 잃고 남을 쳐다보면서 가기 발로 걸어나가는것을 몹시 힘겨워하고있는것이다.

하긴 우리 나라가 너무도 뒤떨어져있었던것만은 사실이였다.

철도실태도 다름바 없었다.

원래 이 세상에 레루우를 달리는 첫 증기기관

차가 나온것은 19세기초라고 한다. 1808년 영국의 사트레피크가 만든 이 기관차는 70명을 싣고 시속 9키로메터로 달리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철도운수의 길을 연 사람은 조지 스티븐슨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1818년 증기기관차 《브라츠》호의 시운전에 성공하여 1825년에는 영국의 스톡톤-다링톤사이에 세계 최초의 철도를 개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부터 이 행성의 곳곳에서는 앞을 다루어 철도운수의 길을 개척해나갔고 1879년에는 전기기관차까지 나왔지만 우리 나라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아직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내면서 갓쓰고 하늘소를 타고다녔었다. 조선봉건왕조말기 우리 나라의 철도부설권을 할값으로 손에 쥔 일본의 시부자와가 대륙침략과 자원략탈을 목적으로 철도를 놓기 시작하여 마침내 19세기도 다 간 1899년에야 비로소 인천-로랑진(세 정거장사이)간 첫 철도개통식을 했다. 그때 철길은 일본기술자들이 맡았고 기관차는 미국에서 들여왔으며 기관차는 프랑스사람이 몰았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철도개통식이라 시골에서 만사를 제치고 구경왔던 어느 선비는 타고왔던 하늘소가 짹- 하는 기적소리에 기절초풍해서 길길이 뛰는 바람에 허공중 떴다가 진창속에 구겨박혀 정신까지 잃었다고 한다. 이렇게 남의 힘과 기술로 힘들게 첫걸음을 땀 우리 나라 철도는 일제의 식민지적략탈과 대륙침략야망만을 충족시켜주는 피눈물이 얼룩진 역사를 기록하며 기형적인 굼벵이걸음을 하여왔다. 그나마 일제는 패망하면서 기관차며 기관구, 철도공장과 변전소, 다리와 차굴들을 닦치는대로 파괴해놓고 달아났다. 그 빈터우에서 우리 힘과 기술로 공장을 다시 일떠세우고 기관차를 수리하고 기관구를 복구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오늘은 철도전기화공사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우리가 공화국을 창건하자바람으로 철도전기화공사를 시작했다는것을 알고 신문과 방송으로 별의별 시비중상을 다 하고있다.

반동들과 간첩들도 이 공사를 파란시켜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있다. 원목방화사건과 이번 초청장사건자체가 철도전기화공사 역시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렇다. 세계를 자기 지붕아래 넣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은 우리가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일떠서는것을 절대로 강건너 불보듯하려 하지는 않을것이다. 기필코 우리 나라는 남을 예측시키려는 세력과 그에 항거하여 일떠선 자주세력과의 가장 첨예한 결전장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김석모는...

놈들은 왜 김석모를 노렸는가. 그가 바로 철도전기화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여나선 새 일꾼이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새 조국의 새 일꾼...

만일 우리가 저 사람을 법대로 처리한다면...

물론 그가 없어도 공사는 할수 있다.

그러나 김석모의 인생에는 지울수 없는 상처가 생기게 된다. 우리 공화국의 법은 처벌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것을 목적으로하는 인간사랑의 법이 되어야 한다. 일꾼들은 우리 공화국이 첫걸음부터 인간사랑을 정치의 근본으로, 국가활동의 기초로, 법의 초석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의 법은 계급적원썹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하지만 인민에게는 불같이 뜨거워야 한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범한 과오는 너무도 엄중하지 않는가.

수령님께서는 불밝은 밤거리를 내다보다가 저 어느 한 불빛 아래에서는 그처럼 남편에게 헌신적이라는 한 마음씨고운 녀인이 애들을 불안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으로 울고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저려드는 가슴을 안은채 창가에서 돌아서시였다.

《그래 김석모동무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석모가 고개를 들지 못한채 꺼져들어가는 소리를 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엄하게 벌해주십시오.》

수령님께서는 노한 어조로 그의 말을 막으시였다.

《왜 그런 말밖에 못하는가. 왜 잘못을 짓고 일을 잘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는가말이요.》

쩍- 하고 장내를 울리는 말속에 김석모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수령님을 우러르다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저의 죄가... 너무 커서... 공사장에 원목이 떨어져 공정계획대로 내밀수가 없어서... 말은 일부터 해놓은 다음 랑림에서 받게 된 원목이 도착하면 돌려주자구... 그렇게... 그리구 간첩놈두 옛날 친구였다구 해서...》

《진짜 친구라면 우리편으로 돌려세웠어야지... 그 친구까지 우리편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래 원목은 얼마나 불탔소?》

《저... 열방통가운데서 여섯방통이...》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였다.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래서야 안되지. 아무리 바빠도 화주와 토론하고 해야지 그런 무법천지가 어디에 있소.》

김석모의 두눈에서 굵은 두줄기의 눈물이 랑불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장군님, 전 정말... 그 어떤 벌두 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관대히 용서해주신다면... 로동자로라도 공사장에만 다시 보내주신다면... 장군님 말씀대로... 이 몸이 그대로 침묵이 되어서라두 기어이...》

《동무는 벌을 받아야 해. 동무야 그래서 는 안

될사람이 아닌가?》

수령님께서는 자책으로 모대기는 그를 아픈 눈길로 지켜보다가 천천히 장내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동무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철도전기화는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 첫날부터 하지도 못할 일을 벌려놓고 헛고생을 한다고 비방증상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괴암해분자들까지 들여보내고있습니다. 그 마수는 철도전기화공사장에도 뻗치고있습니다. 바로 저 김석모에게도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은 저 김석모가 공사의 주요인물의 한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 동무는 또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아픈 눈길로 김석모를 내려다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 저으시였다.

《농림상동무가 말한것처럼 공화국의 법은 그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각수상도 공화국 공민인것만큼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긴장해질대로 긴장해졌다. 수령님께서 이제 저 김석모에게 어떤 엄한 벌을 내리시겠는가해서 숨소리마저 죽이고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어딘가 멀리서 아슴프레 들려오는 밤새의 울음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더욱 팽팽히 긴장시키는듯했다. 판결의 운명적인 시각에 이른 김석모의 얼굴은 꺼멓게 질리고 어깨는 졸아들대로 졸아들어 한줄만해진듯했다.

수령님께서는 약간 갈린듯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저 사람을 잡아가둔다면 사실 좋아할 건 나쁜놈들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킬수 있지만 이런 경우 우리는 제손으로 제발등을 찍는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처벌을 론하기에 앞서 여기 모여앉은 우리 각자가 자기 반성부터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나 동무들이나 지금까지 저 석모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더 가슴에 걸립니다. 사실 우리가 제때에 자재를 대주었다면 그렇게 원목을 마구 가로채가는 일이 없었을게 아닙니까. 또 가로채서 썼다 해도 랑림의 원목만 제때에 보장해주었어도 인차 돌려줄수 있었을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동무를 잡아가들것이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상동무, 이 동무에게 원목을 한 스무방통 더 돌려줄수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

있던것이다. 농림상뿐아니라 모여앉은 사람들도 두가 놀란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르고있었다. 김석모도 자기귀를 의심하는듯 눈이 둥그래서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께서 신중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 난 이 동무를 한번만 용서해주자는것을 제의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동무를 믿습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한 인간의 운명을 지켜주는데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모여앉은 일꾼들모두가 크나큰 걱정과 휩싸여 후더운 숨을 내뿜으며 장군님께서 그렇게 믿으시는데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고 말씀드렸다. 너무도 꿈같은 사랑과 믿음에 입까지 병싯해서 수령님을 우러르던 김석모의 두눈에 갑자기 눈물이 펴고 고여올랐다.

수령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뜨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고맙습니다. 난 동무들이 그러리라고 믿었습니다. 김책동무, 우리 김석모동무에게 승용차를 한대 줍시다. 그래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땅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철도전기화공사를 완공하도록 도와줍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금년대로 이 공사를 꼭 끝내야합니다. 그래야 래년도부터 시작하는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이 철도전기화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어 인민들에게 주는 첫 선물로 될것입니다.》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김석모의 량볼로 두줄기의 붉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으흠》하며 급기야 고개를 꺾었다. 김책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군님, 저의 승용차라도 당장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렇다고 부수상이 걸어다닐수는 없지 않습니다. 교통성에서 해결해주도록 하시오.》

김석모는 더 참지 못하고 《장군님!》하고 목메여 불렀다. 그러나 불덩어리같이 뜨거운것이 입안에 꽂 차서 그 소리가 밖으로 뿜어나오지 못했다. 김석모는 고개를 떨군채 두손으로 무릎만 자꾸 쥐어뜯으며 어깨를 떨었다. 끄끙거리며 울음을 미처 삼키지 못해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 들먹이는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였다.

《그대신 동무는 이번 일을 자기스스로 총화해보고 량심의 벌을 받아야 해. 예로부터 법의 판결보다 량심의 판결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오. 지금… 아주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겠소.》

《장군님.》

김석모는 그만 자기를 잊고 수령님품에 얼굴을 묻었다.

3

그런 김석모가 수령님께 또다시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될줄은 김책은 생각도 못했었다.

깊은 밤… 승용차는 진창을 휘뿌리며 농촌길을 달리고있었다. 승용차 뒤좌석에는 김책이 입을을 꼭 다문채 전조등빛에 드러나는 앞을 쏘아보며 앉아있었다. 진논까비가 날아들며 자꾸만 시창에 달라붙었다.

정말이지 이해의 겨울은 몹시도 변덕스러웠다. 초겨울엔 눈이 강산같이 내려썩이고 바람질을 하면서 기승을 부리더니 갑자기 봄이라도 온듯 날이 더워지면서 며칠사이에 그 눈을 다 녹여버렸다.

그러더니 오늘 낮부터는 또 이렇게 진논까비가 내려면서 길을 족탕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문득 저앞에 불빛이 한점 나타나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불빛들이 여러개 나타났다. 철도역같았다.

김책이 운전사를 재촉했다.

《더 속도를 내오. 더…》

그러나 김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승용차 뒤바퀴가 진창에 빠져들었다. 부르릉거리며 용을 썰으나 허사였다. 부관이 뛰어내렸다. 김책도 내려왔다. 어깨를 들이밀고 밀다가 단념하고 역으로 향했다.

부관이 비옷을 들고 따라왔다.

《부수상동지!》

김책은 그를 피곳 돌아보고는 얼굴에 달라붙는 진논까비를 손으로 훑치며 엄하게 말했다.

《따라오지 마오. 동무야 승용차를 빨리 꺼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옷은 쓰고가십시오. 몸도 불편하신데…》

애원이 담긴 그 소리에 김책은 돌아서다가 다시 우뚝 서서 그를 쳐다보았다. 몸이 불편하면 어떻단 말인가. 한시가 새로운 이때에… 속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김책은 말없이 비옷을 받아 걸치고는 진논까비를 맞으며 휘적휘적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사실 부관의 말대로 날이 궂히면서 총상자리가 말썽을 부리고있지만 언제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김책이었다. 장군님께서 지금 자기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시는것이다.

옆구리가 뜨끔뜨끔 마쳐오는것을 참으며 걷느라니 장군님께서 고열로 앓으시는것도 모르고 그 눈보라치는 공사장에 모시고 나갔던 일이 가슴을 허비며 안겨온다.

공사속도가 계획보다 많이 떨어져서 공정이 압축될대로 압축되었던 때였다. 연말까지 48년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수송 50일전투가 교조에

오른 때여서 철도전기화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무척 애를 먹고있었다. 김책이 년말 생산전투때문에 황철과 강선, 청진과 함흥을 다녀와 공사정형을 료해해보니 그 상태였다.

김석모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굴속에 들어가 렬차를 통과시키면서 전차선도 늘이고 바닥을 낮추는 함마질도 하다가 그만 연기에 질식되어 병원에 사흘씩이나 입원해있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나와서는 그바람으로 건설장으로 다시 달려가 지레대로 침목을 떠받들어 렬차운행을 보장하면서 공사를 밀고나간다고 했다. 어떤 때는 눈보라가 아우성치는 60도경사의 산밭을 오르내리며 전주를 운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령하 30도가 넘는 추위속에서 손이 짹짹 얼어붙는 높은 철탑우에 올라가 송전선을 늘인다라고도 했다. 엇그제는 자기 혼자 침목감을 구하러 눈속을 헤치며 랑림에 갔다가 온몸이 뽕뽕 얼어서 돌아왔다고 했다. 김석모는 요즈음 자리에 누워자는 법이 없다고 한다. 승용차에 오르면 《양덕에 가지요.》라고

목적지를 알려주고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달리는 차안에서 잠깐 쪽잠에 드는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니는 길도 잘 모른다는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언제 졸던 사람인가싶게 벌떡 일어나 공사장을 누비며 일을 밀고나간다는것이다. 때로는 승용차를 타고 때로는 수동차를 타고... 그러나 그렇게 아글타글 했어도 어쨌든 그 상태로써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끝내기 힘들게 되어있었다. 수은정류기조립도 문제였다. 현장 기술책임을 진 교통상은 일제때 한다는 전문기술자들도 여섯번이나 실패하면서 1년 반동안에 조립설치했는데 기술도 경험도 없이 한두달사이에 조립해낸다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도리머리를 젓는것이였다. 지금 수은정류기조립을 맡은 사람들은 밤낮 들여다보기만 할뿐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김석모까지 다른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 힘으로 하겠는데 수은정류기만은 다른 나라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바로 그때 교통상이 소련에서 방조를 주겠으니 무엇무엇을 요구하는가 알려달라는 회답이 왔으면서 회색이 만면해서 찾아왔다. 기가 막혔다. 그때 김책은 얼마나 노여웠던지 모른다. 이제 언제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 실무문제를 토의하며 그 사람들은 또 언제 오겠는가.

《잘하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제힘으로 해내겠다고 아글타글하는데 동무네는 애초부터 그들을 믿지 않고 이런 궁궁이를 했구만. 그래 교통상동무는 그것이 사람들의 열오른 가슴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창조력을 마비시킨다는걸 모르고있었던 말이요. 위험하오. 자기의 사람들을 그렇게도 믿지 못하다니... 똑똑히 명심하오. 어떻게 하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하자는건 바로 장군님의 의지요. 자주는 우리 인민의 힘에 대한 장군님의 신념의 철학이란 말이요. 방조를 받아도

제 정신을 가지고 받아야지...》

김책의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가 그 사람들이 방조를 주겠다면 이번 현지지도의 길에 공사장에 들러 돌격대원들을 한번 만나보고 결심하자고 하시였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몹시도 추운 날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공사장에 도착하시자 죄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는 김석모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눈에 피발이 다 섰구만. 입술이 부르르구... 그래 랑림에 갔다가 얼었다던 몸은 좀 어떻소?》

김석모는 얼굴을 붉히며 목메인 소리로 말씀드렸다.

《일없습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돌보면서 일해야 돼. 혁명가의 첫째가는 재산은 신념이고 다음은 건강이요. 알겠소?》

《알겠습니다.》

《이번에 석모동무에게 좋은 구경을 시키지 못한것이 참 아쉽거든. 얼마전에 남북의 체육선수들이 다 모여서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전국적인 체육경기대회를 하였는데... 일만 일이라면서 시간을 주지 못했던 말이요. 무척 보고싶었겠지?》

김석모는 고개를 떨구었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말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일이야 이제 잘하면 되는거지.》

그러시고는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다가 은근한 어조로 이렇게 물으시였다.

《그래 수은정류기조립을 꼭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겠소?》

김석모는 얼굴을 수그리며 떠들떠들 말씀드렸다.

《다른것은 다 할수 있다 해도 그것만은...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한하는데 공사속도를 보장하자면 그 길이 빠르지 않겠나 해서...》

수령님께서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오겠나...》

김석모는 어쭙게 웃으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내 그 정류기조립조동무들을 좀 만나볼가...》

김석모는 수령님을 역사에서 조금 떨어진 변전소으로 안내해드렸다. 수령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다가 웬일인지 눈을 한올큼 집어드시였다. 눈보라가 그이의 외투자락을 마구 훔달렸다. 그렇지만 수령님께서는 변전소건물앞에 이르러서야 눈덩이를 버리고 안에 들어서시였다. 새로 지은 크지 않은 변전소안에 직경이 1미터가량 되고 높이가 80센치미터가량 되어보이는 정류기를 뜯어놓고 화독열에 둘러앉아 담배를 태우던 서너명의 조립조성원들이 한발 앞서 들어온 석모로부터 수령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다가 그이를 맞이했다.

《수고들 합니다. 언제부터 한번 와본다는게 늦어서 안됐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그들의 기름물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고는 화독열 통나무의자에 마주앉으시었다. 그들의 이름이며 나이며 가정형편을 알아보고나서 정류기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보시었다.

《이 정류기가 그렇게 애를 먹이는가? 그래 이 정류기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소?》

김석모가 어쭙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드렸다.

《이 정류기는 32년도에 쏘련에서 개발한것이고 저쪽의것은 일본산 다양극정류기입니다. 이 정류기들은 2극판과 같은 원리인데 이쪽으로 교류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직류가 나옵니다.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물랭각판안에 교류선에 달린 흑연판들과 점호극, 수은이 진공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기본은 최대의 진공상태를 보장하는것인데 현 기술상태와 설비로써는… 도저히…》

《음…》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류기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가 빙긋이 웃으시었다.

《자, 정류긴 정류기이고… 오늘은 우리 이렇게 만담김에 머리도 쉬웁잖아 이야기나 좀 합시다.》

수령님께서는 이러며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시었다. 얼굴을 붉히며 사양하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권하고는 손수 성냥을 켜 불까지 붙여주시었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창건을 앞두고 군사훈련을 하던 때의 일인데…》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담배불을 붙이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어느날 무기청소를 하던 두 동무가 그만 격침을 부러뜨린 일이 있었소. 그때는 총 한자루한자루를 피와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기인것만큼 그것은 대단한 비상사건이었소. 난 부러진 격발기를 들고 이모저모 살펴보다가 그들에게 하루동안 시간을 줄테니 격침을 고쳐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소. 그러자 그들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소. 맨손뿐인 그들에게는 현대적군수공장에서 나오는 무기를 고쳐놓으라니 기가 막혔던 모양이었소. 새 무기를 구입해오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내겠는데 맨주먹으로 경험도 기술도 없이 격발기를 고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들이 너무도 압담해하길래 난 이렇게 말했소. <손쉽게 할수있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것이 혁명이라면야 무엇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혁명이라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겠는가. 보통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해제끼는 여기에 혁명의 참뜻이 있고 혁명가의 보람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고칠수 없다면 앞으로 유격대원이 될 자격이 없다.>

내가 이렇게 엄포를 놓자 두사람은 화닥닥 놀

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고치겠으니 방법을 대달라고 하였소. <나는 방법을 모른다. 방법은 동무들끼리 찾아보라.>라고 하였더니 두 동무는 그만 울상이 되어 훈련장을 떠났소. 그런데 다음날 뜻밖에도 그들은 격침을 고쳐가지고 희색이 만연해서 훈련장에 나타났소. 완전무결한 원상회복은 아니였으나 격침은 손색없이 작용하였소. 자 그렇다면 어제까지도 기술이 없이는 엄두도 못낸 다던 저 동무들이 무슨 갑작수로 저렇게 쉽사리 고쳐왔는가. 정말 내자신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소. 그러나 말을 들어보니 별게 아니었소. 처음엔 쇠줄을 잘라 줄칼로썰구 어썰구 해보다가 너무 안돼서 다음엔 격침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 늘군다음 돌에 갈아 형태를 잡고 다시 달구어서는 기름에 담그었다는거요. 물론 그 방도를 찾고 고치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수리한 격침을 들고 훈련장으로 뛰어들 때 그들의 얼굴에 활짝 피어났던 그 보름달같은 미소를 난 지금도 잊을수가 없소. 그 미소는 분명 자기자신의 힘에 대한 다함없는 긍지의 표현이었을게요.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힘을 자기자신에게서 찾아냈을 때에 맛보게 되는 쾌감과 희열보다 더 격렬한 환희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소.》

사람들은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잊고 병국병국 웃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며

《한때 간도사람들은 쏘련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였었소. 그러나 그때 쏘련에서는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혼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느라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되었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가타부타 반응이 없었소. 그래서 우리는 <다른게 없다. 제힘을 믿고 제힘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산속에 야장간을 차려놓고 창이나 칼과 같은 소소한 무기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소.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얼마후부터는 작탄도 만들고 권총과 보총 수리는 물론 대포까지 만들어냈소. 우리는 이렇게 자기 힘,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해서 적과 싸워 이겼소.

오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요.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바라보며 구걸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존엄을 잃게 되고 남들이 발바닥을 핏으라면 발바닥을 핏고 눈곱자기를 뜯어달라면 눈곱자기를 뜯어주는 속물이 되고마요. 국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건설도 국가건설도 가능한것 다 우리의 힘으로 하자는거요. 도움을 받는다 해서 나쁠건 없지만 역시 제힘으로 하는것보다야 좋게 없지 않소. 어떻소. 동무들, 그래 우리가 이 공사 하나 우리 힘으로 못하겠는가.

김석모가 벌떡 일어섰다.

《장군님, 제가 잘못생각했습니다. 전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정류기 하나쯤 도움 못받겠는가구… 더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구는 오히려 한시

를 덜었다구 생각했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하나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정류기조립조성원들도 벌떡벌떡 일어서서 수령님께 맹세했다.

《고맙소. 우리가 이 땅에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길은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모범을 따라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요. 우리 언제나 그걸 잊지 맙시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공사장들을 오랜 시간 돌아보면서 돌격대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었다. 김석모는 수령님께서 공사장을 떠나면서 수고하라고 손을 꼭 잡아주실 때 《장군님, 더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금년내로 꼭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그렇게서 말씀드렸었다.

수령님께서는 돌아오는 길로 즉시 도당위원장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농민들과 노동자들, 기술자들로 지원돌격대를 무어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그리고는 돌격대원들에게 숨통복까지 보내주었다.

그러나 김책은 그때까지도 수령님께서 왜 자주 찬능을 움켜쥐곤하시었는지 미처 몰랐었다. 그 다음날에야 수령님께서 고열로 몹시 불편한 몸으로 공사장에 나가시었다는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었다. 다시는 수령님께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으리라 속다짐 했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엇그제 김책은 것처럼 우리 나라에 없다면, 견인기를 끌어올릴 쇠바줄을 마침내 황철에서 찾아냈었다. 김책은 즉시 김석모에게 알려 공사장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한데 바로 그 쇠바줄이 도중에서 행방불명이 된것이다. 김책은 오늘아침 김석모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아 한참이나 그를 쳐다보았다.

《쇠바줄을 잃어먹다니...그게 무슨 소리요? 도대체 호송조직을 어떻게 했길래 잃어먹는단 말이요?》

김석모는 사색이 되어 말을 미처 못했다. 한참만에야 떠듬거리며 유개화차에 실었길래 안심하고 떠나보냈는데 현장에 도착 안했다기에 다시 알아보니 언제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알수 없노라고 했다. 놈들의 작간이 분명했다. 김책은 분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일찌기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자루를 지키는 길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원수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싸움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일하는것이 아니라 혁명을 하고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할수가 있는가. 기가 막혔다. 김책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쇠바줄은 중량이 있는것만큼 아직은 철도연선에서 멀리 끌여가지 못했을것이다. 김석모는 철도실태를 잘 알고있기때문에 빨리 손을 쓰면 찾을수 있을것이다. 김책은 내무성에 전화를 걸고는 김석모

에게 빨리 나가 조직사업을 잘해서 점심때까지 무조건 찾아놓고 보고하라고 했다. 같이 나가 찾아보고싶었지만 긴급회의가 있어 그럴수도 없었다. 김석모는 점심때가 다되어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무조건 찾아야 한다고 했으나 저녁에도 또 빈손이었다.

김책은 억이 막혔다. 것처럼 믿고있는 김석모가 범한 과오여서 더욱 참을수가 없었다. 자신을 진정할수가 없어 책상앞을 왔다갔다 했다.

《내 이사람을 어쩌면 좋을까. 응... 장군님께서 기다리고계시는데... 점심때까지는 무조건 찾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저녁이 아니요. 내 이제 장군님께 어떻게 보고드릴단 말이지.》

김책은 큰숨을 몰아쉬고는 두손으로 책상량모서리를 꼭 움켜쥐며 자리에 틀고앉았다.

《아니 난 못올라가겠소. 난 아직까지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 못했다고 보고드릴본적은 없소. 동무가 올라가오. 동무가 직접 장군님께 말씀드리란 말이지.》

김석모가 얼굴이 까맣게 질려서 팔을 부여잡았다.

《부수상동지, 한번만 더 올라가 보고드릴주십시오. 내 오늘밤중으로 기어이 찾아놓겠습니다.》

《밤중으로 찾아놓을걸 왜 아직까지 못찾았소. 어서 올라가오. 난 장군님께 거짓말을 못하오.》

《부수상동지!》

김석모는 애원의 눈길로 마주보고있었다. 그의 눈엔 눈물까지 그렇그렇했다.

《동문 정말...》

할수가 없었다.

2층 장군님의 집무실로 향하는 김책의 발걸음은 천근인듯 무거웠다. 백두산시절부터 언제 한번 그이께서 주신 임무를 드려본적이 없는 이 김책이 오늘 벌써 두번째로 아직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러 가는것이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들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가.

지금 국내외정세는 매우 엄중해지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살찐대로 살찐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패망한 파쑈도 이철란트와 군국주의 일본을 재생시켜 새로운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고 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남조선은 동방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고있다. 미제는 남조선 《국회》를 통하여 미군의 영구주둔에 대한 요청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것과 함께 피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38선일대에 군용도로를 확장하는 등 무력침공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밤잠을 잊으시고 일하신다. 그런데도 수령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면서 오른팔이 되어야 할 이 김책이 지금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

드릴 보고를 올리러 가는것이다.

2개년인민경제계획 초안을 검토하다가 김책의 보고를 받은 수령님께서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시어 어둠이 깃드는 거리를 이윽히 내다보다가 심려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겠는데... 석모동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책은 고개를 숙였다.

《저의 방에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어쨌으면 좋을지...》

《오늘밤중으로 꼭 찾아놓겠다니... 그 동무를 믿읍시다. 그 동무가 지금 얼마나 안타깝겠소. 반동놈들이 낮에는 감히 어찌지 못했을게요. 쇠바줄이 아직 철도연선에 있겠으니 빨리 찾도록 하여야겠소.》

《알겠습니다.》

김책은 더 지체하지 않고 수령님 집무실에서 나왔다. 김석모에게 걸린 음성으로 말했다.

《장군님께서... 몹시 심려하시였소. 오늘 동무 때문에 벌써 두번째 심려를 끼쳐드렸소. 난 동무에게 처벌을 주겠소. 가슴아프지만 묵과할수가 없단말이요.》

김석모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장군님께서 오늘밤중으로 꼭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소. 쇠바줄은 무제가 있고 부피가 크기때문에 반동들이 낮에는 감히 어찌지 못했을게라고 하시면서 아직은 철도연선에 있겠으니 빨리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였소. 순천쪽으로 나가보오. 난 황주쪽으로 가보겠소. 30분에 한번씩 여기 내각으로 전화해서 서로 연계를 가집시다.》...

이렇게 되어 김책이 지금 찬 진논까비를 맞으면서 황주역을 향하여 걸어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쇠바줄은 황주역에도 없었다.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듯 죄스러워하는 늙은 역장의 바래움을 받으며 금방 도착하는 승용차를 타고 황주역을 떠났다. 평양, 서포, 간리...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평성역에 도착했을 때는 동통이 더 심해졌다.

역구내에 있는 전주대에 기대서서 동통을 이겨내느라 눈을 지그시 감고 모지름을 쓰는데 새 소식이 없는가 전화를 걸어보려고 역장실에 들어갔던 부관이 뛰쳐나왔다.

《부수상동지! 찾았답니다. 쇠바줄을 찾았답니다.》

《뭐? 쇠바줄을 찾았다구?》

김책이 눈을 번쩍 떴다.

《석모자재국장이 순천에서 찾아내서 직접 현장까지 실어다주고 방금 평양으로 떠났답니다. 반동놈들이 대피선에 끌어다놓고 막 폭파시키려는 걸...》

《됐소. 자, 빨리...》

김책은 앓는 사람같이 앓게 승용차에 뛰어오르며 부관을 독촉했다. 김책이 평양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김석모가 들어섰다. 김책은 김석모가

방에 들어서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와락 그를 안아올렸다.

《내 이 친구를 그저...》

공중 들리운 김석모가 기겁해서 팔다리를 허둥거렸다.

《아, 아... 부수상동지, 이러지 마십시오. 내 몸중량이 얼마라구...》

《얼마긴 얼마야. 서너근도 못되면서... 내 이걸 그저...》

김책은 김석모를 빙빙 안고돌아가다가 쏘파에 꿇 매쳤다. 그리고는 두손을 허리에 짚고 꺾꺾 웃었다.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졌다.

《됐소. 자 이제 장군님께 올라가자구...》

그러자 엉치를 슬슬 문지르며 일어나던 김석모가 눈이 둥그래져서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저...그건... 제가 어떻게 장군님께... 무슨 면목으로 감히...》

이런 그를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김책이 부러워한 표정을 지으며 한손을 획 내리었다.

《무슨 소릴 해. 장군님께 그만큼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용서를 빌러 올라가야지. 자 옷차림을 바로하라구...》

김책은 김석모를 앞에 세워놓고 옷자락을 당겨 주기도 하고 목단추도 채워주면서 몸차림을 보살피주었다. 그러는 그의 눈빛과 손길에는 수령님 앞에 김석모를 내세워주고싶어하는 웅심깊은 사랑이 짙게 어려있었다.

이윽고 김책은 자기도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나서 김석모를 앞세우고 장군님의 집무실로 올라갔다.

×

밤하늘에서는 언제 진논까비가 내렸던가싶게 찬바람이 불면서 별들이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거리는 고요했다. 어디선가 멀리서 꼬끼요요-하는 새벽닭의 잠내나는 울음소리가 아슬스레 들려왔다. 밤... 아니 이제는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나온 김책은 김석모와 함께 청사를 나서다가 생각되는것이 있어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거리가 다 캄캄한데 유독 장군님의 집무실 창가에만 불빛이 환했건것이다.

김책은 자기도 모르게 그 창가를 향해 돌아섰다.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경건히 그 불빛을 우려했다.

《석모동무, 보라구. 장군님께서 이밤도 또 밝히실게야.》

그러는 김책의 음성은 몹시 갈려있었다.

《난 이날 이때껏 장군님을 모셔오면서 언제 한번 편히 주무시는걸 본적이 없어. 산에서 싸울때두 그래 조국땅에 와서두 그래... 정말 이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이 다 장군님의 가르치심만

기다리구있지 않나...

석모, 우리 장군님을 정말 잘 받들자구. 장군님만 안계시면 이 나라는 끝장이야. 우리두 끝장이구...》

4

눈... 눈이 내리고있었다. 산도 들도 거리도 마을도 온통 눈속에 묻혔는데도 그냥 평평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좋아라 눈싸움을 하고 꼬리를 말아올린 강아지들이 제 기분엔 들떠 어쩔바를 몰라하며 뛰어다닌다.

새해의 첫 아침, 김책부수상과 사업을 의논하며 내각청사앞을 거닐던 수령님께서서는 손을 들어 눈송이를 받아보시었다. 손바닥에 내려와 앉은 흰눈송이를 받아보던 수령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농민들이 좋아하겠군. 이해에도 또 풍년이 들겠소.》

김책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며 말씀드렸다.

《이제는 우리 나라도 능히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있을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가슴이 뿌듯하시었다.

발전한것은 농업뿐이 아니었다. 작년(1948년) 한해동안에 1946년에 비해 기계공업은 663프로, 건재공업은 445.2프로, 석탄은 285프로... 이제는 주요 공장, 기업소들이 거의가 다 복구되었고 공업생산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부문들간의 련계도 훨씬강화되었다.

당을 따라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수준은 또 얼마나 높아졌는가.

옛그제 개통식을 한 철도전기화공사장의 한 돌격대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상이여! 우리를 보라.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울 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48년도는 정말 뜻깊은 해였소. 공화국을 창건했지, 우리 군대를 정규무력으로 발전시켰지 그리고 또 공화국이 창건되어 처음으로 진행한 개고령과 거차령의 철도전기화공사를 끝내여 우리 인민에게 주는 공화국의 첫 선물을 마련하지 않았소.》

수령님께서서는 일일이 손을 꼽아보시다가 약간 흥분된듯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과중의 성과는 우리 인민들이 확고하게 자기의 힘을 믿게 된것이요. 그 돌격대원들이 했다는 말이 얼마나 좋소. <세상이여!》

우리를 보라.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울것이다.> 허허허... 그래 외국의 방조를 받자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오?》

김책이 빙긋 웃었다.

《뻐곡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하하하.》

수령님께서서는 통쾌하게 웃으시었다.

《남만 바라보다가는 잠간사이에 바보가 된다는걸 그 사람들도 깨달았을게요. 참... 흥남의 그 총각 잔치하는데 못갔겠구만...》

《대신 축하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거 잘했소. 부수상이 직접 참가한것보다는 못할테지만 아마 그 친구 위신은 좀 높아졌을게요. 허허허... 우리 48년도 년간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동무들을 크게 표창해줍시다. 철도전기화공사에 동원되었던 돌격대원들에게도... 훈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가만 그런데 김석모동무에겐 무얼 준다?》

《그 동무는 지금도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일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반성해 보면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군합니다.》

《참, 그 쇠바줄사건때 그 동무가 부수상동무의 처벌을 받았다지.》

《그렇습니다.》

《음...》

수령님께서서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며 몇 걸음 걸으시었다.

《그 동무가 무척 피로와했겠소... 하지만 그 처벌이 아마 좋은 약으로 되었을게요. 난 그 동무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설비, 자재로 공화국의 첫 선물을 훌륭히 마련한게 제일 기쁘오.》

김책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처벌을 벗겨줄가 합니다.》

《아니...》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내각수상의 상장제를 내오려 하는데 그 첫 상장을 줍시다. 말하자면 상장을 선포하는 <포상장>을 말이요.》

김책이 놀라서 수령님을 우려했다. 것처럼 심려를 끼쳐드렸고 처벌까지 받은 김석모에게 <포상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도 뜻밖이었던 것이다.

김책이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조심스레 말씀을 렸다.

《석모동무에게... <포상장>을 말입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렇소. 김석모동무는 <포상장>을 받을 자격이 있소. 그 동무는 우리 공화국이 첫 걸음부터 어느길로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거든. 이제는 그 공사에 동원되었던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모두가... 아니 우리 인민모두가 자기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잘 알게 되었을게요. 이제는 백두산의 그 전통이 우리 인민모두에게 이어졌다고 볼수 있소. 난 이것이 제일 기쁘오.》

수령님께서서는 마냥 기쁘신듯 또다시 손을 들어 눈을 받아보시었다. 햇썬처럼 포근하고 정결한

하얀 눈송이들이 쉬임없이 내려앉는다.

《종구만. 눈은 추억의 눈이라더니... 정말 백두 산시절이 생각나는구만...》

순간 김책은 더없이 크고 숭엄한것이 쿵 하고 가슴속에 들어와앉는것을 느꼈다. 그는 뜨거운 걱정과 땀에 눈물을 맞으며 걸으시는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렀다.

백두산시절... 백두산의 전통... 가슴이 뚫어오른다. 불같이 뚫치고싶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벌써 백두 산시절에 우리 인민에게 첫 선물을 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신 첫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은 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누구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게 하여주신것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자기 운명의 조종간을 쥐여주시고 영원히 백전백승할

그 길을 마련해주신것입니다. 그 길은, 그 신념은 바로...》

《김책동무, 뭘 그렇게 심각해서 서있소. 어서와서 저애들을 좀 보오. 저애들이 지금 <눈사진>을 찍고있소.》

김책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수령님께로 다가갔다.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손들어 가리키시는곳에서는 애들이 눈판에 네활개를 찍 펴고 벌렁 누웠다가 약속이나 한듯 발딱발딱 뛰쳐일어나고있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눈우에 찍은 《눈사진》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라 깔깔 웃는다.

수령님께서는 시름없이 웃으며 천천히 애들에게로 걸어가시었다. 김책도 뒤따랐다.

축복의 꽃보라인듯 함박눈은 여전히 하늘을 짙게 메우며 평평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세월과 우리 수령님

림공식

추억의 이랑을 남기며
흘러가는것 세월이라지만
세월과 함께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는분

아 우리 수령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평범한 나의 집도 찾아주시던
그 인자한 모습으로
오늘도 고향에 오시는듯

오시여 오시여
못잊을 그날처럼
허물없이 토방우에 앉으시여
초소에서 보내온 편지도 읽어보고
우리 집 살림살이 형편도
다심히 헤아려주실듯

그래서 오, 그래서
오늘은 오실가
래일이면 오실가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동구길을 정히 쏘고있는것이 아니던가

이른새벽
깊은 밤 가리심 없이
인민을 찾고찾으시던

그이의 거룩한 자옥은
이 시각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고있거니

날이 가고
달은 가도
수령님 허물없이 앉으셨던
우리 집 그 토방우에서
다섯살난 나의 손자도
사랑의 선물을 받으며 자라는 이 세월

세월은 가도
은혜로운 사랑을
오늘에도 그날처럼 남기시는
우리 수령님

아 이 땅의 세월은
아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세월
세월에도 그이의 사랑이 어려있어
년륜을 새기여도 흐름을 몰라라

그렇더라
우리 수령님만은
세월이 천만년 가도
가까이 더 가까이
인민의 마음속으로 오시는것이여라

언감자국수

언제인가 금수산의사당의 연회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해외동포 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있었다.

수령님께서 현지도차로 지방에 나가계시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연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노래소리와 박수소리가 그칠 줄몰랐다.

그런데 웬일인지 북아메리카에서 온 나이 지숙한 한 녀성교포만이 그 흥겨운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연회탁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며 우리 일군들의 거동을 살피는데 줄곧 무엇인가 찾는듯싶었다. 그러다가 몹시 락심해하는듯했다. 눈치가 하도 험동하여 우리 안내원이 《무슨 음식을 찾습니까?》 하고 물었을 정도였다.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찾는것이 없습니다.》

그는 황급히 도리머리를 했다. 왜 그럴까? 우리 일군들과 안내원들은 의혹을 금할수 없었다.

그 녀성으로 말하면 나라에 죄를 짓고 월남도주하는 남편을 따라 남으로 갔다가 인생의 세파에 휘말려 천애이역인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조국과 고향사람들을 그리며 눈물과 한탄 속에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녀성이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나오는 차흥기의 안해 달래와 비슷한 운명이랄가. 차이가 있다면 달래와는 반대로 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운명에 순종하는 형이랄가. 그러던 그가 지난해 남편이 불귀의 객이 되면서

《여보, 내 생명이 몇해만 연장된다면 기어이 고향을 찾아가고싶었소. 고향사람들에게 실컷 육을먹든가 곤죽이 되게 매라도 맛고싶소. 아, 내 인생은 왜 이리도 불운하오. 여보 당신이라도...》

하고 남긴 유언을 간직하고 큰 용단을 내려 조국행을 한것은 일생에 처음으로 되는 대거사였다.

그 녀성에게서 이런 사연을 다 들은 안내일군들은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모저모로 원심을 썼으나 소득이 없었다.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여도 그는 좀처럼 마음을 터놓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만 되풀이할뿐이었다.

그는 연회장에 앉아서도 흥겨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숙인채 들어오는 음식들을 결눈질로 살필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하긴 그는 몸이 약한 축이었고 얼굴에는 로쇠만이 아닌 병색도 어려있었다.

그러던 그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다. 그것은 접대원이 국수를 가져다놓는 순간에 일어난 변화였

다.

《이 국수는 무슨 국수입니까?》

그가 이렇게 묻자 접대원은 친절하게 《언감자국수입니다.》라고 대답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언감자국수입니까?》

그는 거의 웨치는듯한 목소리로 반문하였다.

《예?!》

접대원은 그의 돌변한 태도에 놀래여 마주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 녀성은 접대원의 놀라움도 느끼지 못하는듯 윤기가 도는 언감자국수를 한동안 흘린듯 들여다보더니 단숨에 그릇을 다 비워버렸다.

그러자 그 다음순간부터 그는 아예 판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마시지 못한다던 술도 몇잔 마시고 병어리처럼 침묵만 지키던 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활기있게 흘러나왔다. 지어는 오락회에 서 노래까지 불렀다.

안내일군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만 기웃거리는데 그는 언감자국수를 한그릇 더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언감자국수가 천하제일미라더니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놀랍게도 병색이 돌던 그의 얼굴에는 홍조에 가까운 빛이 어리기까지 하였다.

그날부터 그 녀성의 행동은 일변하였고 마침내는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사실 조국에 죄를 지은 몇몇치 못한 남편과 한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 나라를 찾아오고도 언제나 불안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어도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단합해야 하고 손을 잡을수 있다는것이 우리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언감자국수를 먹고나니 모든 근심걱정이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래년에 다시 조국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에 와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하겠습니다.》

그 녀성이 돌아간후에도 일군들은 여전히 의혹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언감자국수를 먹어보고나서 천하제일미라고 하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언감자국수를 먹고나서 우울하던 사람이 쾌활해지고 병색질던 얼굴에 홍조가 어리고 굳게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가 하는것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의혹을 풀수 없었던 일꾼들은 지어 나중에는 그 녀성동포가 먹은 낱의 언감자국수를 분석해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흥분시킨다든가 쾌활해지게 한다든가 하는 류다른 성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보통의 언감자국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녀성을 것처럼 일번시켰을까? 도무지 알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이듬해 봄 그 녀성은 약속대로 다시 조국으로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오른 그는 큰절을 올리더니 안고운 함을 내놓으며 아뢰었다.

《아버이주석님, 이 못난 백성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함에 들어있는 금덩어리는 저의 남편이 해방직후 왜놈들의 적산품을 정리할 때 몰래 훔친것입니다. 나라의 재산을 훔쳤으니 어찌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늦게나마 개심하고 나라에 바치니 저의 부부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날 그는 우리 일꾼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해 처음 조국으로 올 때 이미 먼저 고향방문을 하고 돌아온 동포들을 몇명 만나보았다고 한다. 조국에서 자기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겠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조국에 가면 처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진짜로 반가이 맞아주는가 하는것은 연회를 차릴 때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만들어 잡수시던 언감자국수를 내놓는가 내놓지 않는가에 따라 알수 있다는것이였다.

그 동포의 말에 의하면 언감자국수를 일명 《빨찌산국수》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백두산에서 왜놈들과 싸우실 때 항일유격대원들이 자주 해먹곤하였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유래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언감자국수가 생겨나게 된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거세찬 공세에 겁을먹은 일제가 이르는곳마다에 《집단부락》을 만들어놓고 인민들이 유격대를 지원 못하게 갖은 발악을 다한데서부터였다고 하였다.

적들의 그 어떤 잔악한 방법과 수단도 유격대를 돕는 인민들의 마음을 막을수 없었으니 인민들은 유격대에 식량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감자를 발에 심어놓은채로 캐지 않고 지하조직을 통해 어느발의 감자는 발가늑의 몇이랑만 캐고 나머지는 년출만 걸어놓았다고 유격대에 연락해주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유격대원들이 발에 가서 감자를 캐오곤하였다. 가을에 캐지 못한것을 겨울이나 이른봄에 가서 언것을 캐다 녹여 물을 짜낸 다음 말리워 가루를 붓는데 그것으로 국수도 놀리먹고 떡도 만들어

먹었다. 그리니 언감자국수는 진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만들어낸 《빨찌산국수》였다...

그 동포는 아버지주석님께서 이 국수를 매우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교포들과 동석식사를 하실 때 지금도 언감자국수를 한달에 뉘번씩 해잡수신다고 하신 말씀을 깊은 감동속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때 아버지주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언감자국수는 소화도 잘되고 맛도 구수한것이 좋습니다. 언감자국수는 농마국수보다 더 맛이 있습니다. 농마국수는 미끈미끈하여 입안에서 그저 목구멍으로 슬슬 넘어가기때문에 맛을 모르지만 언감자국수를 깨국에 말아먹으면 별맛입니다. 언감자국수는 천하제일미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입니다.》

아버이주석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 동포는 언감자국수가 천하제일미이기도 하지만 또 이상한것은 그 국수를 먹은 다음 힘이 부쩍부쩍 나고 마음이 흥겨워졌을뿐아니라 더욱 놀랍게는 늙어가면서 시름시름 앓던 병도 씻은듯이 가셔졌다는 것이였다.

《참으로 언감자국수는 천하제일미일뿐아니라 천하제일가는 보약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온 그 녀성은 매일 매시각 자기가 언제 언감자국수를 먹게 되겠는가를 기다려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죄 많은 자기가 어떻게 그런걸 다 바라라 하고 락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정말로 연회상에 언감자국수가 나오자 너무도 기뻐 그만 폐의를 차릴 생각도 못하고 수저부터 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언감자국수를 먹고났을 때 그는 자기의 몸이 이상스레 후끈후끈 더워지는듯하며 힘이 솟는것을 느꼈다. 늘상 피로를 느끼며 휴식만 바라던 몸에 힘이 솟으면서 마음이 흥겨워졌고 사람들과 섞일리고싶어졌다. 그때 그는 (정말이구나. 그 동포의 말이 정말 맞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열번스무번 부르짖었다.

그는 북아메리카로 돌아가서 그 동포와 다시 만나 언감자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동포는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미국에 돌아와 언감자국수생각이 너무도 간절하여 조국에서 듣고온 방법대로 팽동기에서 감자를 열구었다가 언감자국수를 만들었는데 맛이 전혀 다르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려 밖에서 한번 열구었다 녹인 다음에 해먹어보았으나 역시 맛이 없었고 조국에서 느꼈던 그 신기한 약효를 전혀 느낄수 없었다는것이였다.

《또 조국에 가신다니 부락트리는데 언감자국수 만드는 법을 좀더 자상히 알아보십시오.》 하고

그 동포는 조국으로 다시 오는 그에게 간절히 부탁까지 하였다. 그 녀성은 우리 일군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언감자국수의 진짜 맛과 약효를 내는 비결을 대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보였다.

그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우리 일군들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국땅을 더 밟아보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그러면 그 비결을 알게 될것입니다.》

그 녀성은 더 오래동안 조국에 체류하면서 백두산에도 가보고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일정을 마치고 조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일군들은 웃으면서 물었다.

《언감자국수를 만드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녀성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조국의 언감자국수가 그렇게 신기한 맛과 약효를 가진것은 백두산지맥이 뚫어내린 땅에서 천지의 신령스런 물을 먹으며 자란 감자를 백두의 눈바람에 얼ку었다가 만

든것이기때문이였습니다. 이 언감자국수에는 우리 교포들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주석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 스며있으니 어찌 천하제일미가 아니되고 천하제일약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국수를 주석님께서 싸우신 성산과 주석님께서 계시는 성지의 이름을 붙여 <백두산국수>, <금수산국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후 미국에 돌아간 그 녀성은 언감자국수를 <백두산국수>, <금수산국수>라고 하면서 그의 기막힌 맛과 신기한 약효에 대하여 좌석마다에서 자주 이야기한다고 한다.

참으로 언감자국수가 천하제일미로, 천하제일약으로 된것을 보면 령북지방의 보통음식도 천만가지 신비함을 느끼게 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이 시야말로 인민을 위해 바치신 그 위업으로 하여 민족이 천세만세 받들어모실 불세출의 위인이심을 다시 한번 알수 있다.

김우경

명언해설

《행복의 높이는 충성과 효성의 높이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전사들의 진정한 행복은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데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행복이란 사업과 생활에서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만족과 기쁨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의식에 따라 행복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은 일신의 안일과 향락, 물질적요구의 충족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이바지한 값높은 삶에서 행복을 찾는다. 값높은 삶은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에

서 빛난다.

따라서 행복의 높이는 곧 충성과 효성의 높이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하늘에서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지극한 충성과 효성을 바치시였으며 그 길에서 최대의 행복과 보람을 찾으시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우리는 충성과 효성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는 투쟁의 한 길에서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기고 충성과 효성의 탑을 더 높이 쌓아 나가야 한다.

태양의 궤도 외 1 편

동기춘

태양의 궁전
행성을 펼친 지도우에
노을의 붉은 줄을 선명히 그으며
위대한 수령님
대륙과 대륙을 지나
해빛을 뿌리신 로정도

해썬는 극동의 이 땅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떠나시여
아시아를 지나시고
유럽을 지나시고
세상끝 아프리카를 돌아
다시금 이 땅에 오신 그 길은
태양이 되시여 지구를 도신
태양의 궤도 아닌가

광활한 씨비리동토대에
해방을 일으키시며 천만리
구름낀 유럽의 하늘에
푸른 하늘을 여시며 천만리
황막한 아프리카의 사막에
오아시스를 주시며 천만리

인류의 소원을 안으시고
그 소원우에 은혜의 해빛을 뿌리신
만민의 태양

그 은혜 하도 고마워
씨비리의 장미꽃은 계절아닌 계절에 피여
다발을 엮어드렸던가
발칸의 계곡들은 지극한 감사를 모아
질은 향기를 드렸던가

사랑으로 걸으신 길에
자주의 봄은 푸르게 일어서고
파도친 환희
벗나무숲의 설레임소리 들리는듯
두나이강반의 랑랑한 노래
열대림의 싱그런 바람소리도 들리는듯

가시는곳 이르는곳마다
민족의상을 아름답게 떨치고
땀과 소금을 드리며
원무를 펼치던 세계의 기쁨은
저 로정도
태양의 궤도우에 지금도 뜨겁구나

오, 태양이여
만민은 따르리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
불멸의 인류태양되시여
주체의 세월을 이끄시는
태양의 궤도를

진주돌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릴 때
장군님께 일군들은 말씀드렸어라
-진주빛 최고급석재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인류의 태양이신 수령님
세계가 최정성으로 그이를 모심은
만민의 소원이기도 하나니
진귀한 그 석재만은
이 세상끝에 가서라도
기쁨으로 안아올 그 심정

일군들의 그 심정 아무리 지극하다 한들
수령님을 모시는 장군님의 심중에야 어이 미치랴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뜻밖에 물으시였어라
-우리 인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돌과 함께 돌을 다루며
머리에 흰서리 내린 그들
날날이 밝아본 산발들이
눈앞에 죄송한듯 다가오고 물러갈 때
울리는 말쑥은 땅속에 찾는듯
-장군님
우리 나라에는 아직 그런 석재가...

머리속인 일군들의 그 마음 헤아리신듯
장군님의 조용한 음성 울렸어라
-동무들의 정성은 알만합니다
허나 주체의 최고성지를
남의것으로 꾸릴수는 없습니다
찾아보시오 꼭 있을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없던 한 산봉우리
수천년 아끼고 품었던
진주돌
수령님의 영생을 받들려 간직했던가
머칠지나
일군들은 환희에 넘쳐 말씀드렸어라
-장군님
세상에 없는 이 진주석재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것입니다

색갈도 진하고 아름답고
윤택도 거울같이 빛나고
돌결에도 얼룩 하나 없는
흑진주같은 고급석재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겠다던것은

이 진주돌앞에서는 막돌이런듯
단면에 환한 미소 지으신 장군님
그 기쁨 어데 돌곳 없으신듯
마음속 한구석에 서리였던
심려의 안개를 해빛으로 녹이시는가
-이 진주보석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장군님의 뜻을 산이 알아
산이 움직이고
장군님의 뜻을 인민이 알아
가슴으로 안아낸
진주돌 아, 진주돌은
뜨거운 사연 뜨겁게도 새겨안고
수령님을 만년대계로 받들었어라

영생의 노래

김철후

고요한 이밤
내리는 달빛속에
내 조용히 찾았습니다
한시도 잊어본적 없는
여기 유서깊은 만경대

그러면 들려옵니다
마음속에 울려오는 단조로운 발자욱소리
아 그것은 분명
이 사립문으로 다가서시는 수령님의 자욱소리
오늘도 여기 만경대에 계시여 들려오는...

저 술바람 그이의 숨결은 아니옵니까
푸름푸름 밝아지는
저 만경봉의 빛발은
그 시절에 뿌리시던 그 안광

정녕 탄생하신곳만입니까
오늘도 계시는곳입니다
사립문가 이 프락으로 이어진
그 길은 지구의 한끝
우러르는 만민의 눈길우에
태양이 솟아오르는곳

아 만경대 만경대
탄생하시여 조선의 심장이고
영생하시여 세계의 심장인
태양의 고향
영생의 성지여

×

밝은 화강암에
추녀가 높이 떠받들린 여기 개선문
그아래론 굽이쳐흐르는 흙모의 물결 환희의 물결

왜 이리도 승엄해집니까
바라보니 저 문건으로 오늘도 밝혀오는것
지동치는 눈보라 백두의 눈보라
빼앗긴 자유 조국을 찾아
혈전만리 헤쳐온 그 자욱자욱
아 조국의 운명 한몸에 지니시고
어깨에 쌓인 백두의 흰눈
채 털지 못하신채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걸어오시는 수령님
모습이여

그날에 이어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와라
광복의 만세소리 귀가에 울리고
건국의 마치소리
전쟁의 총포탄소리
그리고 저 하늘가 천리마 퍼덕임같은
용광로의 끓음소리
전야의 오곡이 익는 소리

어찌 광복의 그날만 기념하랴
저기 개선광장
오늘도 넥타이 단정히 매시고 손을 드신 수령님
그 모습을 우러러 넘치던
영광의 환호는 오늘도 메아리칩니다
한번 오시여

한번도 우리결을 아니뜨신 수령님
인민들과 약속하신 만년해로
그것을 오늘도 지키시는 여기
개선문이 아니겠습니까

×

마치 나도 정다운 부르심에 이렇게 들어선듯...
환각이 아니옵니까
금수산기념궁전에 들어서니
사각사각 들려옵니다
연필이 종이우에 달리는 소리
스르륵 들려옵니다
서재가 열리는 소리
그다음 책장이 번져지는 소리

문득 송수화기를 드셨습니까
아니 글썽 장군님을 찾으십니다
다정히 나누시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콧구멍에 대해

새 감자종자에 대해
북방의 발전소건설에 대해...

아마 장군님께서
큰 기쁨을 드렸나봅니다
하하!
방안을 울리는 수령님의 웃음소리
빛발치는 태양의 저 모습

정녕 저 모습이 아니옵니까
오늘도 진정 가시지 않았다고
만민이 우러르며
심장마다 위대한 계시를 받아안은
앞길마다 환히 밝혀주시는

아 장군님의 뜨거운 효도로
수령님은 오늘도 여기에서 일하고계십니다
누리에 빛발치는 태양의 저 웃음
그것은 수령님의 영생의 사업이십니다
장군님 드리신 불멸의 사업이십니다

누가 묻는다면

(총련) 로상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근면한 사람들 사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들 사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인구와 령토의 크기를 자랑하는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의 경탄속에 부상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물으신다면
내 말씀드리지요

지금은 시련의 강행군도 하고
지금은 엄혹한 재난도 있건만

허나
찬란한 나라 희망찬 나라
위대한 장군님 모신 강성대국의 나라가
동방에서 솟아오릅니다
조선에서 솟아오릅니다

어째선지 물으신다면
내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이 세상의 모든 재부
맨먼저 받아야 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맨먼저 지녀야 할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면

근면, 아름다움, 용감, 슬기
인류가 창조해낸
이런 말들은 있어서 뭘합니까?

사람들 심장속에
정의가 살고
인류의 가슴마다에
량심이 있는 한

그리고
유구한 력사에
인간이 가꾸어온 이런 고귀한 말들이
살아있는 한

보십시오
세상은 조선의것입니다
미래는 조선의것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땅우에 영원할 기적소리

이 땅에 또다시 찾아온 7월.

자연계의 운동과 더불어 해마다 찾아오는 7월이지만 언제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뜨거운 충효와 신념의 맹세를 새겨주는 7월이다.

아버이수령님을 천만뜻밖에도 잃고 온 나라 강산이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5년.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더욱 더해만지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해마다 7월이 오면 수령님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우리 인민들이다.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달려오는 영원한 태양의 성지-금수산기념궁전, 바로 여기에서 우리 수령님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시며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를 따 뜻이 품에 안아주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 고계시나니.

나이와 직업, 생김새와 성격은 서로 달라도 온 나라 사람들이 한집안식솔이 되어 찾아오는 이곳-주체의 최고성지.

태양의 품을 찾아 끝없이 끝없이 이어만지는 사람들의 물결, 그 흐름속에 우리도 있다.

뜨거운 인정미가 차넘치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서 오라고 우리를 반겨맞아주시는듯한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상.

청신한 새벽대기를 붉게 물들이며 솟아올라 광휘로운 빛발로 누리를 밝혀주는 태양의 모습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립상.

드넓은 부지에 시원스럽게 펼쳐진 궁전앞광장. 근 1천미터의 길이로 뻗어간 궁전외랑.

활짝 피어나 짙은 향기를 풍기는 갖가지 꽃나무들과 진귀한 나무들이 짝 들어차 설레이는 수목원.

진정 기둥 하나, 벽체에 붙인 돌 하나, 정원의 한그루 나무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생존해계실 때 처럼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가 깃들어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렬차앞에 섰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수십만리 현지지도의 길과 외국방문의 길을 달린 렬차, 금시라도 기적소리 울리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갈듯싶은 렬차를 숭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 뜨거워진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정력적으로 일하는 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인민과 함께 고락을 나누시는것을 다시없는 즐거움으로 여기신 우리 수령님.

하기에 우리 수령님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여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가.

하루종일 렬차에서 협의회를 지도하시느라 피곤하신 아버지수령님께 렬차칸에서 불편하게 쉬시지말고 하루밤만이라도 숙소에 들어가 편히 쉬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일꾼들에게 정이 들어 그런지 숙소보다 렬차에 누워야 잠이 더 잘 온다고, 이 렬차는 내 집이나 다름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

조국땅 방방곡곡에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리시며 때로는 산간군을 찾으시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 방도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풍년든 농장벌을 찾으시여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이르는곳마다에 세월과 더불어 불멸할 사랑의 자욱을 남기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나이가 더 들기전에 인민을 위해 한가지라도 일을 더하여야 한다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기까지 달리는 렬차를 숙소로, 집무실로 정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면불휴의 그 로고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금수산기념궁전의 현지지도렬차.

이 렬차에는 아버지수령님을 최상의 높이에서 받들어모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지극한 충효심이 어리어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렬차에서 협의회도 지도하시고 차안을 숙소로 삼으시기도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수령님의 로고를 헤아리시며 수령님을 더 잘 모실 생각으로 안타까와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아버이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렬차에 대하여 늘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 렬차에서 저택에서나 집무실에서처럼 사소한 불

편도 없이 일을 보시고 쉬실수 있는 세상에서 제 일 훌륭한 열차를 만들어올리실것을 구상하시고 그 과업을 우리 로동계급에게 맡겨주시고 열차생산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열차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도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하여 보내주시고 기술자들과 로력문제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우리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마침내 장군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새로운 열차를 만들어 아버지수령님께 올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새 열차가 이제껏 타던 열차보다 몇배 편안한게 정말 좋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은 새 열차가 최상의 수준이고 예서더 바랄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을 받들어 모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심에는 만족이란것이 있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만든 열차를 타보시고나서 진동이 있다고 하시며 진동을 퇴치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데서 한점의 티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심에 감동된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진동으로 하여 더해질 위대한 수령님의 피로를 덜어드리지 못하는것을 못내 안타까와하시며 동무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안으시고 한평생 고생속에 살아오시는지 다는 모르고있다, 수령님께서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을 생각해보라,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걸음으로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인민들을 찾으시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현지지도의 길에서 지내시는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좋은길로 편히 다니신적이 있었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그런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수령님을 받들지 못한 자책감으로 얼굴을 붉히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모실 열차를 다시 새롭게 잘 만들어야하겠다고, 이번에는 그 어떤 철길상태에서도 열차안에 진동을 주지 않는 그런 열차를 만들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 좋은 열차를 구해오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향을 말씀

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로동계급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는가,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로동계급의 손으로 새 열차를 만들도록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도 열차생산자가 되여 힘껏 돕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열차생산정형을 거의 매일과 같이 료해하시고 사소한 걸린 문제라도 제기되면 즉석에서 풀어주시였으며 열차의 진동을 방지할수 있는 새로운 연구성과들과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마침내 그 어떤 철길조건에서도 열차에 자그마한 진동도 주지 않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열차가 완성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시여 열차의 내부와 외부, 기술상태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보시고 이제는 소원이 풀렸다고, 우리 로동계급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아버지수령님을 더 잘 모실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극한 충효심에 의하여 마련된 열차.

그 열차는 그후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경을 넘고넘으며 달리고 또 달리였다.

세상사람들모두가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할 때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김정일**동지가 마련해준 열차라고, 이 열차는 자신의 집이자 집무실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함없는 정성과 충성심이 깃들어있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와 뜨거운 숨결이 숨배인 귀중한 열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리용하시던 열차를 전시해놓고 인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시고 그것을 전시할 방을 꾸리는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오늘도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로고를 전해주며 서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열차.

그 열차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주던 《인민행열차》의 그 기적소리는 오늘도 내 나라, 내 조국 땅우에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그대로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자욱 어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흐르고있나니.

이 땅위에 영원히 울려퍼지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그 기적소리에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계시어 무궁번영할 내 조국의 앞날과 더욱 행복하고 휘황찬란할 미래를 내다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금수산의 노을속에

오피천

뵈고싶어
7월의 이 아침
아버이수령님 뵈고싶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니

피여오르는 노을속에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며
우리를 반겨맞아주시는
아버이수령님

아 불타는 저 노을
태양의 미소로 피여오르는
저 노을빛 따라
내 마음도 끝없이 달리여라
수령님 품에 꽃핀 생의 자옥자옥

안겨와라
인민의 태양으로 솟아오른
만경대의 봄노을 피던 그 아침부터
락원의 이 강산에 피우신
태양의 그 미소 아버이의 그 미소

그 노을빛 타고 울려오는
사향가의 노래소리
그 음향에 실려
진달래핀 삼지연꽃가를 거니시는
수령님 영상 오늘도 그리워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너전사와 함께 꽃속에 웃으시는
수령님 모습 더욱 간절해

《이민위천》이 지론이시어서
농민들의 소원이 풀린
토지개혁의 푸른 들판에서
농민들과 첫모를 내시던 수령님 영상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

고래등같은 기와집 쓰고
제땅에서 밭갈이하고 씨를 뿌리는
인민의 모습이 그리도 기뻐
그날 그밤에 남기신 영상은
력사도 못잇는 불멸의 화면으로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새겨져있고

나라가 흥하니
삼태자가 많이 태어난다고
어린이들을 안고 환히 웃으시던
그날 그 새벽에 전해진 영상은
세월도 못잇는 력사의 화폭으로
조국과 함께 길이 빛나거니

금수산의 노을이여
우리 천년을 따라가면
수령님 새기신 자옥 다 알고
우리 만년을 따라가면
수령님 영상 다 새길수 있을가

바라보니
만경대의 봄으로
사회주의봄을 활짝 꽃피우신
수령님 영상 어려오고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계신
못잇을 그 영상 어려오네

아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진
아버이의 미소는
세월의 이끼도 가리우지 못하고
력사의 갈피로도 지울수 없나니
어제에 이어 래일에도
조선의 영원한 미래로 비껴가는 노을이여
금수산의 그 노을속에
천세만세 빛나는 태양의 모습이여

기다리는 땅

리영

노을이란 아름답구나
들이,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든듯
노을속에 잠긴 이 땅이
마치도 단꿈에 든듯싶구나

나는 마음 들떠
노을비긴 들길에 나섰다
고향에 시 한수 바치고저 들길에 나서니
금파넘어 불어오는
이 땅의 바람은 너무도 훈훈하구나

허나 나는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저기 들가에 서있는 너인
그 너인을 보는 순간
가을날의 환희는 사라지고
나는 할 일을 그만 잊고말았다
옥빈이! 옥빈이!
나는 저 너인을 잘 안다
지금 왜 벌에 나왔는지도
지금 마음속 말이 무엇인지도
나는 알아도 너무도 잘 안다

누구를 기다리는듯
누구를 마중하는듯
발에 그린듯이 서있는 너인
차라리 그를 벌에 홀로 두어둠이 좋으리
이 벌을 그에게 다 맡겨둠이 좋으리

노을아, 노을아
너의 자락에
내 추억을 실어다오
저 너인을 알게 된 그 봄날에로
저 너인과 이어진 못잇을 그 나날들을

×

그날에도 나는
휘파람 불며 삽을 끌고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들어서니 신이 난 우리 어머니
웬 처녀를 나에게 소개했다
-애, 현일아 인사해라
우리 농장에 새로 온 관리위원장이다
-예?
나는 움썰 놀래며
금시 눈이 떠준해졌다

하긴 놀랄수밖에
토방아래서
곤색 작업복 말쑥하게 차린 한 처녀
새물새물 눈웃음치며
날 보고 알은채하는데야

-옥빈이라고 해요 한옥빈이
맑은 목소리 들었는듯 말았는듯
어깨에 걸친 옷 빨래줄에 홀 던지고
나는 토끼우리 에돌아 집안으로 들어갔다
(행, 유치원교양원갈구나)

-에이구 저녀석 버릇 좀 보지
중학교를 졸업한 햇 송아지라우
혀를 차던 어머니의 변명에
즐겁게 울리던 웃음소리
나는 괜히 속이 울컥해졌다

그의 나이는 스물다섯살
그는 정말 유치원교양원같았던가
온 군이 들썩하게 농사짓던
이웃농장의 작업반장처녀
고향이 맞이한 첫 처녀관리위원장

신방 꾸리듯
농장에선 합숙방 꾸렸건만
농장원들과 한 추녀밑에서 살겠다고
식구 오בות한
우리 집 옷방에 자리잡은 처녀

벌에 첫 해살 비치면
이랑에서 땀을 씻던 처녀
밭머리 총화마다 깔끔한 그 눈길에
엇끔한 반장들이 주뭇주뭇 일어설 때면
도랑물이 주절대며 놀려주었더란다

작업복은 흙탕물없이 늘 깨끗했건만
그 손이 언제나 장알져있었던 처녀
모내기철이면
어느 두렁에 신발을 벗어놓은줄 몰라
어슬넉 프락에 맨발로 가만히 들어서던 처녀

가물든 밭머리에 스며드는 물처럼
더기우에 배관을 늘이며
사람들앞에서 노래부를줄도 알았던 처녀

폭우에 쓰러진 벼이삭을 쓸며
남몰래 눈물로 흘릴줄 알았던 처녀

크고작은 농장의 일감들은
연약한 그 어깨에 다 실렸건만
벼단 개이득
차곡차곡
그 일거둬새 알뜰도 했더란다

옥빈이!
옥빈이!
어느결에 다정한 내 누이로 된 이름아
사람들이 언제나 찾고부르던
농장살림의 착실한 어머니로 된 이름아

하늘가로 끼룩끼룩
기러기떼 줄지어 떠가던 그 가을날
우리 집 마당가에서
내 손을 잡고 빙빙 돌아가던 일이
어제런듯 눈에 삼삼하구나

-현일이,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신대
-정말이에요? 흥, 거짓말
-아이, 이 헛송아지야

헛송아진들 어떠랴
꽃병아린들 어떠랴
이런 때에는 우린 꼭 오누이
코잔등 둘러놓고 관리위원회로 줄달음치는
그 모습 찾아 나도 숨가빠 달렸다

-수령님께서 오신대!
-수령님께서 오신대!
바람탄 민들레꽃씨처럼
들에, 마을에 차넘치던 환희여
웃고 떠들던 기쁨이어

정야산너머로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갔건만
흥성이던 마을사람들속에서
저녁도 다 잊은 옥빈이
갈마드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거워졌거니

수확의 계절이라
그이께선 논밭들을 지나
탈곡장에도 들리실거야
상점이며 유치원을 거쳐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보실거야

어쩐지 걱정스러워지는 옥빈이
미처 뽑지 못한

강냉이뿌리는 어떻게 한담
가을갈이때문에 그이 심려하신다면
그게 무슨 농민의 도리라

수령님께서 찾아오실 큰길가
강냉이뿌리래도 털면 어떨가
그 생각에
그의 발기에
어느덧 불망치 들고 펼쳐나선 마을사람들

이때라 옥빈이를 찾아온
《헵따쑤따》아바이
숨을 헐떡이며 하는 그 말인즉
밭가운데 홀로 남은
자기 집 이야기

-글쎄 포전정리하는 때
밭가운데 덩실한 집을 보시면
그이께서 얼마나 심려하시겠나
내가 망녕이 들었지
이제라도 당장 집을 허물수밖에

순간 옥빈이의 얼굴은 하얘졌다
정말 때가 어느때랴
얼마나 큰 실책을 저지를번하였담
집을 허물수밖에!
집을 허물수밖에!

(에- 저 아바이 말썽이야)
아들이 타는 비행기이름 부를 때면
허가 잘 돌지 않아
《헵따쑤따》 《헵따쑤따》
그래서 그 별명도 《헵따쑤따》아바이

산기슭 새 문화주택으로
온 마을이 이사갔어도
막무가네로 집을 뜨지 않는 아바이
비행기에서 편지를 마당에 떨군다며
동네를 자주 웃기는 《헵따쑤따》아바이

사실이야 마당가의 대추나무
가을마다 열매따는 재미에
집뜨기 싫어하는줄 누가 모르나
하지만 아량있게 받아주던 그 생억지
이제와서 일을 그르치게 될줄이야

밤은 깊어 깊어만갔다
허나 날이 새면
이 땅을 찾으실 수령님
그이를 기쁨속에 맞이해드릴 준비에
옥빈이는 잠들지 못했다

×

70년대도 저물던 가을
동해기지의 수산기지를 돌아보시던 수령님
풍어길에 오든 어로공들을 마중하시느라
그날도 밤이 깊어서야
멀리 평양으로 차머리 돌리시었다

파도헤치며 돌아온
뜨랄선의 선장이며
어로공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주시며
귀중한 시간들을 모두 바치신
아버이수령님

수산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긴급히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셔야 할 그이
오죽하셨으면
농촌현지지도로 뒤로 미루시고
평양으로 차머리 돌리셨으랴

이제 날새면
가까운 농장에 들려보실 예정이었어도
끝끝내 시간을 내지 못하신 수령님
차창너머 눈길 보내시다
문득 승용차를 멈추시여라

-저게 무슨 불들이요?
그이께서 손들어 가리키신 곳
거기 순덕제발에선
한창 뽐비고있는
불, 불...

-저기가 내가 들려보겠다면
그 농장마을이 아니요?
자애에 넘치신 그 물오심에
그이앞에 한발 나서는 부관
-그렇습니다 수령님

-지금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밤도 깊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있겠으니
부관동무가 알아보고
농민들을 폭 쉬게 하시오

-그리고 이번엔
시간이 없어 들리지 못하니
후날 꼭 찾아오겠다고 전해주시오
농장원들이 내가 오는줄 알고
몹시 기다리고있을거요

-수령님, 자정이 가까워 오는데...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승용차를 세우실 때면

인츰 자리를 뜨지 못하시는 그이
이제 주무시면 몇시간 주무시라

시간은 얼마나 흘러갔는지
흐려지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점점이 널려있는 불들을 지켜도 보시며
크나큰 나라일 다 안으신 수령님
산협길에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계셔라

시간은 또 얼마나 흘러갔는지
죄송스러운 마음안고
다시 돌아온 부관
지니고있는 의무로 하여
수령님께 사실대로 보고드려야 했거니

-수령님, 농장원들이 불망치를 켜들고
강냉이뿌리를 털고있었습니다
허나 그것만은 그것만은
사실대로 보고드리기 힘겨웠던지
갑자기 목갈리는 그의 음성

-그리고 발가운데 남아있는
한 기와집을 허느라구...
마치 자기들이 일처리를 잘못한듯
머리를 떨군 수행원들을 보시던 수령님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오셨다

-그들이 왜 그런다오?
집은 이밤에 왜 헐구?
그이앞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관
-수령님께서 보시면 심려하신다고
아마 그래서 야간작업을 조직한것 같습니다

알만하시였다
허지만 마음은 괴로우시였다
이밤 집주인은 제 가마목을 버리고
남의 집 옷방에서 보내야 하는가
왜 이런 일판이 갑자기 벌어져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것이
저것으로 되고
그렇게 하는것이
자신으로부터 인민을 멀리 두게 하는 일인줄
왜 모른단 말인가

우수수-
마가울 찬바람은
그이의 옷깃을 훑날리는데
쭈뼌 자리를 뜰줄 모르시던 수령님
안타까이 말씀하셔라

-내가 다른 나라 대통령입니까?

인민이 어떻게 사는가 알아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걸린 고리도 풀고
당정책도 옳게 세워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자는데...

하늘은 흐려오기 시작하였다
구름속에 달도 가리운 밤
가랑잎 날리는 산협길에서
수령님 오래오래 서계셨던 사연을
세상은 다 모르고있었다

그밤
농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일일이 료해하신 수령님
멀리 어둠속에 잠긴 마을을
한동안 바라보셔서라

살기 좋은 오붓한 고장이였다
저기서 살며 땅을 가꾸는
농민들을 만나도주시고
살림살이형편도 나누고싶어지시는
수령님 마음

(관리위원장이 처너란 말이지
자기 위치를 지킬줄 알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것을
하긴 그럴수 있지
그럴수도 있구말구)

어느덧
아버이수령님께서서
산협길을 천천히 거니시다
부관을 몸가까이 부르시며
어쩐지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셔서라

-다시 가서 처너관리위원장을
잘 타일러주시오
그리고 내가 오지 못한다고 섭섭해할텐데
어찌겠소
도무지 시간을 짜낼수 없구만

기다려달란다고
이제 시간을 내서 찾아오겠다고
일을 잘한 다음
서로 기쁘게 만나잔다고
그들에게 꼭 전해주시오

떠나셨어라 수령님께선
그것도 찬비 내리는 밤 떠나셔야 했던
그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것이였는지
그이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것이였는지
고향아, 네 다 알수 있었더라

우리 수령님은 어떤분이셨던가
그이는 인민이 사는
온돌방에 스스럼없이 앉아보시는분
인민이 쓰는
밥그릇까지 세여보시는분

인민의 숨결소리를
인민이 누리는 생활의 음향을
속속들이 가늠하시고 맥을 짚어보시는
그이는 자애론 아버지!
인민의 수령님!

그런 수령님이셨기에
한 살림집이 때아니게 헐리운듯해
마치도 자신때문에
강냉이밭에서 뿌리를 털며
농장원들이 밤을 새는듯해

차창에 부딪치는 비발사이로
온 마음 다 두고가시는 산천을
돌아보시며 또 돌아보시며
다시 귀로에 오르셨던 수령님의 심중은
그때 어떠했으랴 어떠했으랴

-제가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수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령님!
다음날 산협길에서 어푸러지던 옥빈이
허둥지둥하던 《헛따쑤따》아바이
가슴에 흘러내린것은 비물뿐이었던가

심려를 안고 떠나신
그이의 자욱을 쓸며 쓸며
세상에 수령님만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신다는
그 뜨거움에 목메이며 목메이며
온 고향이 울었다

×

노을은 예대로 아름답구나
하나 네 자락에 실은
나의 추억도 이젠 끝마쳤으니
노을아 이 땅 새겨진 하많은 사연
네 말해보렴

그때로부터 15년이 잡히던 때
내 고향 대동천에
물이 넘어나던 바로 그해에
조국과 인민은
어떤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던가

이삭의 설레임이
무의미해졌던 일

희망이었고 소원이었던
이 땅의 그 기다림이
아물수 없는 상처로 된 일

이 나라 청사우에서
그처럼 자랑차게 펄럭이던 국기
처음으로 추연히 내리드리웠던 일
귀에 선 추도가의 선율이
천만가슴을 애절하게 굶어내리던 일

눈물의 바다
비에의 바다에
이 강토가 가라앉을듯싶었던
그해 7월
고향아, 그때 나는 평양에 있었다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하늘에 하소하며
땅에 하소하며
만수대언덕우에서 가슴을 쳐야 했다

어쩐지 네가 생각키워서
심려만 끼쳐드린고장으로
너만이 세상밖에 홀로 남을듯싶어서
눈물은 눈물만을 퍼내고
슬픔은 슬픔만을 더해주었던지...

너의 슬픔은 류다른것이였다
고향아
너는 보았으리
발이랑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옥빈이를
가슴만 어루쓸던 《헵따썸파》 아바이를

시간을 내서 오겠다시던 그 약속
수령님은 지킬수 없으셨던가
그래서 새 농기계 나올 때면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던지
새 농약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던지

다시 오실수 없음을
수령님만은 이미 알고계셨던가
그래서 농사형편도 전화로 알아보시고
살림살이형편도 보살펴주시며
이 땅을 위해 그리도 마음써주시였는지

수령님 심려안고
지나가신고장이어서
수령님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안고계시던고장
그래서 이 땅의 자그마한 풍년소식도
그이에겐 크나큰 기쁨이 되어왔거니

산천은 날마다 풍성해지는데
수령님 세상 떠나셨으니

이 땅에 땀으로 물고 청춘으로 새겨온
옥빈이의 그 소원은 그저 소원으로 남는것인가
고향의 기다림은 그저 기다림으로 끝나는것인가

아니다 그 모든것을 풀어주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서
그 소원으로 산천을 더 활짝 꽃피우고
그 기다림으로 생활의 기둥을 떠받들며
억척스레 다시 일떠선 땅

수령님과 꼭같이신 그분이 계서
소원은 소원으로 불타고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더 간절해지는
바로 이 땅에서
오늘도 옥빈이는 제자리 지켜서있거니

노을아
내 고향의 아름다운 노을아
네 자락을 다시 펼쳐다오
너울너울 다시 펼쳐 이 땅의 진정을
당중앙창가에 전해다오

그이께선 오시리
한지도별에서 옥빈이를 만나주실 그이
그 손을 쏴주시며 살뜰히 말씀하시리
-관리위원장동무구만!
농사짓느라 손이 다 트구...

그이의 옷깃에 들바람은 어리광치고
이삭들은 절을 하듯 설레이는데
이 기쁜 날에 더 울먹해지는 옥빈이
-장군님 절 용서하십시오
그때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못잊을 그날의 사연 다 알고계신듯
그이께선 따뜻이 달래주시리
-누가 모든말든
진정으로 땅을 가꾸는 모습을 보니 기쁘오
동문 제자리 지킬줄 아는 관리위원장이요!

그만에야 그이 품에 얼굴 묻는 옥빈이
마음속 그 상처를 깨끗이 가셔주시고
장군님께선 벌을 지나 둔덕을 넘어
담장마다 구기자덩굴 우거진
저기 아담한 마을길에 들어서시리

기쁨에 들떠 까치걸음하는
장난꾸러기의 코밀도 닦아주시며
마중나온 동네사람들에게
다정히 미소를 보내기도 하시며
길가에 떨어진 줄당콩을 주어도주시며...

그러시다

빨간 고추타래 드리운 마루에서
편지장 들고있는 로인을 보시곤
병아리 오구구 몰려다니는
정갈한 트랙에 들어서실 그이

-아니?! 장군님께서 우리 집엘 오시다니?
황황히 허리굽혀 절을 드리고
방석을 퍼놓을래
대추담긴 다래끼 꺼내놓을래
덤뽀다칠 로인

-대추가 참 잘됐습니다
열매를 드시고 그이 치하하시니
죄송스러워지는 로인
-사실 그놈의 대추때문에... 하고
장군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리

새 문화주택으로 이사하던 일이랑
옥빈위원장이며 마을사람들이
대추나무를 떠옮겨주던 일이랑
일일이 다 들어주시던 장군님
고개를 끄덕여주시며 정답게 물으시리

-그래 로인님은
방금 무슨 편지를 보셨습니까?
그 물으심을 기다린듯
주름진 얼굴이 웃음발 되어
금시 해벌써해질 로인

-아들이 승급을 했다는 소식입지요
《험파콤포》책임비행사루요
어깨으쓱 말씀올리는 로인
-《험파콤포》요?
아- 잠자리비행기말입니까?

철썩
무릎을 치는 로인
(옳거니, 잠자리비행기구말구!)
신명이 난 로인에게
장군님께선 즐겁게 다시 말씀하시리

-기쁜 소식을 전해준 통신원에게
대추라도 한줄 줄걸 그랬습니다
갑자기 허둥대는 로인
-예?
저 사실은...

담장에 빙 둘러서서 웃음보 삼키는
마을사람들앞에 난처해질 로인
장군님께 귀속말로
남이 못듣는 귀속말로

무어라 비위 좋게 아뢰일수밖에

순간
눈을 찡긋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장군님
로인앞에 엄지손가락을 내흔드시리

-아들이 제일입니다
정말 장합니다
하늘에서 편지를 집트락에 떨어다니
이게 어디 보통 사실입니까?
책임비행사를 할만합니다

그이의 두던해주시는 말씀에
여봐라- 다 들었지
하며 뽀내던 로인
갑자기 그 얼굴에 찰찰 흘러내리는것은
고향도 함께 흘리는 감격의 분출이리라

우리 장군님 같이신분
세상에 더는 없기에
이렇게 오시리 들에, 마을에
오시여선 기쁨의 씨앗 뿌려주시고
오시여선 행복의 열매 익혀주시리

노을아 노을아
이것이 들에 서있는
저 너인이 벼이삭과 속삭이는 꿈이란다
봄내 여름내 땅을 가꾸며
가슴에 안고사는 그리움이란다

이제는 고향이 되어
수령님께 드릴 꽃
사시절 온실에서 가꾸는
《험파콤포》아바이의 마지막소원이란다
내 고향의 간절한 기다림이란다

그 기다림과 함께
아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사는
내 고향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가는
내 고향

그제 없이야
너 어찌 고향이라
너 어찌
이 나라 땅에
하나의 이랑으로 남아있을수 있으랴

너는 교훈을 남긴 땅
쭉정이 없는 황금들판으로
생활의 밝은 웃음으로

우리 장군님을 기쁨속에 모셔야 할
그 하나의 사명만 걸머진 땅

그게 없이 그게 없이
이삭은 설레여 무얼하며
생활의 좁은 달아 무얼하랴
그것으로 너의 꽃핍이 있고
그것으로 너의 보람이 존재하거니

기다림으로 해쓷은 땅

기다림으로 달지는 땅
하여 너는 내 고향
어느때나 사무치게 안아보는
너는 내 고향

노을아 노을아
네 자락을 펼치여 펼치여
사람도 산천도 붉게붉게 물들여다오
그래서 이 땅을 곱절로 사랑케 하라!
그래서 이 땅을 곱절로 아름답게 하라!

백전백승하리라

신문호

군모우의 붉은 오각별엔
그이 준 백두의 낮이 빛나고
추켜든 서리발 총검마다엔
그이 준 계급의 의지가 비졌어라

오 언제 어디서나 전사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하고 친근한 최고사령관동지
그이 맡겨준 하늘, 땅, 바다 초소를 지켜
피끓는 영웅전사들 충성의 발구름 높이노라

눈보라 천만리
포화속 천만리
간고한 혁명의 산과 강 넘어
군화밑에 흘려간 그 길은 몇천몇만리런가
승리의 광장과 광장을 거쳐
영웅대오는 오늘로 도도히 굽이쳐왔거니

위대한 수령님 부르신 항일성전에
맨주먹으로 원쑤의 무장 빼앗아취고
일제의 백만대군 락엽처럼 휩쓸던
백두의 높은 그 기상을 안고
오늘도 영웅전사들 가고 또 간다

금별의 위훈 찬란한 군기들에
력력히 새겨있어라
이 땅의 그 많은 전선 고지들과 고지들에서
불뽕는 적화점 맞받아
공화국기발을 휘날린 위훈의 자욱
그날의 영웅들 그 자욱을 이어서
오늘도 영웅전사들 가고 또 간다

이 나라 산은 산마다 승리산 영웅봉
하늘도 바다도 승리한 하늘과 바다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은

승리의 함성을 진군가로 들으며
땅과 조국 위해 영웅대오 가고 또 간다

탁월한 주체의 전략전술로
혁명무력 승리에로 이끄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의 담력과 억센 의지로 자랐기에
우리는 조국의 수호자 위훈의 창조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 불굴의 영웅들!

하기에 조국의 전조선은 철옹성이 되고
대건설장들엔 천리마의 나래퍼고
강성대국의 지름길을 열고
발전소 언제들과 새 공장들 일떠선다
침략자를 짓누르는 평화의 성새가 되여...

우리를 애지중지 키워준 장군님의 그 품
위대한 사랑의 그 손길이 있어
영웅전사들의 신념은 충성!
영웅전사들의 힘은 일당백!

그이 명령이 내릴 때
우리는 철의 노도 불의 폭풍이 되리
영웅한 대오의 강철발굽으로
원쑤놈들을 최후멸망의 함정에 처넣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온 세상에 떨치리

아, 백전백승의 로숙한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기치 높이 들고 싸우는 한길에서
영웅전사들은 신심도 드높이
용기도 백배해
어제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래일도 백전백승하리라!



몸소 강행군의 앞장에 서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정치가들은 많지만 김정일동지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정치가는 없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우리 인민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부강조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신들메를 매시고 강행군의 진두에 서시어 만단을 헤쳐나가시였다.

눈보라 날리는 북방의 엄혹한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험산준령의 가파로운 길을 뚫아오르시면서도 한몸의 안녕보다 조국의 룡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앞당기시려 분과 초를 쫓아가시며 기울으신 로고를 우리 다는 모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1월 자강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장강농업전문학교의 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산골짜기를 내려오다가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 무덤골로 올라가야 하는 길은 매우 험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눈덮인 험한 산골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차에 오르시자 지체없이 속도를 내게 하시였다. 험하고 미끄러운 길로 쏜살같이 달리는 차바퀴에서는 눈보라가 뽀얗게 타래쳐올랐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를 따르던 수행일군들이 탄 차가운데서 한대가 그만 도중에 미끄러져 눈속에 박히게 되였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상한 사람이 없는가 알아보시고 다친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가 평양을 떠날 때 무엇이라고 했는가고, 이번 길은 전혀 없는 강행군길이기엔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라고 하지 않았는가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는 기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따라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목적지까지의 험한 길을 쏜살같이 달려가시는

그이를 모신 승용차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난 한 일군은 도로들이 얼음강판처럼 미끄러우므로 차의 속도를 좀 늦추었으면 한다고 간절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왜 걱정이 되여 그러는가고 물으시고나서 정색한 어조로 우리가 걸음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만큼 우리 인민의 강행군이 늦어지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이 늦어진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자신의 안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의 번영과 혁명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에게는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백두산의 기질을 닮으신 희세의 위인이시라는 생각으로 가슴부풀어올랐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은 우리 인민모두의 행복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며 충효일심의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래일과 강성대국으로 빛날 조국의 미래를 앞당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흔들리는 차안에서 어쩌다 차례지는 쪽잠도 달게 여기시고 쉼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 온갖 로고를 기울여가신것이다. 아니 때로는 그마저 미루시고 눈보라 험한 길우에서 한몸의 안녕보다 우리 인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가시니... 진정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시려고 몸소 신들메를 매시고 강행군의 앞장에 서서 험한 길 헤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러러 우리 인민은 충성의 맹세를 다진다.

가는 길 험난해도 승리에 대한 신심 드높이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 광휘로운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리라...

이처럼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이 땅 위에 강성대국의 전변의 역사를 펼쳐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행복이며 긍지이다.

평론묵음을 내면서

이 행성에 있지 말았어야 할 주체83(1994)년 7월 8일, 만민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결을 떠나신 그날로부터 어느덧 5돐이 된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와 인류가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덧쌓으며 지나보낸 나날들, 우리 평론가들은 남다른 추억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만족해하시고 치하하신 장편소설들의 진가를 되새겨보며 평론묵음을 내놓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인 소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시며 그토록 애정을 기울여 읽어주시고 시대의 명작으로 내세워주신 장편소설들의 형

상세계를 다시금 음미하며 우리는 새로운 자각을 가다듬는다.

아버이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 바친 소설의 주인공들과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충효를 다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장군님을 문학으로 높이 우리러 받들어모시는 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앞에 지닌 최대의 사명이다.

이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소망을 안고 평론을 하게 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평론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 깃든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최언경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신지도 어언 5년이 된다. 우리 인민들은 해마다 7월 8월이 오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아버지수령님께 영생기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군한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충효의 마음이며 **김일성** 민족의 영원한 전통이다.

7월 8일을 맞는 이 시각 우리는 가슴저린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걷고 걸으신 헌신과 로고의 한평생을 경건하게 되새겨본다.

그이께서 걸어오신 간고하고도 거룩한 **《이민위전》**의 한평생은 진정 그 순간순간과 자옥자옥하다가 인민들과의 끊을수 없는 혈연의 뉴대와 사랑하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위대한 헌신으로 아로새겨져있다.

이 땅에 태를 묻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 하나 이 아버지의 사랑속에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으랴만 그중에도 우리 작가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류다르고 각별한 것이었다.

작가 변희근도 해방후 아버지수령님께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한결옴이라도 헛디딜세라 따듯이 보살피주신 그 고마운 믿음과 사랑 속에 훌륭한 소설가로 한생을 빛내인 평범한 오랜 작가의 한 사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어지돈에 깃든 수령님의 아버지사랑을 길이 전하려 장편소설 **《생명수》**를 썼을 때에는 소설을 잘 썼다고 그리고 기

뻐하시더니 그가 다시 우리 로동계급과 당일군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그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내놓았을 때에는 누구보다 작품을 먼저 읽어주시고 소설을 잘 썼다고 치하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계급성도 있고 당일군들의 형상도 잘된 소설로서 당원들과 간부들이 많이 읽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누구나 다 읽도록 손수 지정독서로 정해주시고 작가에게 뜨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우리는 오늘 계급성도 있고 당일군이 사람들을 포섭교양하는 문제를 잘 그린 교양적가치가 큰 소설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구구자자 되새겨보며 수령님께 그토록 크나큰 기쁨을 드렸던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다시금 더듬어본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당의 일군과 미더운 로동계급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철학적깊이가 있게 잘 그린 인민의 기억속에 남은 훌륭한 작품이며 생활의 영원한 길동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포섭교양하는 문제를 잘 그렸다고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고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어머니 우리 당의 일군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모이며 성격적특질이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람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따듯이 포섭하여 것처럼 어렵고 방대한 과업으로 나섰던 1호용광로 대보수공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주인공 신철민(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당일군의 참다운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혁명동지의 사랑과 의리로 맺어진 폭넓고 의의깊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교양포섭하여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어나가는 주인공의 보람찬 활동과 활력있는 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소설에는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빛나는 형상도 있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기술일군의 형상도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경제지도일군의 형상도 있다.

작품은 이처럼 각이한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당일군이 어떻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떠맡어주는가 하는것을 참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이 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자라난 오랜 로동계급인 장범도, 설태훈이들과 제대군인출신의 젊은 로동자들인 김석철, 마동석 등과 사업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설정하고 감명깊게 풀어나가고있다.

소설에서는 나라의 강철기둥을 변함없이 떠받치고 나가는 오랜 로동계급인 장범도의 형상을 가장 매력있게 그리고있다. 주인공 신철민은 바로 이런 오랜 로동계급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로의 밀통이 터졌을 때에나 공사의 생명선과도 같은 50톤기중기의 시운전이 실패했을 때에도 그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 끝까지 시련을 이겨나간다.

소설은 특히 언제나 혁명적 열정과 랑만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면서 당이 바란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도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 본때있게 해제끼며 우리 당이 안겨준 무비의 담력과 의지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제대군인출신의 젊은 로동계급인 김석철의 성격을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훌륭히 그리고있다.

그러면서 소설은 주인공 신철민이 바로 이런 미더운 로동계급의 충성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 그들을 전투의 앞장에 내세워줌으로써 당정책관철에서 것처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그러한것은 석철이가 로보수기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광로를 단번에 통채로 자빠뜨릴 대담한 착상을 했을 때 그 발기를 적극 지지하고 떠맡어주는 신철민의 모습에서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소설은 또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기술

자인 건설과의 기사 박정호와의 심각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람을 의심하기전에 믿고 불신과 령대를 가지고 배척한것이 아니라 뜨거운 동지의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따듯이 포섭하여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주인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신철민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겠다는 불같은 마음을 안고 아직은 그 누구도 로의 보수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던 그때에 용광로보수를 위한 설계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3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애써온 박정호의 깨끗한 그 충성심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게 생명보다 고귀한 당적신임을 주며 뜨거운 동지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것이다.

이 따듯한 동지적 사랑과 믿음 속에서 기사 박정호는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1호용광로 보수공사를 두달동안에 끝낼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어내며 위대한 수령님의 치하의 교시까지 받아안은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는것이다.

소설은 또한 책임비서 신철민과 지배인 리형심과의 뜻깊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드는 한길에서 한생을 빛내여가려는 뜨거운 충성심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하게 하고 자신보다도 동지를 위하고 아끼게 하였으며 어려운곳에는 자신이 나서고 영광의 자리엔 동지를 내세우게 하였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뜻깊은 이 모든 인간관계속에 감명깊게 펼쳐진 진실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포섭하여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주인공 신철민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자라난 주체형의 당일군의 숭고한 정신적면모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것으로 하여 빛난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계급성이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일군인 주인공이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철저히 기초하여 사람들을 포섭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을 잘 보여줌으로써 계급성이 투철하게 구현된 본보기작품으로 되였다.

그러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가운데서도 장범도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일생토록 한치의 드팀이나 순간의 동요도 모르는 오랜 로동계급과 김석철, 마동석과 같은 제대군인출신의 로동계급을 전투의 맨앞장에 내세우는데서 뚜렷이 그려지고있다.

소설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있는 몇몇치 못한 생활과 3천마력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에서 오작시공을

냈던것으로 하여 가슴에 그들을 안고 주눅이 들어있는 기사 박정호를 따뜻이 포섭하여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 아버지수령님 앞에 내세워주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소설은 전횡과 판료주의의 전형인 금속공업부 부부장 차병진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주의자인 기사장 림영택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을 믿지 않고 뺨담하게 대하고 배척할 때 얼마나 심중한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예리하게 밝혀냄으로써 언제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인간성은 철저한 원칙성, 투철한 계급성과 결합되어야 한다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가르쳐준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특히 주인공과 로동계급에 대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주인공들의 무한한 충성심을 가장 감동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계급성이 매우 투철한 작품으로 되었다.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에 바쳐진 화폭은 많지 않지만 그것은 주인공의 형상에 활력을 주고 작품전반에 생명력을 주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주체형의 참다운 당일군인 주인공 신철민이 간직한 뜨거운 심장, 그것은 결코 그자신이 천품으로 타고난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계급성의 최고표현이다.

소설은 자기에게 당일군의 뜨거운 심장을 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가

정과 사랑도 다 바쳐 일하는 주인공의 감동적인 형상을 잘 그림으로써 것처럼 계급성이 투철한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이 모든 사상에술적성과에는 인간생활에 대한 진지한 탐구, 조금도 꾸며내는데가 없이 지극히 소박하면서도 더없이 진실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생활묘사 그리고 그 어떤 특이하고 기발한 꾸밈이 없이 생활의 논리를 따라 순탄하고 명백하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도 그 속에서 굴곡도 있고 극도 있게 감정을 조직하여 시종 견인력을 주는 원숙한 구성조직 등 작가가 기울인 진귀한 창작적 탐구와 사색이 안받침되어 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이 모든 사상에술적성과로 하여 교양적가치가 큰 작품으로 되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주체형의 당일군의 참다운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의 정을 더 두텁게 해주며 당에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사람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한명한명의 작가와 한편한편의 작품마다에 해줄기와도 같이 속속들이 스며있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살뜰한 애정과 그것을 위해 기울이신 수령님의 다함없는 심혈과 로고를 다시금 다시금 폐부에 되새기는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 우리의 선배작가들이 문학으로 수령님을 받들어드린것처럼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명작창작으로 받들어모심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고있다.

평론

장편소설 《철의 신념》과 신념의 인간들의 감동깊은 형상

리수립

아버지수령님께서 읽어주시고 치하를 주신 작품들 가운데 장편소설 《철의 신념》(김리돈 작)이 있다.

이 소설은 단부작장편치고 인쇄된 매수만도 600페이지 가까운 퍼그나 부피두터운 작품이다.

게다가 당시까지만도 문단에 이름없던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현직작가가 창작한 작품으로서 미흡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작품을 80이 가까우신 고령기에 다망하신 국사의 짬을 내시어 혁명적인 소설을 탐독하시던 홍안의 길림시절 정열로 밤밝혀 다 읽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체 78(1989)년 1월 25일 다음과 같은 교시를 주시였

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강선로동계급의 투쟁을 반영한것인데 아주 잘 썼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장편소설 《철의 신념》을 잘 썼기때문에 교과서로도 쓸수 있는 작품이라는 최상의 평가와 함께 이 작품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계급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소설이라는 치하의 교시도 주시였다.

실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 한 작품에만도 주체 78(1989)년 1월 25일과 1월 29일, 5월 23일 등 여러차례 거듭거듭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 기쁨과 만

죽을 드린 소설의 작가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하며 작품을 많이 출판하고 텔레비존으로도 내보내며 대중속에 널리 소개전할데 대한 은정깊은 배려도 돌려주시었다.

돌이켜보면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전후의 간고한 환경속에서 강선땅에서 천리마가 어떻게 내려쳐올랐는가를 주제적과제로 내세우고 폭있고 깊어 있는 생활적형상으로 그것을 해명해나간 작품이었다.

생활과 투쟁의 심원한 진리를 감명깊은 형상으로 올려주는 역사문헌적성격이 짙은 장편소설, 바로 여기에 생활의 교과서로서의 이 작품의 사상에술적 풍격과 가치가 있었다.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주체의 혁명철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천하지대본이다.

소설은 혁명적신념에 기초한 수령과 인민대중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의 철학으로 감동깊이 밝혀내었다.

작품은 주체45(1956)년 겨울부터 주체46(1957)년 사이의 시기에 강선제강소에서 벌어진 강재 1만톤증산투쟁을 그리면서 위대한 혁명사적을 문학적으로 재현하였으며 또한 수령을 믿고 따르면 나갈 앞길이 열린다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틀어쥐고 인간학적형상으로 밝혀나갔다.

작품은 전후복구의 잊지 못할 그 시기 강선로동계급들의 투쟁생활에 의거하여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그려야 하는 주제적요구로부터 창고자리 회의실에서의 격동적인 연설장면을 비롯하여 일련의 현지지도장면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하였다. 또한 작품은 강선땅을 떠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하시는 아버지수령님과 강선로동계급들의 뜨거운 인간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생활들을 생동하게 담았다.

소설은 특히 앞부분의 형상에 력점을 찍어 믿음과 사랑의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 계시여 이 땅우에 천리마가 나래치게 되었음을 역사적사실 그대로 확증하였으며 우리 로동계급의 신념의 뿌리, 그 근본원천을 뚜렷이 밝히었다.

작품은 주인공인 압연반장 로장섭을 비롯한 강선의 로동계급들이 신념의 강자로 성장하는 성격발전의 역사를 형상의 기본대로 하면서 1만톤을 증산하는 사건줄거리를 신념을 다지고 굳혀가면서 신념을 지켜 천리마의 비약을 안아오는 문학적인 이야기로 전환시켰다.

이리하여 작품은 위대한 일심단결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웅심깊은 서사시적화폭을 펼치게 되었다.

주인공 로장섭과 그의 반원들은 고난을 뚫고가는 간고분투의 나날에 수령을 알고 혁명을 알며 집단과 동지를 아는 조선의 참된 로동계급으로 성장해갔다.

작품은 수령의 령도를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려는 철의 신념에 끝까지 충직한 로동계급의 품모를 밝히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었다.

당성단련에 이바지하고 계급성을 키우며 인민들을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이 작품의 교과서와도 같은 가치가 또한 여기에 있었다.

신념의 강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형상으로 제기하면서 소설은 우선 수령의 위대성을 참답게 아는 자각된 인간이라는 대답을 생활적으로 주었다.

력사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호소를 받아안은 로장섭의 가슴벅찬 생각은 수령님은 우리의 생명 이시고 미래이시며 어버이이시라는 생각, 수령님 없이는 험난한 세상을 헤칠수도 살수도 없다는 절절한 마음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제강소의 지배인이 되어주겠다시며 놓게 하신 전화기를 보면서 증산투쟁의 나날에 기울여주시는 가지가지 사랑을 받아안으면서 매일 매 시각 느끼는 감정이었다.

마음의 기둥을 세운 로장섭은 앞채를 메고 집단을 이끈다. 자각된 선봉투사가 없이 집단의 사상적인 자각과 분발이 있을수 없고 집단적혁신이 없이 천리마의 비약이 있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꽃피우는 한길에서 로장섭과 그의 반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과 동지를 아는 인간, 현대적혁신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로동계급으로 자라났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로동자들스스로가 추켜든 이 글발은 독자들에게 얼마나 감명깊이 안겨오는가.

신념의 강자에 대한 작품의 형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화, 도덕화한 인간, 생활화한 인간으로 발전하였다.

소설은 로동계급이 지닌 충성의 신념이 바로 순결한 계급적량심의 터전우에 세워진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임을 감명깊은 생활적형상으로 그려내었다.

불순분자 타재구의 작간으로 잃어진 압력계를 찾기 위하여, 그들이 지게 된 집단의 순결한 충성심을 밝히기 위하여 살을 에이는 찬물속에 뛰어드는 작업반원들을 보여주는 장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인상깊은 생활화폭이었다.

순결한 계급적량심의 터전우에 뿌리내린 신념은 투쟁으로 역풍을 맞받아 이기게 하는 강철같이 억센 힘이였다.

그들은 직권으로 내리누르려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전횡을 신념의 무쇠마치로 쳐갈랐다.

가열로개조도면을 잘아몽개다 못해 발전기를 빼돌리려고 나선 부국장 배영달에게 로장섭은 추상같이 선언했다.

《당정책을 외곡하지 마시오. 우린 수령님밖에

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강제중산의 돌과구를 열기 위해 가열로의 화실 속으로 뛰어드는 로장섭과 반원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죽음도 맞받아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육탄정신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았다.

이것이야말로 신념의 강자들이 부르는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였다.

사랑과 우정도 있고 웃음과 눈물도 있는 풍만한 생활, 장편적인 화폭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주인공 로장섭을 비롯하여 최갑동, 서창실, 한중석 등 여러 로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이 생동하게 개성화되었다.

작품은 진실성과 철학성을 폭넓은 생활적화폭우에서 조화롭게 통일시켜 인간학으로서의 풍격을 과시하였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의 봉화가 타오르던 1950년대 후반기부터 천리마의 자랑찬 시대를 반영한 혁명적 작품들을 절절히 바라오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실 적마다 천리마시대의 숨결을 안고 천리마기수형상을 빛나게 창조해야 한다고, 지금은 배꽃타령을 부르고 《리순신장군》이나 공연할 때가 아니라고 간절히 깨우쳐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세월이 퍼그나 흘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선땅에서 천리마의 봉화가 타오르던 당시의 사적을 반영한 예술영화 《압연공들》과 같은 작품이 나왔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작품에서 미흡한 점들을 포착하시고 당시를 몸소 회상해주시었으며 그 뜻깊은 창고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신 자초지종이며 그때의 정경을 방불하게 말씀하여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처럼 거듭되는 가르치심과 따사로운 은정이 없었던들 어찌 력사의 그 시기가 우리 문학에 빛나게 채현될수 있었으랴.

더놓고 말하여 소설은 주체49(1960)년 11월 27일의 력사적인 교시날로부터 계산해도 수십년세

월이 지나서야, 또 거듭거듭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서야 천리마의 사적을 정면으로, 제대로 형상할수 있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소설이 때늦게 나온데 대한 질책은 묻어두시고 치하만을 거듭거듭 안겨주시었었다.

그때를 회고하면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 이루다 말할수 없다.

오늘 그때를 회억하며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은 우리 가슴속으로 치하만이 아닌 깊은 유혼의 뜻이 울려온다.

그것은 혁명적신념에 기초한 수령과 인민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을 밝히고 인민을 신념의 강자로 키울수 있는 교과서와도 같은 작품을 제때에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는 뜨거운 고무의 목소리이다.

우리는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시작된 시점에 서있다.

오늘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도 신념의 강자들이 안아오리라하는것은 어김없는 필연이다.

우리모두는 오늘의 대진군을 제때에 반영하며 신념의 인간들을 찾아 더욱 빛나게 형상해야 할 시대의 부름앞에 서있다.

온 나라에는 강계정신이 내려치고 성장의 봉화따라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조국땅 곳곳에서 제2의 천리마가 발구름소리 높이 구보를 떴으며 신념의 강자들이 그 고삐를 신심있게 틀어쥐고 나가고있다.

우리 작가들도 천리마의 대오에서 함께 구보로 달려야 할것이다.

우리모두는 신념의 문학으로 총진격에 힘있는 박차를 가할 비상한 결심과 각오를 안고 투쟁마당에 나설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께 못다바친 충성을 우리 장군님 앞에 다하는 충신-작가의 자세이며 창작정신이다.

평론

오늘도 《평양시간》은 흐른다

신영호

불빛흐르는 대동강반의 청신한 기운을 타고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린다.

유정한 평양의 종소리를 듣느라니 언제인가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마치시고 깊은 밤 열차에서 내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름다운 수도의 야경을 바라보시며 전후 빈터우에서 락원의 평양을 일떠세우던 일들이 선히 떠오른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그때가 생각날 때마다 《평양시간》을

읽군한다고, 참 좋은 소설이라고 뜨겁게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울리는것만 같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정녕 우리 수령님의 추억의 세계가 소중하게 비껴있는 작품이다.

소설을 혁명의 귀중한 량식으로 여기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정을 담아 읽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잊지 못할 추억의 소설 《평양시간》.

세월의 파동에도 뜰해지지 않는 평양의 종소리와 더불어 이 소설이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감회와 정서적여운을 안겨주는것은 전쟁으로 가슴아픈 상처를 입은 이 나라 인민에게 긍지높고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숨결이 생생히 숨배여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깊고 새로운 생활철학을 담은 작품은 사람들을 사색하게 만든다.》

아름다운 추억은 세월의 이끼에도 덮여지지 않는 법이다. 위대한 생애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자주 회고하시던 전후 평양건설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고있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읽을수록 사람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전후 어려운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오직 수령님만 믿고 당중앙위원회 주체46(1957)년 10월 전원회의결정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던 기적의 그 낮과 밤을 우리 어찌 세월이 간들 잊을수 있으랴.

그때 세계는 8년간의 조국해방전쟁으로 다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 평양이, 아니 조선이 과연 다시 솟아날수 있겠는가고 우려하였다. 더우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집 아닌 반토굴에서 살고 나사못 하나, 벽돌 한장 성한것 없는 빈터우에서 우리가 남들은 감히 엄두조차 낼수 없는 방대한 건설을 단시일내에 단꺼번에 할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믿지 않았다.

허나 세인을 놀래운 전설같은 위대한 변혁이 상상이 아니라 평양에서 산 현실로 펼쳐졌다.

16분에 한세대 조립!

단 몇달동안에 7천세대분의 자금, 자재와 로력으로 2만세대의 살림집 완공!

그야말로 기적이였다. 하다면 온 세계를 경탄시킨 《평양시간》, 《평양속도》 창조의 그 비상하고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온것인가.

전국력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보람찬 조립식건설전투에 참가했던 어제날의 영웅건설자들은 추억깊은 소설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며 긍지높이 말하리라- 평양의 새 력사 기적의 《평양시간》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더 좋게 더 빛나게 살게 해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바로 사랑과 믿음, 충정으로 엮어진 미증유의 대비약, 천리마의 속도를 창조하던 잊지 못할 평양건설의 나날을 아무런 꾸밈도 없이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하고있는 교양적가치가 큰 명작인것으로 하여 영원히 우리 수령님의 기억속에, 인민의 사랑속에 빛나고있다.

평양시건설에서 기적의 원동력으로 된 경애하

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 숭고한 덕성을 뚜렷이 부각해내는데 형상을 집중하고있는 소설은 사람들에게 깊은 뜻을 안겨준다.

주체47(1958)년 1월 어느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그길로 평양시건설부문 지도 일군들을 만나시여 주체47(1958)년을 건설에서 일대 전환의 해, 대비약의 해로 되게 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신 아버지수령님.

그후 그이께서는 사고가 발생한 조립장에 나오시여 건설자들에게 건설부문에서 혁명이 일어나자면 무엇보다먼저 평양건설에서 혁명이 일어나야하고 온 나라 건설자들이 대고조를 일으키자면 먼저 수도건설자들이 천리마를 타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건설자들에게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남들보다 뒤떨어진 우리가 남들도 하지 못할 방대한 건설을 단꺼번에 빨리 할수 있겠는가고 한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우리는 남들보다 뒤떨어지구 남보다 못살았기때문에 남들처럼 천천히 할수 없소. 그렇게 해서는 언제 가나 남들보다 뒤떨어지오. 우리는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걸고 남들이 하루에 집 한채를 지을 때 열채, 백채를 지어야 하오. 우리는 남의 기준을 가지고 일할수 없소. 남들이 열시간 하는 일을 우리는 한시간, 반시간에 해야 하오. 다른 나라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되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 평양시간으로 살고 평양시간에 준해서 계산해야 하오!》

우리 수령님의 심원한 창조의 세계가 비껴있는 《평양시간》, 이는 단순히 시간의 개념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맥맥히 흐르고 있으며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평양시간》! 그것은 곧 세기를 주름잡는 불세출의 위인의 손길아래 태어난 주체조선의 새로운 속도에 대한 상징이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력사의 기적에 대한 표어이다.

작품에서는 수령님의 시간, 《평양시간》을 핵으로 하여 그것을 형상적으로 꽃피워냄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거대한 대고조의 힘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선을 기본으로 생활화폭을 펼쳐나가면서 《천리마속도-평양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성장하여가는 주인공 상철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형상을 높은 인간학적경지에서 훌륭히 창조하였다.

위훈이란 그 어떤 특별한 일터에 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속에 있음을 신념으로 간직한 청년건설자들과 설계일군들은 당의 의도대로만 조립식건설을 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밖에 다른것을 몰랐으며 반혁명분자들의 방해책동과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 건설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마침내 2만세대주택건설목표를 기어야 수행한다.

작품에서는 원칙적이고 대바른 상철이, 농민다운 순진성과 소박성으로 특징되는 수진이, 성미가 팔팔하고 불임성 좋은 월석이, 부드럽고 열정적인 오월이를 비롯한 제대군인들과 청년건설자들 그리고 오랜 설계가 문화련과 당위원장 탁준범 등 다양한 인물형상을 통하여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살며 일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숭고한 성격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혁명적》인 언사를 써가며 음흉한 술책과 간계를 꾸미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 꾀나봉과 관료주의자이며 탐위분자인 《살아갈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림도식 형상은 당과 외교를 하고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자들의 치욕적인 운명을 시사해주는것으로 하여 참으로 교훈적이다.

소설은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참신하고 전형적인 세부묘사로 하여 더욱 인상깊다.

특히 독자들속에 널리 알려진 《알리는 말씀》세부는 다른 설명이 없이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적으로 진척되고있던 당시 시대상을 방불하게 보여주는 매혹적인 형상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이처럼 우리 나라가 천리마대고조로 들끓던 역사적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평양건설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변과 기적을

감명깊게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소설은 조립식주택건설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 않았다. 무한한 조국애, 향토애, 인간애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와 령도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었으며 대동강호안공사, 해주-하성간철도건설과 대성산유원지 건설 등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천리마의 기적과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였다. 바로 여기에 것처럼 긍지높이 울리는 《평양시간》에 체현되어있는 심오한 형상적의미가 있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높이 평가하여주신 소설의 웅심깊은 형상세계, 미의세계가 있다.

오늘도 《평양시간》은 사람들에게 이 땅위에 성스러운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된다고 심장의 종소리를 울려준다.

그렇다. 세기를 움직이고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하는 태양의 시간 《평양시간》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수령님의 시간, 내 나라의 시간으로 흐를것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평양시간》의 초침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모든것을 수령님의 식대로, 주체의 방식으로 해나가시며 영원한 태양시간, 조선시간으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력사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데 형상의 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실력가형의 작가로서의 삶을 빛내일수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속에 남는 시대의 명작을 훌륭히 창작해낼수 있다.

평론

당성단련을 위한 교과서-장편소설 《녀당원》

김려숙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높이 평가하신 작품들가운데는 그이께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단련을 위한 교과서라고 하신 장편소설 《녀당원》(김보행)도 있다.

장편소설 《녀당원》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신심과 락관에 넘친 말씀을 올린 락원의 한 녀당원을 원형으로 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로록 강한 인상을 남긴 원형인물을 훌륭히 형상한 소설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작가와 작품에 줄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었다. 소설이면 이 소설보다, 작가라면 이 소설작가보다 더 높은 영예와 크나큰 행복을 받아안은 작가와 소설이 또 어데 있겠는가고.

참으로 내용이 좋고 감흥이 크다.

조형작업반장인 주인공 주옹녀를 비롯하여 세 포위원장 강태수, 직공장 황순동, 당위원장 김형운, 직장장 리성찬, 장사군의 딸로서 로동계급대렬에 들어선 다정다감한 처녀 송오금, 그의 아버지 송석규, 제대군인 정기남, 옹녀의 동무 차혜선 등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생동하게 안겨오는가 하면 전쟁을 치르는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세계와

조형작업장이 방불히 떠오른다.

우리 구태여 여기서 소설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미 많은 평론들도 나갔다. 그러면 우리 어찌하여 또다시 오늘 장편소설 《너당원》을 펼치며 소설의 세계에 파묻히게 되는 것인가.

주체79(1990)년만 해도 2월 19일, 2월 28일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자주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며 이 소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일찌기 지니신 문학관이다.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빛나는 력사는 문학과 뿔뿔이 뿔수 없는 관계에 있다.

높은 교양적가치, 당성단련의 교과서, 바로 이것은 장편소설 《너당원》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평가이다.

장편소설 《너당원》이 당성단련을 위한 교과서로 될 수 있는것은 주인공 주용녀를 당성이 강한 당원의 전형으로 훌륭히 형상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도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몹매 작고 가냘프며 눈물이 헤프고 마음이 어린 녀성, 신임당원에 불과한 그가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 녀자라고하며 애원에 가까운 눈길로 당위원장을 바라보던 용녀, 이것이 처음 대하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이다. 그리고보면 그는 외모로 보나 정치적 준비정도로 보나 지식정도로 보나 모든 면에서 남보다 뛰여난것이 없는 이 나라의 평범하고 소박한 녀성이며 조선로동당원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그토록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것인가.

독자들은 그 연약한 녀성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반동분자들의 준동을 물리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전투적과제인 수류탄을 만들어 전쟁승리에 기여하는 영웅적투쟁모습을 통하여 외유내강한 고결한 조선녀성, 당성의 체현자, 참된 조선로동당원의 형상을 보게 된다.

우리 수령님께 소설의 주인공 주용녀가 올리는 소박한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울리며 흥벽을 세차게 두드린다.

《장군님,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해방후에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간것도

우리는 장군님 말씀대로 복구해가지고 잘살았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놈들이 파괴한 용선로랑 복구해보니 그리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습

니다. 복구건설은 우리가 할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지없이 소박한 이 말속에는 수령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받드는 한 너당원의 순결한 량심이 한껏 어려있다.

소설은 주인공 주용녀가 위대한 수령님께 진정 어린 말씀을 올릴수 있는 생활적바탕, 성격적바탕을 진지하게 파고들어 형상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인민이,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력이야말로 전쟁을 이길수 있게 한 근본비결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천명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머슴살이로, 품팔이로 뼈아픈 생활고초를 겪던 용녀는 해방을 맞아 비로소 존엄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고저 남편은 전선으로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는 그 철석의 신념은 그의 이러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더욱 굳세여졌다.

반동놈들이 주물오작을 조작하고 용선로를 파괴해버린 최악의 조건에서도 용녀는 주저없이 수천리길을 달려 내화벽돌을 구해다 용선로를 살려냈으며 끝내 수류탄을 만들어내야말았다. 바로 이것은 그의 심장속에 가득찬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성과 자력쟁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낳은 주되는 성격적특질이다.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에 입당보증인이며 그를 언제나 손잡아 이끌어주던 세로위원장의 희생과 전선에 나간 남편의 전사, 반동놈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딸애의 참상과 같은 덧쌓이는 불행과 슬픔, 인간으로서 당하게 되는 커다란 상실의 아픔과 정신적고통을 극적으로 심화시키면서 그의 성격적바탕에 흐르는 고귀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드러내고있다.

극적인 정황속에서의 성격탐구, 시련과 난관의 중첩과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세계의 극적인 대조는 이 소설에서 주되는 성격창조수법으로 된다.

언제한번 용녀를 작업반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갓 녀성으로만 간주해온 직장장 리성찬의 시점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할수 있게 한것도 효과적인 수법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전사이며 당원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신념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일깨워주는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는 주인공이 당원의 자각을 가지고 살며 당성이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수 있게 하는 정신적기둥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주용녀, 가장 어려운 전쟁시기 전선에서 제일 긴요하게 제기되었던 수류탄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조건타발도 없이 무조건 받아물고 해제진 조선로동당원,

조선로동계급의 성격적특징이 마음에 들었고 거기서 당성의 기본징표를 보시였다.

하기에 이 한편의 소설을 통하여 수백수천만의 우리 인민을 주용녀와 같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인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강한 인간으로 키우실 의지를 담아 간곡한 교시를 주신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겨 볼수록 주용녀는 1980년대에도 그러했고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거쳐 오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환의 길에 들어선 우리모두에게 변함없는 생활의 길동무, 참된 교양자임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모두는 오늘의 주용녀가 되어야 한다.

1950년대에 수령님 계시는 한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잘살게 된다고 한 주용녀의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장군님따라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은 영광스럽고 보람찬 길이면서도 멀기도 하고 험난하고 간고한 길이기도 하다. 그 어떤 풍파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지략, 배짱으로 이기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장편소설 《너당원》과 같이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써내어 부강조국건설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미나리밭

남필현

큰 길가
우리 농장 탁아소앞에
서너평 되나마나
푸르른 미나리밭
우리 수령님
오래도록 자리 못뜨시는 미나리밭

아침해살이
다정히 빛을 뿌리고
아지치는 논벼작황에
애들의 건강에 좋은
미나리작황이 대견해
그리도 기쁘시여
웃음속에 거니시는 미나리밭

새벽비에 머리감은 파란 잎
미나리밭 뚝가에서
보육원의 정다운 노래소리에
오래오래
시간 가는줄 모르시고

무지개빛 해빛막이 지붕아래
뛰노는 아이들이 고와
그 넓은 한품에 안아도주시며

언제까지라도 계시련듯
현지도의 길
먼먼 산촌길
아이들만을 위해 오신듯

싱싱한 미나리
손에 꺾어드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울이는
보육원의 정성도 헤아리시며

미나리!
미나리가 좋다고
아이들을 위해
우유도 과일도 떨구지 말자고
사랑에 사랑을 거듭 베푸시며
오래도록 못뜨시는
어랑의 미나리밭

한여름의 상쾌한 기운에
푸르려 싱싱한 미나리밭
미래를 위해 바치시는
수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해빛이
영원히 감싸안은 사랑의 미나리밭이여

《조선문학》과 나

장형준

해방직후 문학잡지가 창간된것은 주체문학건설 사업에서 특기할 사변이었다. 당시 작가들은 해방의 감격과 새 조국 건설의 열정을 안고 문학작품창작을 활발히 벌리었으며 이에 따라 문학잡지와 단행본을 출판할데 대한 요구가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문학잡지와 문예출판사를 내오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리하여 잡지 《조선문학》의 전신인 《문화전선》이 주체35(1946)년 7월 25일에 창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를 선참으로 받아보시고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의 실정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출판사가 나오고 그의 첫 출판물로 《문화전선》이 나오게 된것은 새 조선의 민족문화건설에서 또하나의 전진으로 된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국사업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를 친히 보아주시고 내용이 괜찮게 된것 같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문화전선》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며 새 민주조선건설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정력적인 투쟁과 승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을 많이 내보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훌륭한 작품들을 편집하고 민족문화유산 계승사업과 다른 나라의 진보적인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며 편집사업에 근로대중을 적극 인입시키며 잡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잡지를 독자들의 기대와 흥미에 맞게 매달 정기적으로 출판하며 출판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고가 텅 비어있던 어려운 형편에서도 많은 자금을 출판사에 보내주시는 커다란 은정을 베푸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문화전선》은 문학잡지의 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고 《조선문학》으로 되여 계속 발간되었으며 오늘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잡지 《조선문학》은 전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를 받으며 발전일로를 걸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선문학》의 편집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문학》 주체48(1959)년 4호에 회곡 《불사조》를 비롯하여 혁명전통주체의 단편소설들과 시작품들이 많이 편집되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창작, 특히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전형,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를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창작사업과 편집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많은 시와 가사, 소설과 회곡, 영화문학과 평론들을 지도하여주시고 《조선문학》과 단행본에 내도록 배려하여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조선문학》은 지난 50여년동안 620여호의 발간을 기록하여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잡지 《조선문학》의 열렬한 애독자이며 필자의 한사람이기도 한 나는 그 창간일을 맞으며 잡지의 빛나는 공적을 감회깊이 생각하게 된다. 620여호 《조선문학》의 그 한책한책에는 얼마나 많은 시와 소설, 회곡과 평론, 수필과 단상들이 발표되었는가. 한호에 평균 시, 가사가 10편씩 실렸다고 쳐도 6,200이편이며 단편소설이 매호에 3편이라면 1,860여편이며 평론이 한호에 2편 발표되었다고 하면 1,240여편이다. 이 엄청난 수자들은 《조선문학》이 얼마나 거대한 문학적재보인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하여준다.

그러나 그 존재가치는 단지 량적수자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조선문학》은 주체문학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문학잡지로서 거기에 발표된 전투적이며 호소적인 다양한 형태와 모든 작품들은 주체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그 발전모습을 뚜렷이 과시하여주고있다.

《조선문학》에 나온 시대성과 문학성이 높은 소설작품들만 보아도 주체문학의 면모와 그 발전로정을 충분히 가늠할수 있다.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는 단편소설 《개벽》, 《로동일가》, 《탄맥》 등이,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단편소설 《구대원과 신대원》, 《첫눈》, 중편소설 《행복》 등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는 단편소설 《빛나는 전망》, 중편소

설 《첫 수확》,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등이, 그후 단편소설 《길동무들》, 《백일홍》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이후에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인 《맑은 아침》, 《눈석이》, 《철의 력사》, 《큰 심장》, 《력사의 자취》, 《고요》, 《불멸의 영상》, 《사냥의 아침》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조선문학》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알찬 열매를 가꾸어온 풍요한 터전이였음을 잘 말하여준다.

해방후에 활동한 혁명의 모든 세대들과 오늘의 새 세대들도 다 《조선문학》을 애독하며 그에서 혁명적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다.

참으로 《조선문학》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심혼이 깃든 작품을 발표하는 중요한 무대였을뿐아니라 문학적재능과 기량을 련마하는 련방장이였으며 재능있는 작가들을 키워내는 《문학대학》이였다. 《조선문학》은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인민에 대한 힘있는 교양수단이고 작가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는 활무대이다.

우리 근로자들가운데서 과연 누가 《조선문학》에서 혁명적랑심을 받아안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우리 작가들중 그 누가 《조선문학》의 덕을 입지 않은 작가가 있겠는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작가들을 사상미학적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한 《조선문학》의 공적과 역할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커질것이다.

《조선문학》이 결어온 빛나는 로정을 더듬으며 생각되는것은 그 성과와 발전의 기본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잡지 《조선문학》에 있어서도 유일한 생명선이다.

문학잡지의 편집사업은 결코 쉽고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잡지에 각이한 준비정도와 개성을 가진 많은 작가의 작품을 실어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편집사업에는 정확한 지침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조선문학》의 편집기준과 지침, 그 지도사상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자주시대 문학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이다. 《조선문학》은 자기의 지도사상, 자기의 편집기준에 철저히 립각하여 편집되었기때문에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작품에 지면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간혹 황색잡초의 싹이 교묘하게 위장되어 지면에 돌아나는 경우에도 당의 지도밀에 전투적인 평론을 통하여 제때에 뿌리채 뽑아버릴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문학》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투철하고 당의 유일사상이

꼭 들어찬 혁명적문학잡지의 본보기로, 개화만 발하는 주체문학의 풍요한 화원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조선문학》의 혁명적성격과 전투적역할은 당과 수령의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시대를 이끌고 인민을 령도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문학과 그 잡지가 시대정신의 구현자, 인민의 선도자로 되자면 마땅히 당과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적극 받아야 한다.

《조선문학》이 시대의 선도자, 인민의 교양자로서의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자기의 생명선으로 하고 당과 수령이 바라고 요구하는대로 편집사업이 진행되었기때문이었다. 여기에 《조선문학》의 편집성과와 사업경험이 보여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 있다.

해방후 우리 작가들은 모두 《조선문학》과 더불어 성장하고 그와 함께 전진하며 운명을 같이 하여왔다.

《조선문학》은 모든 작가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바와 같이 나에게 있어서도 말없는 문학의 스승이였다. 내가 《조선문학》의 전신인 《문화전선》을 받아본것은 홍남에서 민청사업을 하던 때였다.

당시 나는 어느 한 소설가를 통하여 《문화전선》창간호를 받아보았다. 장치 작가가 될 열망에 불타고있으면서도 문학적기초가 없던 나에게 있어서 《문화전선》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것과 같은것이였다.

《문화전선》창간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20개조정강과 함께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실었었다. 잡지를 읽으며 나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그 이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감정에 휩싸였다. 활자화된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구절구절을 소리내어 노래하며 백두산과 압록강, 만주광야에서 싸우신 전설적영웅의 거룩하신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모신 조선민족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느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민족은 더없이 행복하고 우리 조선은 영원무궁토록 룡성번영하리라는 확고한 신념이 가슴속 깊은곳에 바위와 같이 굳건히 자리잡는것이였다. 여기에서 나는 문학의 힘을 강렬히 느꼈다.

《문화전선》창간호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문예로선을 구현한 북조선예술훈련맹강령이 실려있었는데 이 강령을 통해서 나는 조선 문학과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

야 하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문화전선》 창간호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것은 리기영의 단편소설 《개벽》, 한설야의 단편소설 《탄핵론》, 리찬의 시 《승리의 기록》, 김사량의 희곡 《더빙이와 배뱅이》를 비롯한 문학작품들이었다. 잡지에서 특히 강한 인상을 받은것은 리기영의 평론 《창작방법상에 대한 기본적제문제》였다. 당시 나는 내가 장차 평론가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본 일이 없고 오직 소설가가 될것만을 꿈꾸고있었다. 그러나 잡지에 실린 시나 소설작품보다도 평론에 더 마음이 끌린것을 보면 그때에 벌써 평론가가 될 기질을 가지고있었는지도 모른다.

작가 리기영은 자기의 평론에서 이제부터 모든것은 인민을 주체로 하여 새 출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인민예술창조의 구호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예술가는 현실을 똑바로 볼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과학적세계관으로 무장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예술의 특성과 사상성을 정당하게 론술하였으며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주장하고 인민예술은 혁명적사실주의와 혁명적량만주의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지상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의 견지에서 작품을 평가하며 작가의 기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론은 제한성이 없지 않으나 창작방법문제를 비교적 옹계 전개한것이였다. 해방직후에 이러한 평론을 집필할수 있는것은 소설가 리기영이 《카프》의 선두에 서서 창작활동을 벌린 풍부한 경험과 일정한 문예학적태도가 있었는데가 중요하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로운 인민적문학예술건설사상을 옹계 체득하였기때문일것이다.

나는 《문화전선》과 그 후신인 《조선문학》을 문학교재로 삼고 한걸음한걸음 문학의 세계로 접근하여갔다. 그러나 내가 평론가가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작가동맹평론분과위원회에 배치되어 사업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기였다.

나는 《청년문학》(주체45(1956)년 4호)에 평론 《궁정적주인공의 형상화에 대하여》를 발표하는데 이어 《조선문학》(주체46(1957)년 7호)에 평론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빠프스》를 내고 그후 여러편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이 평론들에서 나는 평론가로서의 사색과 주장을 펼치려고 하였으나 그것들은 아직 선행리론의 교조적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조하고 미숙한것들이었다.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내가 주체문학의 본도에 확고히 들어설수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를 받아안은 1960년대 후반기, 특히 197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을 혁명발전과 주체문학건설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고 영화와 가극, 소설과 연극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며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를 창조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속에서는 수령형상 단편소설들이 활발히 창작되었으며 이 과정에 여러편의 성과작들이 나왔다.

주체문학발전의 이 도도한 흐름을 타고 나는 수령형상단편소설의 성과를 분석한 평론 《단편소설집 <혁명의 품>을 읽고》를 집필하여 《조선문학》에 발표하였다. 《조선문학》지상에 전제된 이 평론은 그 미학리론적 심도가 낮고 문제성이 깊지 못한것이기는 하였으나 수령형상창조의 성과와 경험을 종합일반화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주체문학의 발전면모를 보여준 글로서 추억에 남아있혀지지 않는다.

나의 무딘 재능에 슬기를 주고 힘을 안겨준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였다. 작가나 평론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세계를 옳바로 인식하고 인간의 운명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사상, 위대한 철학, 위대한 미학을 터득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모두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그 독창적인 주체철학과 미학을 남먼저 학습하고 체득하는 크나큰 행복을 지니였다. 이것은 동서고금, 세계의 어느 나라 작가나 평론가도 누려볼수 없는 최고최상의 특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제사상의 본질과 진수를 가르쳐주시였을뿐 아니라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우리 나라실정과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되는 우리 식 평론의 특징과 기본임무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식 평론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평론가들이 우리 식 평론을 성과적으로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평론사업에서도 근본적전환이 일어났다. 이러한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가 쓴 미숙한 평론까지도 여러편 보아주시고 《로동신문》과 《근로자》에 발표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하고 해설선전하는것은 문학을 선도하는데서 평론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나는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론증하고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문예업적을 일반화한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창작방법, 최

고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와 같은 론설들을 집필하여 《조선문학》에 내게 되었다.

세상에는 정도자가 많지만 우리 장군님과 같이 위대한 사상과 천재적예지를 지니고 문학예술과 평론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신 탁월하고 비범한 정도자는 이 세상에 더는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정도, 그 믿음과 사랑에 고무되어 나는 70고개를 넘어선 최근 5년동안에 《조선문학》에만도 론설 《혁명적문학작품창작으로 우리 당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것은 작가들의 임무》, 《우리 문학을 주체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신 어버이수령님의 정도업적의 위대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의의》와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 서정서사시 《해돋이》, 문학작품집 《영원한 태양》,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 등에 대한 작품평을 련이어 써낼수 있었다.

이 론설들과 평론들이 주체문학 건설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고임돌이 될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정도의 결과이다.

나는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미학, 감정, 정서를 깊이 체득하고 그이께서 요구하고 바라시는대로 창작하는 여기에 모든 창작적성과가 달려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작가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미학, 감정, 정서를 작품에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당이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걸작을 더 많이 써냄으로써 잡지 《조선문학》의 지면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아가자고 호소하고싶다.

갈 망

최승철

돌썸에도 열매를 익혀들고
해를 반기는 저 풀을 보아라

우리 장군님 비오나 눈이 오나
험한 길 헤치며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에게는 추켜들 열매가 있는가
꿈속에서도 가슴 쥐고 생각한다
의리를 알거든 위훈으로 보답하라

난관은 차라리 비약의 도약대
한초한초를 피갈이 아끼며
운명을 걸고 투쟁하는 나날
폭풍우와 세월에도 끄떡없이 견딜
으뜸가는 선물을 기어이 창조하리

계급의 영예는 혁신에 있고
말중의 참말은 창조물이거니
소원은 오직 하나

구슬처럼 정교하고 준마같이 위력한
충성의 창조물을 장군님께 올리는것

보라, 열백번 다듬은 나의 창조물
한점의 티도 없으리
량심과 땀으로 아글타글 빛은것을
그이앞에 드리면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랴

아, 장군님 눈부신 웃음으로
살뜰히 쓸어만지시며
꿈결같이 반겨주실 영원한 순간이어
그이 품에 나의 생 거둬나 꽃이 피고
행복의 눈물속에 노래가 터질 순간이어

너를 위해, 오직 너를 알리고
심장은 터질듯 고동치노라!

7 월의 생각

한창우

먼 길

누구나 선뜻 발길 못 옮겨
생각깊이 서보는 만경대의 사립문가
이 문을 나서며 눈길을 들어
숨엄히 더듬어찾는 백두산으로 향한 길이어

한걸음 또 한걸음
수령님 한평생을 더듬어가는
뜨거운 마음 가닿는곳
광복의 환희로 추녀높이 들린 개선문이어

만경대에서 개선문
지척의 그 길을
자욱자욱 침략자의 총칼을
걸음걸음 혈전의 언덕을 넘으시며
생눈을 움켜 끼니처럼 드시며

결사전의 불속에서 솟구치시며
쓰러지면서도 피흘리면서도 놓지 않으신
붉은기의 빛으로 조선의 영원한 노을을
이끌어오신 길

오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 땅 끝에서 끝까지인가
인민의 세월로 해가 뜨고 지는 길
한생의 귀중한 시절 다 바쳐 이어놓으신 수령님

오 만경대에서 개선문까지
지척의 이 길을 멀리 세월을 넘어
청춘의 시작에서 청춘의 끝까지 걸어
조선의 세월에 피줄같이 이어온 길이어

전승의 날에

전화의 그날
나의 전우들 다 만날수 있는곳
오늘도 그날처럼
위훈의 고지에 이 마음 오를수 있는
전승기념탑 마당에 서니

추억도 뜨겁구나
포화의 언덕을 넘고 넘어
오늘도 공화국기 높이 들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문득 더듬어찾는 포좌지
전화의 날 내 섰던 그 좌지

고지에 직사포를 끌어올려
미제를 함정끝에 처박던
그날의 열정이 샘솟는구나
수안보의 그 전호가에서
수령님을 뵈웁던 그 행복에 가슴부푸누나

그 열정
그 행복에 가슴 설레며
높이 들린 하늘가를 더듬어보니

전승의 그날 영광의 높은 단상에서
위대한 수령님 손저어 답례하시고
내 쏘고쏘던 그날의 축포도 어려오누나

수령님 그으신
작전도의 붉은 화살표따라
멸적의 포성을 울리던 나의 포가
승리자의 환호성이 진감하던
저 하늘 가득 피여울렸던 전승의 축포

그 축포를 생각하며
군모아래 머리는 회여가도
그날의 젊음이 용솟아
또다시 서둘러지는 마음이어
신념의 맹세로 높뛰는 심장의 박동이 여

아 빛나는 원수복 입으시고
그날의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
통일광장 경축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내 다시 쏘고쏘리라
통일의 축포를!

오늘도 그날처럼

노을이 필 무렵이면
서둘러 달려가는곳
이제는 습관처럼
이른새벽 제일먼저 달려가는곳

오늘엔 오실가
향기 그윽한 꽃송이로 다발도 엮어 안고
마음 앞서 달려가는곳
수령님 모셨던 그날의 발머리

아지치는 벼포기도 세여보시며
벼꽃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벼꽃이 필 때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아버지수령님

다시 오시겠다고
벼꽃이 필 때 다시 오시겠다고

수령님 하신 그 약속 못잊어
벼꽃이 피면 더욱더 그리운 수령님 생각

달려와 달려와 서면
그날의 그 말씀 다시금 울려오고
벼꽃이 피는 저 별 한끝에서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걸어오시는듯

날마다 날마다 여기 와 서면
아버이의 그 영상 다시 뵈옵고
우리 함께 농사도 잘 지어보자시던
그 말씀도 다시금 울려와

우리의 마음속에 수령님 계시고
오늘도 그날처럼 약속도 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사를 잘 지을 마음 더더욱 불타올라라

조선의 7월

꽃도 이날을 위해 다 피운듯
밤도 잇고 잠도 잇고
정히 고르고풀라 안고
이른아침 서둘러나선 걸음들과 함께
나도 만수대로 오릅니다

수령님을 뵈오려 간다고
내 나라 그 어디서나
노을을 밟으며 새벽길에 나섭니다
지구의 한끝 그 어디서나
태양의 성지가 있는 평양으로 찾아옵니다

하늘도 무너지듯 눈물의 비를 뿌렸고
지구도 흔들리며 곡성에 깨진듯하던
다섯해전 7월의 그 아픔
아직도 가슴가슴에 남아있으련만
그날에조차 믿지 않은 마음들이
이제는 정녕 믿지 않은 마음들이
수령님을 뵈오려 갑니다

이 땅 그 어디서나
인민은 예대로 수령님을 생각합니다
잔디 푸른 전호가, 군항의 갑판에서도
창성의 발머리, 쇠물끓는 전기로앞에서도
7월에 오셨던 수령님 그 영상

그날의 말씀도 다시금 새겨보며
그날에 다진 맹세도 되새겨봅시다

수령님 동상앞에 태양상앞에
꽃같이 선 아이들도 눈물이 아니보입니다
예대로 보내주시는 포도며 도마도
한가슴 받아안던 두손을 모아잡고
큰절을 올리며 우러릅니다
안겼던 그날의 수령님 영상을

태양의 영원함을 믿듯이
수령님의 영생을 확신한 인민이기에
장군님 펼치시는 오늘의 하루하루
어제와 다름없이 다름없이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님은 계십니다

아 7월이여
사무치는 그리움에 그리움에
수령님을 찾는 조선의 7월이여
세월이 흐르고 또다시 흘러도
장군님 높이 모신 인민의 마음속에
해빛처럼 웃으시며 수령님은 오시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총 대

달리는 말발굽소리
번개치는 창칼의 부딪침
화살이 비발치던 력사의 갈피갈피
빼앗긴 땅과 짓밟힌 존엄
노예의 설움은 그 얼마였더나

세계를 둘러보면
억압의 철쇄를 마스고
한때는 강성을 자랑하였건만
총대가 흔들리고
총대를 놓은탓에
수난의 멍에를 다시 쓴 나라는
그 몇몇이더나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치게 절감하는 하나의 진리
총이 있어
총대가 든든해
떳떳이 가슴펴고 내 말하노니

한자루 또 한자루
우리 수령님 쥐여주신 총대
인민의 손에 한번 쥐여 놓지 않아
존엄을 지키고
운명을 담보하는 내 나라의 총대

총대로 찾은 조국이

총대로 지키는 행복이
총대로 담보하는 번영이
오 우리 인민이 지닌 남다른 긍지가
날마다 심장에 새겨주는것 있나니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이여
더더욱 사무치는 고마움이여
현세기의 첫기슭
빼앗긴 땅에서 한번 추켜드시여
내 나라의 기둥처럼 총대를 든든히 세워주신
수령님의 그 업적이여

오만한 제국주의의 총포성이
세계의 곳곳에서 울려오고
붉은기 힘차게 나뭇기는 내 조국의 성새앞에
기회만 엿보며 노리고있는 때

백두의 폭풍을 재워안고
빨찌산장군의 숨결로 장약한
우리 장군님 높이 드신
무적의 총대가 있어
배짱도 만만해 신심도 드높아

총!
내 나라의 총대여!
수령님 손길에서 시작된
내 나라의 영원한 승리여!

가사

구월산 폭포

박정애

필필이 쏟아지는 구월산 폭포
드리우니 비단이요 흐르니 은하런가
해빛안고 빛나는 절승경치 새 모습
장군님 그 은정 노래하는 폭포라오

물보라 날리는 구월산 폭포
멀리 보니 무지개요 다가서니 구슬인가

인민의 기쁨속에 등산길 열어주신
장군님 그 은정 노래하는 폭포라오

소리치며 내리는 구월산 폭포
떠나가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네
명승의 내 나라 온 세상에 빛내시는
장군님 그 은정 노래하는 폭포라오

사랑의 메아리

정영종

전쟁이 끝난 이듬해 여름 대학입학시험이 한창인 때였다. 어느날 나는 시험관으로 수험생들앞에 나섰다. 그들속에서 한팔을 잃은 제대군관처녀를 띠어보았다. 물날은 군복앞가슴에 세계의 락장을 단 처녀였다. 병상에서 갓 일어났는지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그것은 처녀를 좀 엄해보이게 했다.

처녀는 시험도중 한번도 고개를 들거나 결눈파는 일없이 시험지에만 주의를 집중하였고 그것을 바칠 때에도 다소곳한 자세를 허물지 않았다.

어떤 경건한 생각에 시험관이란 직분을 떠나 처녀가 훌륭한 답을 써냈으면 하고 마음을 조이고있던 나는 교무실로 돌아오자 곧 그 처녀의 시험지부터 펼쳤다.

《<수험번호 27-최신혜>!...》

나는 초조감을 누르며 급히 시험지를 훑어내려갔다. 그러다 부지중 신음소리를 냈다. 아쉽게도 한문제의 답이 틀렸던것이다.

나는 오래동안 책상우에 연필방아를 찼었다. 눈앞으로 후줄근히 드리워있던 처녀의 빈 군복소매가 자꾸 얼른거렸다. 그리고 해쓱한 얼굴이며 앞가슴의 락장들... 대학이 이런 처녀에게만은 시험이라는 빗장을 열것을 요구하지 않을수 있다면!...

이튿날 점심참에 나는 처녀를 불렀다. 수험생들로 조직한 배구경기의 열띤 소음이 숲사이로 간간이 흘러들고 메세들이 머리우에서 즐겁게 조잘거리는 대학구내의 휴식장이다.

《앉으시오. 최신혜동무.》

례의 그 다소곳한 자세로 인사하는 처녀에게 나는 서둘러 열자리를 권하였다. 비로소 나는 처녀가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매에 펴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는것을 알았다. 류달리 술진 눈섭에 코날까지 날카로와 어딘가 맵짠 맛은 있었으나 그자체가 제나름의 독특한 매력이 아니겠는가.

(다행이군. 다행한 일이야!...)

이미 처녀에게 줄 좋은 《선물》을 준비해둔터여서 나는 이중적인 기쁨과 안도감을 느끼며 현현하게 입을 열었다.

《시험공부를 꽤잘게 했더구만. 외국어가 좀 약하긴 하지만... 전상자병원에서 상처와 싸우면서 그만큼 공부하기가 어디 쉽소. 그래서 대학에선 동무에게 추가시험기회를 주기로 토의했소. 잘 준비해보오.》

처녀는 술진 눈섭을 천천히 미간에 모아붙이더니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나보았다.

《그건 수험생들모두에게 해당되는것입니까?》

《물론... 그렇진 않소.》

《그렇다면 전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놀랐다. 이런 경우 흔히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 입학만 시켜주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할 결심이다 하는 등의 애원과 호소가 뒤따르는것이 상례였었다. 당혹감으로 하여 나는 말을 더듬었다.

《혹시... 그 추가시험이 대학입학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리라는걸... 동문 그대 모르오?》

처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기실 물음자체가 우스운것이였다. 나는 마음을 수습하려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류다른 대조였다. 저 운동장의 많은 수험생들이 은연중 부러워할 행운을 유독 이 처녀만은 마다하고있는것이다.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소만...》 한참 후에 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어떤 동정 비슷한걸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잘못이요! 그 락장만으로도 동문 이 모든걸 요구할 권리가 있소.》

《그래서 더구나 싫습니다!》

저으기 매몰스러운 어조였다. 나는 서운하였고 또 민망스럽기도 했다.

《동문 모진 녀성이군.》

《선생님도...썩 좋은분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나는 처녀의 입귀에 피곳 미소가 떠오르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점차 엷은 홍조가 되어 온 얼굴로 번져지기 시작했다. 그로 하여 무척 엄해보이던 처녀는 홀연 마음의 구김살이란 전혀 없는 애되고 천진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내가 좀 놀라고 여러등절해있었던 모양이였다. 처녀는 마침내 활짝 웃으며 스스럼없이 속삭였다.

《제 말이 노여우신게지요?》

《아니, 흥미있소. 내가 좋지 않다?!》

《그럼요. 선생님의 말씀은 결국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표창하는것과 같지 않습니까?》

《흠, 때론 그 잘못이라는데 이해되고 긍정되는 것일수도 있지.》

《어마, 어떤 경우에말입니까?》

《신혜동무, 동문 전상자병원에서 상처와 싸우는 고통을 겪어야 했소.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지. 그대 이런 남다른 사정을 여느 수험생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겠소?》

그리도 기겁던 처녀의 미소가 서서히 사그라져 버렸다. 처녀는 한동안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다가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는데 나에게게는 그의 눈에 이름할수 없는 슬픔이 가득 고인것처럼 여겨

졌다.

《그러니… 절 변명해주시는군요.》 드디어 처녀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때 저도 잘못을 저지르고는 곧잘 그런 리해를 바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고보니… 자기 변명처럼 무서운것 없더군요. 그걸 깨닫게 해준 한 동무가 있었습니다.》

마감말은 본의아니게 튀어나온듯 처녀는 이마를 찌프렸다. 그러나 처녀에 대하여 이미 각별한 호기심을 품게 된 나로서는 그것을 놓치고싶지 않았다.

《비밀이 아니라면… 그 <동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소?》

나는 곧 후회하였다. 흘깃 나를 치며보는 처녀의 눈에서 질책 비슷한 빛을 본 것이었다.

(렘치없이 굴었군. 처녀들이 자기 심장파만 터놓을 그런 사생활이겠는데…)

《이거… 안됐소. 내가 주책없이 욕심을 부렸나 보오.》

얼굴을 붉히며 사과하는 나를 보기가 딱했던지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다. 거북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처녀가 머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그려져있었다.

《이건 제 혼자만 기억해두고싶었는데…》 나직한 한숨끝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 이야기해드려야 할가봅니다. 절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선생님을 대하니 마음이 물러졌는지…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허물하지 않으시겠다면…》

이렇게 되어 나는 한 제대군관처녀의 추억속을 함께 더듬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전해에 최신헌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오래동안 정들었던 군도서관을 떠나 어느 자그마한 양어장으로 옮겨앉았다. 도서관을 즐겨 찾던 많은 양어공들이 즉시 반가운 미소속에 그를 둘러쌌다. 그러나 그 웃음속에는 의혹이 더 짙었다. 그리고 교상하게 여겨지는 직업을 무엇때문에 버렸는가. 혹시 무슨 부정한 행동 탓은 아닌지?…

신헌는 대뜸 그것을 감추었다. 다감한 처녀들이 흔히 그러듯 신헌도 매일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다.

《…나는 내 생활을 새롭게 꾸며보려고 자진해왔다. 그래 부지런히 일하면서 열심히 배우고있다. 오늘도 반장아바이는 칭찬이 여간 아니었다.

<분바른 녀자들이 담근 장맛이 쓰다는건 다 봉건이야. 신헌를 보지. 요즘 새끼고기못안의 물고기들이 친엄마를 만났다고 춤을 추는걸.>

그런데는 왜 이리 쓸쓸할가. 사람들이 모두 곁을 주지 않으려는데 여겨지는건 또 무엇때문이고? 혹시 반장아바이의 그 <분바른 녀자>라는 표

현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가?…》

신헌는 외로왔고 나날이 우울해져갔다.

하루는 반장이 그를 찾아왔다. 반장은 양어못둘레의 수양버들잎새를 푹푹 뜯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네 웃음이 아주 좋더니… 시큰둥한녀석들의 입담에 귀가 커선 안되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용기두 있는 법이야.》

신헌는 불쑥 설음같은것이 치밀었다.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독자들앞에서 그리도 티없이 지어 보이곤했던, 하여 애초에 타고난 표정의 한 부분처럼 되어버렸던 그 미소를 그는 지금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것이다. 무엇때문에?

《그건 그렇구.》 하고 반장이 인차 말머리를 돌렸다. 《네게 좋은 일이 생겼다. 오늘 오후부터 연구사선생 조수로 일하도록 해라.》

《?!…》

《가보면 다 안다. 기본두 전환할겸 기술두 배울겸… 거 잘 생긴 총각이더라.》

반장은 공연한 소리를 덧붙였다는것을 깨닫고 혀를 쫓았다. 다소곳하고있던 신헌가 술진 눈섭을 미간에 모아붙이며 핵 고개를 든 것이었다.

《전 그런 일 안하겠어요.》

《애, 신헌야.…》

《전 여기 처녀들과도 미처 친하지 못했어요.》

《글쎄 그렇게 아니라두. 이젠 내 지시가 아니라 연구사선생 요구야.》

《그가… 절 어떻게 알아요?》

비로소 반장은 마음이 놓인듯 들성들성한 이발을 드러내며 소리없이 웃었다.

《그 사람이 오전한것을 돌아보면서 골랐다니. 뭐 제가 하는 실험은 섬세하구 까다로운게 돼와서 손이 껌싸구 눈썰미가 있구 머리두 좋은 녀자야 한다나. 그래 네가 뽑혔지.》

그제야 신헌는 아까 웬 껌두룩한 사내가 새끼고기못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기억이 났다. 그때에는 그저 지나가던 길손이 호기심때문에 물고기를 구경하겠거니 했었다.

더 뽕족한 말마디를 고르던 신헌는 마지막순간에 생각을 고쳐먹었다.

《좋아요. 만나보지요!》

신헌는 오연한 걸음으로 연구사가 들었다는 반장사무실로 갔다. 스스로 경망스럽다고 자신을 질책하면서도 자기가 곱게 생겼다는 의식만은 아무리해도 버릴수 없는 그였다. 보나마나 자기를 《고른》 데는 그런 리유가 다분히 작용했을것이니… 어디 그 맛을 보라지!

사무실은 비어있었다. 낮선 사내가 든 방에 허덕 들어갈수도 없어 한동안 밖에서 서성거리던 신헌는 제깎에 화가 나서 벌컥 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문설주에 딱 굳어졌다. 책상위에 놓인 대학생모자가 첫눈에 띄인 것이었다. 그러다 열리진 트렁크며 무독히 쌓인 도서들과 잡지뭉치, 각

중 유리병 등속을 일별하고는 픽 코웃음을 쳤다.

(뭐 그러고도 《연구사선생》?!...)

책상에서 무슨 편지같은 종이장을 발견한것은 그 다음이었다. 거기에는 옆으로 자빠들한 글자들이 큼직큼직 써여있었다.

《조수동무에게(지시 1호)

도서관에 있었다니 <토질병의 력사적고찰>이란 논문집을 알겠구만요. 그것을 빌려올것. 나는 현지로 나감. 내 이름은 강문구. 평양의학대학 학생, 동무 이름은 들었는데 그만 까먹었소. 저녁에 다시 통성합시다.》

신혜는 종이장에서 인차 눈을 땔수 없었다. 자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조수로 점찍은데 대해 특특히 먼박주려던 그였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는 한수 더 떠서 《지시 1호》까지 척 내려먹이고있다. 제절대로 하자면 바쁘더라도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난 찬성 안했어요!) 신혜는 거만할것이 분명한 상상속의 사내를 도전적으로 노려보며 속으로 쏘아붙였다. (상대방의 의사따위는 고려할것도 없다는식의 그런 모욕을 난 못참는 성미예요. 게다가 뭐 도서관에 가라고요?... 어림없어요!)

양어장에서 읍거리까지는 십리가량 되었다. 그날 퇴근길에 오른 신혜의 마음은 어수선했다. 삼복철이어서 해는 졌지만 날씨는 여전히 숨막히게 더웠다. 그것은 어떤 깨름한 생각, 자기가 한 사내의 기대를 너무 무시해버린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어울려 뇌리속에까지 끈적끈적 파고드는듯했다.

(애초에 그를 직접 만나 조수직을 정식 사결해야 했어. 도서관에 갈수 없는 사정도 리해시키고... 아니, 그는 리해 못할거야. 여기 사람들도 리해 못하는데 갓 온 그가 어떻게...)

신혜는 무거운 걸음을 터벌터벌 옮기었다. 상기하기만 해도 마음이 쓰라려나는, 하여 굳이 잊려고 애써오는 군도서관에서의 지난 생활...

그 시절 신혜는 대출원이라는 단순한 직무에 있었지만 몹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무식은 암흑이요 지식은 광명이다!》라는 표어가 어디에나 나붙어 사람들의 넋을 끊임없이 든장질하던 때였다. 학생들은 물론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으로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는 로동자들과 농민들까지도 새 나라를 건설하자면 배워야 한다면서 도서관이 터질듯 밀려들었다.

신혜는 독자들이 자기를 《광명여로의 안내자》로 여기며 사랑해주고 아끼는것이 기뻛고 그만쯤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도 컸다.

물론 달리 사랑을 주고싶어하는 축들도 없지는 않았다. 도서관을 담당한 군인민위원회 허지도원이 특히 그랬다. 등실하게 잘 생긴 얼굴에 여드름이 불깃불깃 내뿜은 그는 썩하면 《료해지도》차로 도서관에 나타나곤했는데 매번 신혜와의 담

화에 많은 시간을 바치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돌아갈때에는 늘 옆구리에 끼고다니는 밤빛가죽가방이 터지도록 책을 빌려가는것을 잊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벌써 군간부가 됐다고 부러워하는데 난 그제 오히려 괴롭구만요. 생활의 도약이란 지식의 부단한 축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한데 난 군사업에 시간도 정력도 다 뺏기우고있으니...어찌겠습니까. 밤잠을 줄일수밖에요.》

사람의 가치를 책과의 관계로 규정지을수 있다고 믿는 신혜였다. 신혜는 그가 돋보였고 저으기 마음 끌리기도 했다. 하여 그가 요구하는 책은 도서관에 없는것도 뛰어다니며 구해주곤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놀라운 독서속도에는 어리둥절해질 때가 많았다.

하루는 허지도원이 열흘밤은 꼬박 밝혀야 할 분량의 책을 나흘만에 전부 반납했다. 신혜는 경탄하여 그를 쳐다보다가 밤을 새운 피발같은것은 커녕 폭 쉬고난 흐뭇한 포만감으로 빛나는 두눈과 마주치자 불쑥 의혹이 들었다.

어떤 알곳은 충동이 신혜로 하여금 자그마한 계교를 꾸미도록 꼬드겼다. 그래서 그간 빌려가는 어느 한 책갈피에 꼭 읽어야만 의미가 통하는 글자 몇개가 가리워지게 종이조박을 슬쩍 붙여놓았다.

며칠이 지나 그 종이조박은 그대로 붙은채 되돌아왔다. 신혜는 쓰겁게 웃었다.

(내 그럴줄 알았어!)

그날밤 신혜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요즘 나는 허영에 들떠 산것 같다. 언젠가 허지도원이 하던 말이 기억난다.

<자연이란게 참 편애가 심하거든요. 최신히라는 한 녀성을 창조하면서 용모의 아름다움도 부족해서 지혜로움과 고운 마음씨까지 덧붙여놓았으니 말입니다. 누구나 반하지 않고는 못견디게요. 하하...>

그런데 난 어쨌는가. 성을 낼 대신 부끄러워했고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기까지 했다. 돌이켜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대출원을 하면서 언제 지혜를 발동해본적이 있다고 <지혜롭다>는 칭찬인가 말이다. 확실히 허지도원은 날 꼬이고있다. 아니, 내가 그앞에서 교태를 부려 환상적인 녀자로 보게 만들었다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은 독자들앞에서도 사랑을 구걸해온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날 신혜는 사고를 저질렀다. 새로 받은 도서들을 분류해넣는 기회에 서가의 먼지를 다 털려고 술한 책들을 안고 씨름한탓에 곤죽이 되었는데 동무들이 또 불러냈다. 영화구경을 가자는것이였다. 그날 신혜는 밤경비여서 잠을 좀 자야 했다. 하지만 새 영화의 유혹은 그의 자각을 놀려버리고말았다.

그날밤 깜박 잠들었던 신혜는 요란한 천둥소리에 펄쩍 깨어났다. 그러나 장마철의 첫 태풍이

이미 문빗장을 허술히 한 두개와 창문을 잡아ჭ히고 서가에 온통 물벼락을 들썩은 뒤였다.

소식을 듣고 허지도원이 달려왔다. 소중히 비치해두었던 귀한 책들을 적지 않게 손상시켰으므로 신혜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론의가 분분한 관장방의 출입문을 가슴 조이며 쳐다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제 내가 몹시 피곤했었다는것을 고려해서 제발 한번만 용서해주었으면, 한번만!

마침내 허지도원이 신혜를 따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은 뜻밖의 선물을 마련한듯한 흐뭇한 미소로 빛나고있었다.

《속을 태웠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 일을 무난히 처리하도록 강하게 주장했지요. 내놓고 말할건 못되지만 사실 우리 군도서관이야 신혜동무 얼굴때문에 흥성거린다고 할수 있지 않소.》 그는 좁혀 뜬 눈으로 신혜의 얼굴을 근질근질 더듬으며 슬쩍 덧붙였다. 《미란 많은것을 보상해주지요.》

신혜는 서서히 머리를 들었다. 스스로도 자기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셔지는게 알렸다. 이 여드름투성이 사내는 지금 수많은 독자들은 물론 그러도 비위를 맞춰주고싶은 당자인 신혜 자기 까지도 혹독하게 모욕했다는것을 알기나 할가?... 수치감과 분노로 숨이 킁 막힌 신혜는 토막토막 끊기는 목소리를 간신히 짜냈다.

《난... 싫습니다. 그따위 용서는 싫단 말예요. 변상하고 사직서를 낼테니... 그리 아세요!》

자기가 정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그로 하여 조수직을 거절할 도덕적권리마저 잃었다는 피로운 의식속에 신혜는 잠을 깼다. 출근길에 올라서도 이 생각은 집게처럼 뇌리를 짝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쩔 좋담?... 차라리 그를 만나지 말아야겠어. 그길밖엔 없어!)

그런데 일은 공교롭게 되었다. 읍거리를 얼마 벗어나지 않아 꽃밭이나 아는 한 운전사가 차를 세워주기에 적재함에 매달렸던 신혜는 딱 굳어졌다. 차우에 대학생모자를 꼭 눌러쓴 웬 청년이 너댓개의 큼직한 어항들을 불안고 엉겨주춤 앉아있었던것이다.

(그 대학생이다!)

어떤 룩감이 대뜸 신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마침이구만!》 청년이 반색하여 부르짖었다.

《날 좀 도와주시오. 이러다간 어항들을 다 깰것갈소. 두개만 말아주시오.》

어쩔수 없이 차에 오른 신혜는 눈을 내리칸채 어항들에 손을 뻗치다가 다시 굳어졌다. 어느 한 어항속에 들어있는 낫익은 표지의 책, 《토질병의 역사적고찰》이라는 뚜렷한 제목... 신혜는 눈을 짙 감아버렸다.

그때 대학생이 서글서글 말을 붙였다.

《치녀동문 어디까지 가오?》

신혜의 고개가 절로 휙 돌려졌다. 조수를 물색한다면서 바로 어제 자기를 찬찬히 뜯어보았다던 청년이 이제 와선 생면부지인듯 《어디까지 가오?》... 그런데 청년의 얼굴에는 신혜가 보게 되리라 여겼던 어떤 비양조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저 자기를 도와준 길동무에 대한 단순한 호감의 미소만이 떠돌고있을뿐이었다.

신혜는 그가 자기를 몰라본다는것을 깨닫자 순간일망정 딱하고 웅색한 처지를 모면할수 있다는 안도감에 숨이 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오연히 머리를 들었다. 거짓말을 수치스러운 행위로 여기는 그였다.

《어제... 조수로 뽑히게 바로 접니다.》

청년은 부리부리한 눈을 슴뻑거리며 한동안 신혜를 건너다보더니 기막힌듯 허허 웃었다.

《이런 실수라구야. 늘 이런다니까. 어제도 글세동무에게 줄 지시를 출입문에 붙여놓는다는게 잊어먹고 그냥 가지 않았겠소. 그러니 사람없는 빈방의걸 누가 꺼내보겠소. 결국 내 발만 온밤 고생했지요.》

이번에도 신혜는 속이 간지러운것을 그대로 참아넘길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경멸하게 될것이다.

《그것도 전 보았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옆얼굴에 청년의 파고드는듯한 시선이 따끔하게 느껴졌다. 의혹을 느꼈을가? 아니 분개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 청년의 입에서 흘러나온것은 실망한듯한 외마디 중얼거림이었다.

《흞, 그랬군.》

자동차는 양어장어귀에 그들을 부리고 가버렸다.

둘이 어항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을 때 신혜는 참지 못하고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왜 절 욕하지 않아요? 온밤 고생했다면서.》

《리해되니까요. 찬성할순 없지만.》

《그럼 조수를 바꾸는걸로 알아도 되겠지요?》

청년은 빙긋 웃었다. 사람좋은, 그러면서도 신혜에게는 저으기 알곳은 심사까지도 남겨있는듯이 여겨지는 미소였다.

《어제밤에말ियो.》 여전히 빙글거리며 청년이 말했다. 《이 책때문에 도서관 관장동지네 집에가지 갔됐는데 그가 말하길 모두 기대가 컸었으나 도망쳤다고 몹시 서운해하더구만. 이번까지 뿌리치면 동무를 두고 공적인 사업도 제 기분으로만 도해하는 너자라고 아주 딱지를 붙이지 않을까? 난 동무의 그 솔직성이 맘에 들긴 하지만... 말리진 않겠소.》

신혜는 어항을 랑손에 갈라들고 징징징징 멀어져가는 청년의 뒤모습을 아연하여 쳐다보았다. 키가 유별나게 큰, 그래서 거의 볼품없게까지 여겨지는 청년이었다. 그 《볼품없는 청년》이 지금

자기를 감히 비난하고 질책했다!

타는듯한 노여움에 신혜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말리지 않겠대구? 공적인 사업도 제 기본으로만 도해한다구?... 무슨 권리로 절 모욕하는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을수 없는 굴욕감을 맛보았는지 알거나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뭐 도망쳤대구요?!...)

출근하는 양어장직원들의 모습이 행길가에 얼씬거리기 시작했다. 신혜는 마음이 형클어진 자기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피하듯 자리를 뜨다가 어항이 발에 걸채이지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 조수를 할테다. 쫓겨났다는 소문을 내긴 싫어. 내가 도망치는 꼴로 그의 말이 옳았다는걸 증명해보이기도 싫고!)

신혜는 곧추 실험실로 들어서자 책상위에 어항을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자, 지시 2호는 뭐예요?》

신혜가 각오한 깨고소해하는 빛이 청년의 얼굴에는 없었다. 청년은 마치 순조롭게 진행되는 실험의 다음 공정에라도 넘어가듯 심상하게 말했다.

《이 책을 읽어보시오. 난 어제밤에 보았소!》

그것은 《토질병의 역사적고찰》이었다...

종일 신혜는 기분이 어수선하여 글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청년이 전해준, 모두들 기대가 컸었다는 관장의 말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무엇인가를 배반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저녁에 대학생-강문구는 해변에 얼굴이 빨강게 익어서 나타났다. 그는 흡시로 비슷한 목직한 배낭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흡족해서 두손을 썩썩 맞비비다가 방구석에 오도카니 앉아있는 신혜를 발견하자 눈이 둥그래졌다.

《날이 저물던데... 퇴근시간이 안됐소?》

그러다 신혜가 쥐고있는 책을 펴여보고 이마를 탁 쳤다.

《아, 지시 2호!... 기왕 남았으니 값을 받아야겠군. 그래 어떤 점이 주목됐습니까?》

(종일 나에 대해선 잊었됐구나.) 하는 생각에 신혜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사뭇 딱딱하게 내뱉었다.

《제목이 <역사적고찰>이니 뻔하지요. 왜놈들이 우리 지방에 큰 군마목장을 벌려놓았댔다는것, 그때문에 땅이 몹시 더럽혀져 토질병이 생긴걸로 추정된다는것... 동문 그래서 이곳에 왔겠지요. 오늘은 그 위치를 확정하러 나갔됐을게고.》

그사이 팔짱을 낀채 두눈을 지그시 감고있던 문구가 돌연 책상을 탕 쳤다.

《그거요! 바로 왜놈들의 그 더러운 오물을 들어내자는거요!》

우스운것은 그가 소리친 당자를 신혜인듯이 여가며 이상하게 쳐다본 그것이였다. 자기의 그

《실수》를 깨닫고 계면쩍게 뒤더수기를 굵은것은 잠시후였다. 그러면서도 문구는 놀랍게 흥겨워했다. 하여 자기가 이 지방의 토질병균체를 찾을 결심

을 하게 된 사유를 단숨에 털어놓았다.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의학대학병원을 찾으시였다고 한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의사, 교원들에게 자신께서 여기에 온것은 나라를 찾자고 산에서 갓은 고생을 다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건강이 걱정되어서라고,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장수하도록 하는것이 자신의 소원이자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은 문구를 무한한 격동과 함께 자책도 느끼게 만들었다. 어버이수령님 덕분에 대학생으로까지 되었던만 나는 이해 무엇을 했는가. 그래 인민들의 건강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수령님의 그 뜻을 받드는 일이 내겐 졸업후의 과제로만 남아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 노래에도 있듯이 온 나라가 《새 나라... 우리네 살림을 이쁘게 꾸미》려고 뛰고 또 뛰는 그 벽찬 시대의 흐름에 나도 합류하자!

《...그래서 달려왔지요. 헌데 재학중의 학생이라 방학박엔 시간을 늘수 없는데 일정은 긴장하지, 할수없이 조수의 손을 빌릴밖에요. 동무만 편의견 없으면 오늘밤부터 실험을 시작하자는거요. 어느 책에 있드라. <인류의 모든 진보는 실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요란한 말이 제 귀에도 좀 희뻘게 들렸던지 문구는 별썩 웃어보였다.

《어쨌든 우리도 무병장수의 진보에 돌맹이 하나쯤은 기여야지요.》

신혜는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어쩐지 자기가 한 사내의 마음속에 한발을 들여놓은듯한 심정이였다. 의혹이란 전혀 없이, 은근한 호감까지도 갖고!

《이 정신 보지.》 신혜의 침묵을 달리 리해한듯 문구가 허거프게 중얼거렸다. 《아까부터 퇴근시킨다는게... 어서 가보시오. 집에서 기다리겠소.》

《아뇨. 전 오늘부터 합숙에서 자기로 했어요.》

마침 반장이 꼬리가 땅에 끌리는 잉어 한마리를 건져가지고 왔다. 그는 신혜더러 수고하는 연구사선생을 위해 료리شم씨를 보이라고 이르고는 슬그머니 물었다.

《그래 어떻게냐?》

조수일을 넘두에 두었는지 《잘생긴 총각》에 대한 인상을 묻는것인지 알수 없는 어정쩡한 말이였다. 하여 신혜 역시 애매하게 속삭였다.

《이제 실험을 해봐야지요.》

《(일기)...실험을 시작한지 한주일이 지났다. 그사이 문구동무는 낮에는 종일 산발을 타거나 감탕판을 뒤지고 밤은 밤대로 시료분석과 물고기해부 등으로 노상 밝히다보니 두볼이 훌쩍해졌다.

그런데도 아직 아무 소득이 없다. 문구동무의 설명에 의하면 토질병균체들이 오랜 세월 비에 씻겨 깊이 숨거나 벌지대로 옮겨진듯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방향에서의 탐색결과역시 시원치 않을뿐이다.

어지간히 지치고 짜증도 나서 저녁에 <괜한 고생을 하는게 아니예요?>라고 한마디 비쳤더니 문구동무는 느물느물 웃으며 시가슬렸다.

<왜 또 도망칠 생각이 나는가보지요?! 요즘 매일 리트머스시험지를 다루면서 생각되는게 있겠는데... 산이라는게 촉든 덩든 매번 빨간색으로만 나타나지 않소. 불그레하거나 아무 색도 없으면 야 그게 어디 산이요? 맹물이지.>

그때 얼마나 분했는지 모른다. 그만큼 함께 일하면서 갖은 수고를 다 해줬건만 그 평가로 <맹물>이란 모욕적인 딱지를 붙이다니... 그런데 그 동무는 갑자기 그답지 않게 정색해지며 이런 제의를 했다.

<이제부터말ियो. 내 트렁크안의 책들을 하나씩 가져다 읽지 않겠소? 적게 알수록 더 많이 의심하게 되거든. 동무가 오늘 우리 실험을 믿지 않은것처럼. 헌데 난 다른 모습의 동무를 기대해왔지.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이런 조수노릇에 만족치 않는!...>

의미심장한, 어쩌면 나 자신의 숨겨진 동경까지도 가늠해보고 던지는 말같았으나 잔뜩 부아가 치밀었던 참이라 나는 물강스레 내쫓았다.

<동무가 떠나면 난 양어공으로 되돌아갈 녀자이니 필요없어요!>

정말 그가 나같은걸 순간일망정 조수이상으로 그려본 때도 있을까? 정말 나도 그런 지향을 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8.15해방 네뚝을 하루 앞둔날 아침이었다. 가장물시위행렬에 들고나갈 물고기모형을 만드느라고 푹푹거리던 반장이 실험실로 가는 신혜를 불렀다.

《애, 연구사선생은 래일 어찌됐다드냐? 외지에 와서 고생하는데 하루 머리도 쉬울겸 우리 양어장 대렬과 함께 읍으로 가자구 해라.》

그러지 않아도 문구를 혼자 남겨두고 집에 갈일이 마음에 걸렸던 신혜였다. 그가 실험실에 들어서니 문구는 없고 대신 쪽지 한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는 뒤산개울에 가재잡이를 가니 그사이 어제밤의 실험결과를 정리하라는 지시였다.

신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랭이를 옆에 끼고 막에 나섰다. 늘 자기를 실험실에 불러앉히고 혼자서 땡벌아래 산발을 타군한 문구 보기가 미안했었던터라 오늘날이라도 같이 나가 일손을 도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가재잡이를 한다던 문구는 뒤산초입의 분지나무그늘아래 누워 공상이라도 잠긴듯 술개미 한마리가 빙빙 날아도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있었다.

뜻밖에 나타난 신혜를 보자 문구는 마치 범이라도 만난듯 화닥닥 뛰쳐일어났다.

《어... 어떻게 여길 다...》

얼굴이 지지벌개서 눈둘대를 몰라 허둥대는 그의 수상한 거동은 대뜸 신혜의 기분에도 감염되었다. 신혜는 당황하여 허아래소리를 내었다.

《저, 반장아바이가 찾아오라기에... 아니, 뭘 전달하라기에... 같이 일도 할겸...》

문구는 후- 한숨을 내뿜으며 도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혜를 마주보지도, 그 전달하라는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몸만 불편스레 궁싯거렸다.

(어마, 왜 저렇가?...)

《이... 일이 생겼소.》 드디어 문구가 땀이 와짜 내뿜은 이마를 훔치며 떠듬떠듬 중얼거렸다.

《우리 실험을 계속하드나... 그만두드나 하는... 암만 생각해도 방도가 안떠오르누만.》

(그래서였던 말인가?!)

처녀다운 경계심으로 몸을 도사리고있던 신혜는 막혔던 숨이 나갔다. 그러자 불쑥 앞כות은 비웃음이 속을 간질렸다. 바로 며칠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맹물에 비기며 질책하던 그가 지금은 반대로 절망에 빠져 한숨짓고있다!

《놀랍군요. 동무가 다 락심하다니요?》

비꼬듯하는 그 말이 용기를 준듯 문구는 비로소 신혜를 마주보며 애원조로 부르짖었다.

《날 좀 도와주시오. 동무만 동의하면 문젠 다 풀리오.》

《뭇지 말하세요.》

《우선 약속부터 해주오. 꼭 도와주겠다고.》

신혜는 픽 웃었다.

《죽으라는 소리만 아니라면 약속하지요.》

문구는 부리부리한 눈을 신혜에게서 떼지 않은 채 주머니를 뒤져 전보용지 하나를 쑥 내밀었다. 신혜는 결눈으로 재빨리 글줄을 더듬었다.

《14일 오후 5시차로 청동역을 지나감. 약혼녀를 데리고 역에 나올것. 형 문호.》

신혜는 한순간에 모든것을 깨달았다. 지금 문구는 자기에게 《약속한 처녀》가 되어줄것을, 적어도 그런 역을 맡아해줄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 다.

신혜의 머리우에서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망설임을 끝장내버려 한결 허가 풀린 문구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라는걸 아오. 까딱 무슨 소리라도 새여나가면 동무립장이 몹시 난처해질테니까. 하지만 이제 남은 보름을 우리 실험에 다 바치드나 당장 집을 싸들고 집으로 가야 하드나가 동무에게 달렸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번 방학기간에 내가 무조건 장가가야 한다고 선포했답니다. 로환때문에 둘째며느리를 못볼가봐 겁났겠지요. 그래 형님한테 구원을 청했지요. 여사여사한 일로 청동에 꼭 가야 하는데

거기엔 약속한 처녀도 있으니 부모님들을 잘 설득시켜달라고요. 오늘 <약속한 처녀>를 선보이지 못하면 저의 부모들은 당장 끌어가자고 할겁니다.》

얼결에 분지나무잎을 쥐어뜯던 신혜는 흠뻑 손을 움츠렸다. 가시에 찢린 손가락끝에서 빨간 선지피가 이슬처럼 돌아올랐다. 그것은 신혜로 하여금 문구의 그 《리트머스시험지》이야기를 상기하게 만들었다. 과연 《무병장수의 진보에 돌맹이 하나 쪼고 고인다》는게 처녀라면 대경실색할 이런 무리한 요구의 수락까지도 포함되는것인가?

신혜는 슬진 눈섭을 미간에 모아붙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쌀쌀하게 물었다.

《언제 떠나겠어요?》

《?!...》

《난 오후에 도서관에 들릴 일이 있어요. 네시에 읍거리초입에서 만나요!》

...명절용물고기를 실러 온 자동차를 타고 집에만 신혜는 오래동안 장농을 뒤지던 끝에 화려하지는 않으나 꽤 맵시있는 흰저고리와 검정치마를 골라입었다.

그가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니 마침 가두고성기에서는 네시를 알고있었다.

비로소 신혜는 자기가 얼마나 황당무제한 약속을 했는가를 깨달았다. 우선 사람들과 차의 왕래가 복잡한 길거리에 상면장소를 정한것부터가 우둔한것이였다. 도서관시절에 얼굴이 널리 알려진 자기가 맵시를 내고 서성대는 꼴을 보면 누군들 미묘한 억측을 하지 않겠는가. 애초에 눈을 꼭 감고 문구에게 사진이나 한장 훔 쥐여줄것을!... 그러면 그의 부모들이 서운한대로 시름만은 덜며 오라가라 독촉하진 않을게 아닌가.

문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신혜는 자기가 이자리에서 몇시간은 실치 기다린듯이 여겨졌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네시반의 고정프를 시작하고있었다.

그다음...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렸다. 여태 그 부끄러운 순간이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고 빌었던 신혜였지만 그 메아리는 심장을 초조하게 옥죄었다. 아, 이제라로 나타나면 늦진 않겠는데. 이제라도!

(혹시 그가 날 속인게 아닐까?)

느닷없이 이런 의심이 머리를 쳤다. 그러자 신혜의 가슴속에서는 대뜸 폭풍같은 회오리가 일기 시작했다.

(틀림없어. 여태 남의 기분파위는 아랑곳 않고 제 속생각을 막 내뽐군하던 그가 별로 쭈뼛거리던걸 봐도 그래 확실히 여기엔 딴 목적이 있어. 사실 형님한테 그 처녀가 나들이갔다고 얼마든지 둘러댈수 있지 않는가. 그 동문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나의 감정을 실험해본거야!)

강철거물이 레루를 육중하게 구르며 사라진지도 이윽해서야 문구는 행길가의 먼지를 날리며

징징징경 달려왔다. 그는 감탕이 계발린 바지를 정경이까지 걷어올린채 먼발치에서부터 한손을 높이들어흔들며 《찾았소-오!》 하고 소리쳤다.

왈각 눈물이 솟구쳐 신혜는 이를 악문채 책 돌아서버렸다.

《...<용서해주시요. 신혜동무.> 하고 그 동문 사정했어요. <사실 이 골뱅이때문에 그만 깜빡... 정말 잘못했소. 리해해주오.> 하지만 어떻게 리해하고 용서할수 있겠어요. 한 처녀의 궁지머 자존심이며를 우롱하고 무참히 짓밟은 그들요. 그래 내쏘았지요.

<난 변명으로 제 잘못을 가리우는 사람을 제일 경멸해요!>

후에 들으니 그 동문 읍으로 나오다가 길옆에서 큰 수령판을 발견하고 뭔가 쪼이는게 있어 그 속에 뛰어들었는데 기적소리를 듣고서야 저와의 약속을 상기했다더군요. 물론 자기 일에 골몰할 줄 아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실수를 빚어내곤하는줄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리해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글썄 그게 어떤 약속이었나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수령판에서 끝내 <왜놈의 더러운 오물>을 찾아내고야말았답니다. 저로 말하면 한번 약속한 이상 시시하게 중도에서 물러서기 싫어 끝까지 조수노릇은 했지만 문구동무에게 더는 결을 주지 않았지요...

대학에 돌아간 그 동문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의 성과를 대학에선 높이 평가했습니다. 래년 여름방학에 또 가겠습니다. 토질병박멸전투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때에도 제 조수가 되어줄수 없는지?... 동의하리라 믿으며 다음의 책들을 미리 읽어둘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우린 더 잘 호흡이 통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밑에 책제목들을 쭉 적었는데 다 의학서적들이더군요. 전 아연했습니다. 그만큼 경멸감을 표시했건만 이 동문 왜 이리 지못게 나오는걸까?...

그가 분명 바랐을 회답을 전 하지 않았어요. 지난날의 불쾌감을 거들어 웅졸하게 굴고싶진 않았지만 혹시 무슨 <호흡을 맞추>고싶어한다는 인상이라도 주게 되면 어찌했습니까.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후부터는 폐사롭던 기적소리가 달리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딱히 설명할수 없는, 그러면서도 남에게 터놓긴 두려운 은밀한 기대랄가요.

그런 새로운 생활이 실려오는듯해서요. 문구동무가 지적해준 책들을 파고들게 된것도 아마 이런 류다른 감정때문일겁니다. 한편, 또 한편 탐독해나갈 때마다 은연중 그 동무의 세계에 자기 높이를 비교해보게 된것도...

그런데 다음해에도 그 동문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이유에서이지만...》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신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받들고 곧 군사동원부를 찾아가다.

전선으로 떠나던날 신혜는 역구내를 뒤흔드는 군용렬차의 우렁찬 출발기적소리에 지그시 눈을 감았다. 가슴이 서서히 저려들기 시작했다.

(나의 그 기다림도 이렇게 끝나고마누나…)

행길가의 먼지를 날리며 정경정경 내달아오던 껍두룩한 그 청년… 그 걸음이 지금은 어디로 향했을가. 틀림없이 그도 군복을 입었을것이다. 결국 우리의 길은 똑같이 전진으로 이어졌지만 거기엔 미리 약속된 상봉의 교차점이 없으니… 이렇게 갈라지고말줄 알았다면 그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을것을!

신혜는 간호원이 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일은 아주 터무니없이 되어버렸다. 류달리 눈을 끄는 신혜의 용모때문이였는지 몇번이나 그를 흘끔흘끔 결눈질해보던 사단대렬참모가 얼마후 신입병사들의 명단을 한통 복시하라고 시킨것이 그 발단이였다. 신혜는 옛 대출원시절의 솜씨로 그 일을 땀시있게 해치웠다. 그러자 대렬참모는 흡족해서 《동문 이제부터 사단대렬서기요!》 하고 선포했다.

신혜는 기겁하며 펄쩍 뛰었다.

《안됩니다. 전… 꼭 간호원을 해야 합니다!》

《그건 어째서?》

유심히 건너다보는 대렬참모의 시선에 신혜는 당황했다. 《간호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의대모표를 단 문구의 모습을 그려본 자기의 미묘한 내심을 들여다보는듯해서였다.

《저… 사실 전…》 신혜는 딱해서 말을 더듬었다. 《한때 의학연구사실에서 조수를 하면서… 실험도 해보고… 수술같은것도 좀 해봤길래… 간호원이 되면 더 유익을 줄거라고…》

신혜의 말은 여기서 완전히 입안으로 찾아들고 말았다. 열결에 둘러댄다는것이 스스로도 아연할 엄청난 거짓말로 번져진때문이었다.

대렬참모는 어째서인지 피식 웃으며 내뱉었다.

《난 이전에 무얼 한것 같소? 한다하는 양봉기 술자였소. 동무 론리대로 하면 난 심산속으로 끝 벌들과 전쟁하러 들어가야겠군. 그렇소?!》

신혜는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또 투정질을 했어. 군복을 입고서도! 그러니까 문구동무가 날보고 공격적인 사업도 제 기분으로만 도해한다고 비판했지.)

결국 신혜는 대렬서기로 눌러앉고말았다. 그것은 끊임없는 전투로 하여 하루에도 몇번씩 변경되는 대렬통계며 새 직무 임명과 조동, 표창관계의 각종 명령서들을 작성, 정리해야 하는 눈코뜰새없이 분주한 직무였다.

머칠 못가서 신혜는 이 《펜대와외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은근한 자부심마저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어째서 피흘려 싸우는 화선병사

들을 대하기가 이리 죄스러워지는걸가? 그들모두가 날두고 《오-라, 반반한 얼굴값에 총알이 날아들지 않는데 얌전히 들어앉았군!》 하고 비웃기라도 하는것처럼…

(정말 대렬참모동지가 그런 리유로 날 서기로 임명한건 아닐가?)

불쑥 떠오른 이런 병적인 추측은 대렬참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자기를 별로 유심히 결눈질해보던, 기억과 어울려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신혜의 가슴속에서는 어느덧 영문모를 초조감이 자그마한 그늘을 퍼고 자리잡고는 고양이처럼 허버대기 시작했다.

어느날 기통수가 가져온 사단벽신문을 훑어보던 신혜는 한순간 호흡을 딱 멈추었다. 이틀전의 시가전에서 사단이 거둔 전과로 지면을 짝 채운 신문 한귀퉁이에서 무척 낮은 모습의 적교만 인물속사화를 띄여본것이였다. 그다지 않은 솜씨였으나 그 류다른 특징-부리부리한 눈이며 병짓웃는양을 정확히 포착하여 재현한, 갈데없는 그의학대학생이였다.

아닐세라 그림밑에는 《야전조건에서의 특수림상치료법 착안도입》 하는 제목과 함께 X련대군의소 군의 강문구중위라는 이름이 분명히 찍혀있었다.

어떻게 뛰쳐일어났는지… 신혜의 손은 벌써 위장그물이 드리워져 묵직한 천막자락을 들치고있었다. 그러나 곧 멈칫하고는 핵 되돌아서 탁자위의 송수화기를 덮쳐잡았다. 심장이 널뛰듯 쿵당거렸다.

(같은 사단에 있었어. 같은!… 그래서 여태 피이썩은 초조감이 날 들볶았던거야. 어서 그를 만나라고. 그가 있는 전방으로 옮겨갔으라고!…)

공교롭게도 그를 앞질러 전화기가 태질하듯 울어댔다.

《신혜동무, 곧 나한테로 오시오. 차는 보냈소.》

포로병들의 호송때문에 철도역에 나가있는 대렬참모였다. 아마 놈들의 명단작성문제가 제기된 모양이였다. 신혜는 맥없이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어쩔수 없이 벽신문쪽으로 끌려갔다. 《자, 어떻소. 이번엔 내 약속을 지킨셈이지?!》 하는듯 능청스레 웃고있는 그림속의 옛대학생… 신혜는 눈을 꼭 감았다가 자기로서도 뜻밖인 어떤 충동에 떠밀려 재빨리 문제의 그 인물속사화를 오려내기 시작했다. 그다음 덤벼치며 수첩갈피속에 그것을 감추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닷새후 대렬참모가 전사하였다. 락동강을 사이에 두고 적들과 대치한 사단이 결정적인 도하작전을 준비하던 8월의 어느 무더운 저녁녘이였다.

대렬참모는 신입병사들을 인솔해오던 도중 적기의 기총탄앞에서 한 의용군전사를 몸으로 덮고 치명상을 당했었다.

그 소식을 듣고 신혜가 달려갔을 때 대렬참모는 마지막숨을 쉰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의 소원을 진작 풀어주었어야 하는건데… 후임은 골라놓았으니 련대군의소로 가오. 대렬파장동지와는… 이미 합의를 보았소. 문구군의가 기다릴거요. 그가… 동무의 그 연구사였더군.》

오열이 복받쳐 신혜는 허를 짝 깨물었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이 사려깊은 군관들을 터무니없이 오해했고 불쾌하게 여겨왔었다는것을 뼈아프게 회회하였다. 그런데 문구동무와의 관계는 어떻게 알았을가?

여태 적당한 기회를 얻게 못한데다가 생뚱같이 머리를 쳐드는 자존심이며 야릇한 두려움의 방해로 문구에게 전화하는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온 그였다. 그러나 문구쪽에서는 자기가 여지 있다는것을 알리 없다.

그날밤 직무를 인계하기 시작해서야 신혜는 그 전말을 짐작할수 있었다. 놀랍게도 대렬참모의 전투가방속에서 자기가 오래낸 부위를 색연필로 동그렇게 표식해놓은 벽신문이 나진것이였다.

(용서해주세요!) 또다시 목구멍을 치받는 오열을 씹어삼키며 신혜는 속으로 빌었다. 그따위 허튼 생각에 움해서 서기일을 충실히 못해온 저를요. 제 꼭 훌륭한 간호원이 되어 참모동지를 육되게 하지 않겠어요!)

이튿날 자정무렵 사단은 드디어 도하전투에 진입했다. 신혜는 이 전투에 처음부터 참가하려고 별렀었다. 하지만 새 서기에게 견습까지 주고나니 련대군의소에 당았을 때에는 이미 지동치는 총포성과 화광이 누리를 짝 채운 뒤였다.

몇번 본 기억이 있는 젊은 직일군의가 마침 기다리던 참이라면서 신혜를 가까이 불렀다.

《문구군의가 동무를 빨리 보내달라고 지금 야단이요. 판 부서에 떼울가봐 겁난 모양이지. 의학연구사의 조수경력을 가졌겠다, 사단에 짜한 미인이겠다. 등이 달수밖에.》 그리고는 량해를 구하듯 허허 웃으며 덧붙였다. 《실은 그 동무네 일이 딱하게 됐소. 이걸 보오.》

그가 펼친것은 문구의 전화내용을 기록한 직일관일지였다.

《소장동지에게 전할것. 1시 30분경 전방치료대를 제2지점으로 옮겼음. 간호원 부상, 곧 후송시키겠음. 내게 배속된 최신헤동무에게 다음의 작품을 추가로 보내줄것. 속히! 군의 강문구.》

그다음 약품명세가 쪽 적혀있었다.

《사태는 그렇소. 오자마자 쉬우지도 못하누만. 어찌겠소. 약국에선 다 준비해놓았대요. 그럼…》

미안쩍게 중얼거리던 직일군의의 눈이 덩둘해졌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내심의 어떤 흥분이 께비친듯 발그레 상기되어있던 신혜의 얼굴이 무섭게 해쓱해지기 시작한것이였다.

기실 신혜는 이 순간 공포와 비슷한 전율에 등

골이 서늘해졌다. 자기를 약국이나 접수분류과쯤에 배치하여 다문 며칠간이라도 간호원견습을 시키리라 여겨온 그였다. 그런데 군의소에서는 대렬참모에게 막부득하여 내뺄은 자기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대뜸 경험있는 간호원들을 선발한다는 전방치료대에 배치한것이다. 수술은커녕 초보적인 봉대법조차 모르는 자기를! 그러다 이 헛내기때문에 중요한 사명을 띤 전방치료대사업이 망쳐진다면!..

직일관일지에 눈을 박고있는 신혜의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고르지 않게 툭툭 튀기 시작했다. 남의 손이 받아쓴것이긴 해도 1년전 양어반장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문구의 필적인듯싶어 사뭇 가슴울렁여지건만… 과연 그날의 《지시 1호》처럼 이것 역시 거절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다니!...)

드디어 신혜는 바싹 마른 허를 추기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전… 당장 소장동지를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수술중인데… 30분은 더 기다려야 할거요. 전방치료대로 떠나는 문제라면 소장동지도 승인했으니 일없소.》

《아니… 그렇게 아니라… 저…》

어쩔수 없이 망설여지는 자신에게 화를 내며 신혜는 분연히 머리를 들었다.

《제대신 판 간호원을 보낼수 없을가 해서요. 꼭 그래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직일군의는 슬며시 외면하며 군기침을 깃었다. 아마 이 곱살하게 생긴 도고한 처녀가 실은 겁쟁이여서 전투장을 기피할 꾀를 쓰누나 하는 추측에 제견에서 오히려 낮뜨거운 모양이였다.

마침내 직일군의는 내놓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로골적인 멸시조로 내뿔었다.

《전방치료대가 뭐 한둘만 조직되어있는줄 아오? 어디서나 손이 달려 찢절 매는판이요. 또 분단된 전투조직을 변경하면 혼란도 생기고… 시간을 아끼시오!》

마지막 말은 이미 명령이였다.…

...

《…홍정이나 변명을 허용치 않는게 명령이라는걸 선생님도 아시지요. 그래 울며 겨자먹기로 돌아서긴 했지만 얼마나 괴롭던지요. 애초에 각오는 한터였으나 좋은 동기에서 출발한 제 의도가 그런 억울한 오해로 끝났으니말예요. 이것이 그리도 고대해온 문구동무와의 상봉을 위해선 피치 못할 보상일가. 그래서 이 순간이 여태 두렵기도 했던걸가?… 하는 생각에 목이 메더군요. 아마 한가지 위안이랄지 자기기만이랄지… 그런게 없었다면 전 도중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저의 그 알량한 조수경력을 뻔히 아는 문구동무가 어째서 절 군이 전방치료대에 끌어들었겠는가 하는것이였어요. 혹시 사단벽신문에 소개된

것과 유사한 어떤 새 실험을 또 시작한건 아닌지, 그래서 한때 손발을 맞춰 일해본 이 최신헤라는 너자가 여느 간호원들보다 더 효과적인 방조를 줄수 있다고 타산한건 아닌지... 너무도 터무니없는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잖아요. 그런 론거에라도 한사코 매달릴밖에요...》

...도하장에 이르러서야 신헤는 치열한 격전 끝에 강을 강행도하한 아군이 대안의 적방이선을 돌파하고 한창 중심으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부상병을 나르는 담가병들을 만나 전방치료대위치를 묻고 돌아서는데 담가우의 부상병이 속살거렸다.

《최신헤언니지요?!》

신헤는 놀라서 담가우에 허리를 굽혔다. 먼 화광속에서 무척 애뵈 보이는 조그마한 처녀가 입술을 이지러뜨리며 웃어보이고있었다.

《다 들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우려했는데... 전 간호원을 겨우 한주일밖에 못했거든요. 그래 우리 군의동지가 애를 많이 태웠지요. 어서가보세요. 군의동지가 이젠 시름을 노을거예요.》

신헤는 쫓기듯 허둥지둥 폐목에 올랐다. 아군 2제대의 전투진입을 차단해보려고 적들이 퍼부어대는 폭격과 포격으로 강물은 무섭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길길이 치솟았다가는 사나운 폭포처럼 우르르 췌- 꺼져내리군하는 물기둥들, 무시로 펄펄 거리며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폭발의 섬광 그리고 당장 뒤집힐듯 요동치는 폐목... 신헤의 가슴도 피로운 생각으로 지끈거려 뒤채졌다. 저 애 어린 간호원마저도 많이 배우자고 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졌으니... 무엇때문에 난 대렬참모동지에게 그따위 거짓말을 했던가. 책임도 지지 못할 그런 희떠운 거짓말을?!...

피할길 없는 그 두려운 순간은 마침내 닥쳐오고야말았다.

온몸이 흠뻑 젖은채 간신히 건너편대안에 이른 신헤는 모래불에 내려서자마자 흠칠하며 굳어졌다. 앞서 도착한 폐목에 부상병들을 실느라고 분주히 드달려다니는 담가병들속에서 키가 류달리 경충한 군관의 모습을 발견한것이었다. 꺼져가는 조명탄의 흐릿한 불빛속에 얼굴륵박은 분명치 않았으나 뇌리속에 그리도 뚜렷이 인박혀있는 그 징징징징 옮겨디디는 걸음새... 그것은 골뱅이든 손을 높이 들어흔들며 《찾았소-오!》 하고 웨치던 예전의 그 대학생-강문구가 틀림없었다. 한해라는 세월의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은듯한, 군복차림이 좀 서름하긴 해도 거의 변한데라고는 없어버리는 그가 지금 자기앞에 있다!... 그런데 몸은 왜 이리 떨릴가. 군복이 젖어서 그럴가?

문구쪽에서도 신헤를 띠여본듯했다. 그는 멈칫하더니 꼭 놀리쓴 군모채양을 밀어올리며 소리쳤

다.

《봉숙동무요?! 왜 그러고 서있소. 응?》

《...》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부리부리한 두눈이 신헤를 뚫어지게 더듬었다. 그다음... 문구는 씩씩히 웃었다.

《그랬지. 그 동문 후송됐지. 아주 어린애같은 동무였는데... 기다렸소. 신헤동무.》

느닷없이 설음이 북받쳐 신헤는 픽 고개를 틀었다. 그의 입에서는 자기로서도 뜻밖인 목멘 향연이 터져나왔다.

《어째서 그랬어요? 제 거짓말을 까밝혀놓을 대신... 어째서 눈감아주었어요. 예?》

《악품은 가져왔소?》

짧은 침묵 끝에 문구가 나직이 되물었다. 그러나 곧 자신에게 화를 내듯 얼굴을 힘껏 문질렀다. 마치 그 《어린애같은》 부상병의 부상이 어쩔수 없이 던져주었던 우울한 표정을 지워버리기라도 하는듯한 동작이었다.

아닐세라 그가 손을 내리웠을 때 신헤는 그 부리부리한 눈가에 게면적은듯한 미소가 그려진 문구를 보게 되었다.

《사단대렬참모가말이요.》 짐짓 활기를 띤듯한 목소리로 그가 입을 열었다. 《내게 전화하기를... 동무를 처음 보고 자기 누이동생과 꼭같이 생긴데 놀랐다고. 동생은 폭격에 잘못됐다더군. 그래서 자기결에서 떼어놓고싶지 않아했다는데... 동문 그걸 노엽게 여겼지.》

《?!...》

《그래서 난 믿었소. 동무가 자기의 그 말을 진짜 거짓말로 끝나버리진 않을거라고... 한 전투를 옮겨 치르자면 한생의 용기가 다 필요하지만 대신 한생에 쌍을 지해도 다 얻을수 있으니까.》

폐목을 떠나보낸 담가병들이 다가왔다. 문구는 그들에게 다음계선에서의 부상병후송조직이며 그 집결처위치 등을 설명하고나서 각기 자기 위치로 출발시켰다. 그다음 신헤에게 손짓해보였다.

《자, 우리도 떠납시다!》

그때까지 우두커니 서있던 신헤는 필쩍 놀래여 황황히 문구의 뒤를 따랐다. 이상하게도 발길에 채워 걸음마다 쟁강거리는 탄피소리가 여태 압담한 생각에 짓눌려있던 그의 가슴을 활가분한 노래가락처럼 보다듬기 시작했다.

(정말 날 그렇게 믿었을까, 진짜 거짓말로 끝내버리진 않을거라고?!...)

그들은 곧 활활 불타고있는 강대안의 넓은 대숲속에 뛰어들었다. 방금전 아군이 휩쓸고 지나간 격전터였다. 대숲은 그때까지도 수만정의 보충이 무질서하게 사격해대듯 《탕! 탕! 탕!...》하는 무시무시한 굉음을 터뜨리며 불티와 내굴을 습막히게 뿜어올리고있었다.

그속에서 신헤는 부상병들에 대한 구원전투를

시작하였다. 문구는 마치 《한생의 지혜》를 순간에 다 주입시킬듯 신혜를 숨돌릴틈없이 다물아쳤다. 부상병들을 상대로 각이한 부위의 상처에 대한 1차처치와 봉대법, 각종 지혈방법들을 익히느라고 잠간사이 신혜의 얼굴은 땀과 검댕이로 뒤범벅이 되고말았다.

그럼에도 신혜는 마음이 가벼웠다. 바로 한시간전만 해도 술직성이란 외피속에 직일군의에게 자신을 변명하고 용서를 빌려고 한 비겁한 자기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들의 눈먼 포탄이 사방에서 흙기둥을 말아올리고 불에 튀는 참대의 바늘같은 가시들이 얼굴을 날카롭게 찢러대는 전장을 아무런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누벼가고있으니... 문구가 징징징 앞서달리며 자기를 이끌어가는 이 길이 혹시 1년전 그 우렁찬 기적소리가 손저어 불렀고 자기 또한 화답의 목소리를 합치려고 무던히 애써온 그 《새로운 생활이 실려있는》 길은 아닌지!...

신혜의 가슴속에 두고두고 뼈저린 아픔으로 남게 된 순간은 그때, 담가병들에게 부상병들을 다 넘겨주고 전장을 한번 더 훑어볼 때에 일어났다.

어느 으스스한 골짜기에서 마침내 한 부상병을 발견하고 달리자던 신혜는 어떤 우왕스러운 짐승이 기괴한 울부짖음을 터뜨리며 자기의 머리위로 곧추 덮쳐내리는듯한 소리에 주춤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 찰나 뒤따르던 문구가 《엎드렷!》하는 웨침과 함께 위생가방을 나무채며 왈각 등을 떠박질렀다. 신혜는 태를 치며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거의 동시에 눈을 아프게 찌르는 번개불같은 섬광과 매캐한 화약내가 덮쳐들었다. 지척에서 포탄이 터진것이다.

《신혜...》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신음같은 목소리, 신혜는 손을 허우적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몇걸음앞의 허리부러진 나무등결 밑에 위생가방을 깔고 반쯤 엎드려져있는 문구가 떠였다.

《약품이 어떻게 됐는지... 좀 봐주오.》

문구가 힘겹게 등을 나무등결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고통을 짓씹어삼키듯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찌프러져있었다. 무엇보다 몹시 귀설어진 뜨직한 목소리가 신혜를 불안케 했다.

《왜 그래요. 상하지 않았어요?》

비칠거리며 다가가 묻자 문구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마... 다리를 접질린것 같애. 못일어나겠구만. 어서 위생가방을 보오.》

《무사한것 같아요.》

《다행이요. 그럼 이제 부상병을... 이리로 옮겨주시오.》

속이 메스메스해났다. 땅에 나딩굴 때 머리를 타박받은건 아닌지... 신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사려물고 걸음을 내짚었다.

(벌스레 얼굴이 해쓱해. 다리짚 접질린것 같진 않았어!)

부상병은 어깨부위가 온통 피에 젖은채 의식을 잃고있었다. 신혜가 안아일으키자 으드득 이발음을 같이 시작했다. 중상이라는데 알렸다.

《수술준비!》

신고끝에 끌어온 부상병을 찬찬히 살펴본 문구가 나직이 명령했다. 간단한 구급처치를 예견했던 신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수술을... 여기서요?!》

《그렇소.》

신혜는 저도 모르게 흘깃 사위를 둘러보았다. 귀뿌리를 째는 파편의 울부짖음과 어지럽게 흘날리는 불티로 짝 찬 한산한 전장... 그런데 여기서 수술을?

그의 의혹을 짐작한듯 문구가 불쑥 물었다.

《생각나오? 작년에... 내 조수를 하던걸...》

문구는 신혜를 만난후 처음으로 병실 웃어보이고있었다. 좀 이지러지기는 했으나 신혜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순박하고 능청스러워보이기까지 하는 미소였다.

《그때 난 동무를... 감탕속으로 막 끌고다녔지. 헌데... 이번엔 불속이군, 어쨌든 동무가 그때와는 달리... 자청해서 내곁에 온셈이니... 잘해봅시다. 수술칼을 잡으시오.》

《예?!》

《웁소. 동무가... 집도를 해야겠소!》

신혜의 술진 눈섭이 놀란 잠자리처럼 푸득 이마위로 옮겨앉았다. 그는 뚫어지게 문구를 쳐다보았다. 귀속에서 우뢰같은 공명을 일으키는 《집도》라는 말마디...

(아니, 잘못들었어. 내가... 잘못들었어!)

그러나 미소가 사라진 문구의 엄격한 얼굴을 보자 신혜는 모든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문구는 지금 다름아닌 햇기간호원에게 전문외과의사들에게나 해당되는 수술집도를 요구하고있는것이다!

1년전 그날에도 그는 자기에게 처녀라면 도무지 접수할수 없는 《약속한 처녀》역을 떠맡겼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불가능한 요구는?... 단지 희생된 대렬참모에게 내뱉았던 나의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주기 위한 리유에서뿐이겠는가?

《동문 절 또 실험해보자는거예요?》 하는 부르짖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먼 불빛이 동공에 비껴있는, 그래서인지 류달리 이상한 광채가 뿜어나오는 문구의 눈과 마주치자 신혜는 허가 얼어붙었다. 그 눈은 신혜에게 어떤 말 못할 기대와 애원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터치고있었다.

《해주오. 동무가 수술칼 한번 못잡아본건 사실

이지만... 꼭 해야 하요!》

《모르겠군요.》 신혜 역시 눈으로 웨쳤다. 《수술이야 군의가 하게 되어있는데... 동문 뭘 하고 제가 꼭 해야 하나말예요?》

《그건 묻지 마요. 묻지 마요.》

《그리고보니 정말 또 실험이군요?!》

《아니, 믿으시오!》

《그럼 혹시... 부상을?!...》

신혜는 흠칫 놀랐다. 비로소 그는 문구가 지금껏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는데 주의가 미쳤다.

문구는 그의 속생각을 알아맞힌듯했다. 그의 꼭 다물린 입에서 처음으로 뜨직하나 강경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상할진 없소. 만약... 동무가 이런 정황에 혼자 맞다들리면... 그뎨 어찌겠소? 군의가 아니니 자기를 변명할 구실은 있겠지만... 어쨌든 손을 안대면 부상병은... 죽을거요. 알겠소?》

힘겹게 더듬는 문구의 말은 몽둥이처럼 신혜를 후려갈겼다. 그는 부르르 진지리쳤다. 변명에는 저마끔 제나름의 이유, 때로는 긍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수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지 무언가 변명하려드는 인간을 제일로 경멸해온 자기가 아니었던가.

신혜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도 적들의 눈먼 포탄이 무시로 공기를 찢으며 터져오고 불타는 대술의 내굴과 재가루가 눈을 쓰리게 만드는 이곳... 하지만 그 터무니없는 《약혼녀》역을 떠맡을 때 무엇이 나에게 아무 항변없이 그런 결심을 내리도록 하였던가?

라는듯한 문구의 부리부리한 눈을 마주보며 신혜는 수술칼을 더듬어잡았다. 그다음 앙다문 이새로 속삭였다.

《지시를 주십시오. 군의동지!》

...어떻게 수술을 했던지, 문구의 지시에 따라 주사약앰플에 손가락을 베기도 하고 지혈검자며 수술칼, 핀셋들을 엇바꾸어잡기도 하면서 부상병의 쇠골밑에 박힌 큼직한 파편을 뽑고 봉합까지 마무리했을 때 신혜의 온몸은 물주머니가 되어버렸다. 그는 하늘땅이 맞붙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현기증에 상체를 기울이며 맥없이 쓰러졌다. 꿈같은 안도감이 즉시 심신을 포근히 휘감았다.

(나는 해냈어.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

그러나 문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한생의 용기를 다 필요로 하는》 이 엄청난 수술을 해낼수 있었겠는가. 고마와요. 고마와요!

그때 문구의 목소리가 다시 채찍처럼 날아왔다.

《일어나오, 신혜동무. 아직... 끝나지 않았소!》

신혜는 가까스로 속눈썹을 치켜올렸다. 여전히 엄하게 굽어보고있는 문구가 흐릿하게 비쳐들었

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로는 붉은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있었다. 마치 초진장속에서 수술을 집도한것이 그자신인듯한 모습이였다.

《부상병을... 빨리 후송해야겠소. 출혈을 많이 해서 지체하면 위험하오. 어서... 떠나시오!》

신혜는 말없이 몸을 일으켰다. 순간 땅을 짚은 팔을 거쳐 날카로운 아픔이 팔수를 찢 울리며 눈앞을 새까맣게 만들었다. 비로소 신혜는 자기의 한쪽 군복소매가 끈적끈적하게 젖어 팔에 척척이 달라붙어있는것을 느꼈다. 그것이 이제는 손회목을 타고 거무스레한 줄기를 이루면서 손등 위에까지 번져나오고있었다.

(부상을 당했구나! 헌데도 날더러 뭐라고?!)

돌풍같은것이 가슴속에서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술진 눈썹을 미간에 모아붙이고 문구를 이윽히 쏘아보다가 꺾 돌아섰다.

그때 등뒤에서 문구가 불렀다.

《신혜!》

심장을 흠칫 떨리게 하는, 어떤 진한 슬픔의 음조가 느껴지는 애절한 부름이였다.

문구는 신혜를 통채로 빨아들이기라도 할듯 두 눈을 홑뜨쳐 똑바로 쳐다보고있었다. 어째서인지 그의 입귀가 몇번이나 괴롭게 실룩였다. 그러다... 마침내 무엇인가 단념한듯 문구는 눈을 껏 감아버렸다.

《미안하오, 신혜... 됐소. 어서 가주요.》

짧은 여름밤은 소리없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육중하게 늘어진 부상병의 무게에 짓눌리운채 신혜는 걸음걸음을 따라서는 새벽빛에 쫓기우듯 허덕 허덕 발을 옮겼다. 쓰러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찢고있었다. 어느 책에선가 그는 이런 구절을 본적이 있었다.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수술한다.》... 그렇게 자기는 그 기상천외한 수술을 하면서 《공적인 사업》에 대한 지금껏의 무책임성을, 연약한 의지를 수술했었다.

그것은 문구의 눈에 자기라는 존재가 더 홀륭하게 비쳤으면 하는 은밀한 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기도 할것이다.

(하지만 문구동문?!... 그 동문 그것도 모자라 팔을 상한 연약한 녀자의 등에 더 가혹한 짐을 얹었어. 그런 팽담성에서 무얼 기대할수 있겠는가. 그에겐 결코 사랑이 없었다. 벌써 그 시절에 이걸 깨달아야 했던걸, 사랑을 실험한다는건 사랑이 아니라는것을!...)

신혜는 얼굴이 절로 뜨끈해졌다. 자기의 심장이 가까운 안주머니속에는 처녀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정히 오려 건사한 문구의 인물속사화가 들어있는것이다. 아, 누구도 보지 않는 이곳에다 그 걸 슬쩍 버릴수만 있다면!... 그러나 장작개비처럼 굳어져 감각을 잃어가는 팔을 한번 풀기만 하면 다시는 부상병을 업을 기력이 없으리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자꾸 흐려지는 의식을 허를 깨물어 가다듬으며
신혜는 필사적으로 걸었다. 문구가 벌린 이 의
지의 실험을 자기는 기어이 이겨내고야말것이다.
그대신... 자기의 가슴속엔 그의 존재가 더는 자
리잡지 못하게 될것이다!

《...끝내 전 부상병집결처에 닿고야말았어요.
모두들 제 상처를 보고 당장 후송하겠다면서 불
잡더군요. 그러나 전 기를 쓰고 되돌아섰어요. 전
투도 끝나지 않았는데 초소를 버린다는건 수치니
까요. 거기에서 문구동무앞에 <자, 이제 만족하겠
지요?!> 하고 들이대고싶은 속심도 없지 않았지요.
지금도 그 경박스런 제 꼴을 상기하면 낯이 뜨
겁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저 부끄러움으로만 끝
난 일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와보니 문구동문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데... 그앞에 두 담가병이 모자를 벗고 서있
는게 아니겠어요. 그사이 문구동문... 그 동문...
숨졌던겁니다. 그를 옮길 때 보니 땅바닥이 온통
피에 폭 젖어있더군요. 한 담가병이 제게 말했
어요.

<군의동지가 이렇게 전하러더구만. 자기가 여
태 힘에 부친 요구만 해왔는데 그건 간호원동무
를 남달리 믿었기때문이라고... 기대가 컸다고...>

그때까지 억이 막혀 멍하니 굳어져있던 전 그
만 무너지듯 주저앉고말았습니다. 막 가슴을 쥐
여뜰으며 통곡하고싶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
째서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던지요. 그저 얼없이
한가지소리만 자꾸 되썩게 되더군요.

<용서해주세요. 절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이해되고 긍정되
는 잘못도 있다구요. 그건 문구동무를 위해선 전
적으로 옳은거예요. 조국의 진보에 하나의 돌맹
이가 되어 기여지려고 그리도 애쓴 문구동무의 1
년전 그 본의아닌 실수야 얼마나 아름다운것이겠
어요. 그런 훌륭한 동무를 전 한 처녀의 사랑이
나 저울대에 올려놓고 실험해보는 속된 인간으로
여겼으니... 그런 절 누가 용서해주겠습니까?》

처녀는 입귀에 주름이 패여지도록 입을 꼭 다
물었다. 술진 눈썹이 미간에 모아붙고 선이 예리
한 코마루는 한층 날카롭게 두드러져보였다. 그
의 얼굴에 나타난 너무도 뚜렷한 슬픔이 나를 격
동시켰다.

나는 실례인줄 알면서도 그때의 부상으로 팔을
잃었는데가고 물었다. 이런 처녀들에게는 오히려
자기신상의 불행을 상기하는게 전우를 잃은 아픔
보다 훨씬 가벼운 법이다.

예컨대로 처녀의 굳어졌던 표정이 한결 풀렸다.

그는 좀 쑥스러워하며 허아래소리를 내었다.
《아닙니다. 후에 준의가 된 다음... 적기가 위
생차를 폭격하길래 따돌리다가 그만...》

《아니, 준의였겠소?!》

《예.》

《그렇다면 왜 의학대학을 지망하지 않았소? 힘
들게 시험공부를 안해도 되었을텐데...》

내 눈이 몹시 휘둥그레졌던 모양 처녀는 상긋
웃었다.

《의사야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책임적인 직
업이 아닙니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이 한팔때문
이었노라고 변명할순 없지요.》

(놀랍군. 놀라운 처녀야!)

머리가 절로 크게 끄덕여졌다. 그러나 나는 곧
생각을 고쳐했다. 얼마전 대학생들을 데리고 어
느한 기계공장의 복구건설을 도우러 나갔던 일이
떠올라서였다. 거의 형체도 없이 파괴된 공장,
점심밥대신 뽕수를 들이키고는 말없이 망치를 들
고 일어서던 로동자들... 그렇다. 결코 놀라울수
없다. 처녀는 말했었다. 자기가 그때 수술칼대신
변명에 그냥 매달렸더라면 한 병사를 죽음으로
떠밀었을것이라고. 그 기계공장 로동자들이 배고
픔과 빈주먹을 먼저 호소했더라면 공장 역시 언
제가도 살지 못할것이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끔 자기의 개인적사정을 거들어 변
명하고 리해를 바라는것으로 일을 대치한다면 오
늘의 헐치 않은 전후복구건설은 실패로 끝날것이
며 조국은... 영영 주저앉고말것이다!

흥분한 나의 입에서는 여태 골똘히 더듬던 생
각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어쨌든... 이런 처녀를 사랑 안할순 없지!》

《예?!》

처녀가 어리둥절한듯 술진 눈썹을 지켜올렸다.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말은 저으기 엄숙
하고 정중하게 했다.

《동문 사람을 실험하는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
는데... 아니요.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이 그 리
트머스시험지가 되어 동무를 시험했소. 동무가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가 안하는가,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강그리 바치는가 자기보신의 여지를
남기는가... 그렇게 시대가 매 인간의 사랑을 실험
하는거요. 동무의 이야기가 그것이였지.》

배구경기를 끝낸 수험생들의 웃음소리가 숲사
이로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웅색하여 몸을 움쭉
거리는 처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남은 시험을 잘 치시오. 난 동물 민소. 변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변명거리를 남기도록 살지
도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 (외 4 편)

김석주

사람들은 말하더라,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투도 걸음걸이도
나도 말하고싶다
사람들이 모두 더 강해졌다고
생활에서 일에서 모두 더 이악해졌다고

맥빠지고 지치고 주눅이 든 인간에게서는
바랄수 없다, 자력갱생이란 강한 말을
달라져야 한다, 제 힘으로 일어서고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기에
사람들이 이악해졌다

인민이 강해졌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굳세게 사는 인민을
나는 모른다
힘겨울수록 그렇게 웃을줄 아는 인민을
나는 모른다

시련속에서 마음을 씻고 일어설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래일을 위해
오늘에 아낌없이 자기를 바칠수 있거니

나에게 하는 말

부러운것 없이
늘 쥐여주고 안겨줄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이라 따르며 사랑했다면
무엇인가 자주 쥐여주지 못한다고
조국을 따르고 사랑하던 정이 떠진적은 없었더나

주는것을 받는데만 버릇되어
때로는 못난 투정을 부린적은 없었더나
조국이 힘겨운 강행군을 할 때
너 동면하는 파충류마냥
저 하나를 위한 안일의 움속에

움츠려 살지는 않았더나

시련끝에 오고야말 그 좋은 날에
최후의 승리자로 모두 웃을 때
그런 날은 오리라
우리모두의 삶을 계산하는 그런 날이 와서
너의 량심을 저울에 달아볼 때
주저없이 그 저울대앞에 나설수 있느냐

량심은 아무리 많아도 가볍지만
리속의 보따리는 아무리 작아도 무겁다더라

무사치 않을것이다

남의 나라 폭탄이 한번도 떨어진적 없다는
대양건너 아메리카의 그 나라
늘 남의 땅에서만 전쟁을 즐기는 광신자들의
나라

그때 그 나라라고 지구우에 있지 않다던가
언제 어느 구름에서 벼락이 떨어질지 알수도

없겠지만
청청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수 있다는것도 알라

원썩가 덤벼들면 무자비한 타격을 결심하신
장군님
지구도 깨버릴수 있는 그이 거머쥐신 그 벼락은
대양만리를 날아넘고 만리대공도 날아넘거니

미리 말해준다

50년도에 얼어맞은것이 적었던 말인가
그때 그때에 부러졌던 코대가
이제는 아물기라도 했던 말인가
그리고 꺾어진 정강이도
이제는 아픔을 잊어버리게라도 됐단 말인가

미제, 벼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꼭 맞아봐야 알겠다는 어리석은 미제
6.25는 네놈들이 정했지만
7.27은 우리가 정한 날
전쟁의 불을 지를 망동은 네놈들에게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끝내는 힘은 우리에게 있거니

7.27!

우리에게 이 전승기념일 하나면 족하다

하지만 또하나의 전승기념일을 주겠다는 것인가
네놈들이 불을 지르는 그날이 네놈들이 죽는
날이며

또 그날이 우리의 두번째 전승기념일이 될게다!

조선의 힘

서방세계의 모든 전자계산기들이
톡탁거리며 계산했으리
이제 얼마 못가 조선이 쓰러지리라고
지금도 톡탁거리며 놀라겠지
조선이 쓰러지기는커녕
날마다 더 강성해져간다고

그래 전자계산기로 썰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못살게 굴면 굴수록
천만배로 더 강해지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천만배로 더 끓어오르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증오

누를수록 더 강도가 높아지는 강철 그것처럼
조일수록 힘이 압축되는 그것처럼

내 경고하노니 지나치게 누르고 조이면
그것은 폭발한다는것을
신념과 의지와 분노로 응축된 조선의 힘
지구도 산산조각낼수 있으리
조선이 없는 지구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거니
조선이 있다는것은 지구가 있다는것 이다

아침과 저녁길

최영화

우리의 세월은 덧없는 세월이 아니다
이 땅에선 세월도 천리마를 타고
하루를 열흘 십년 맛잡이로 달려
그 하루에 무엇인가 창조물을 남긴다

우리는 이런 하루하루에 사는 사람들
한일없이 보내면 세월속에 묻히고
한일있게 보내면 당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하루는 량심의 거울과 같은것

이 저울에 값진 삶의 무게를 얹으려면
하루의 시작길인 출근길을 생각깊이 떼고
하루의 맺음길인 퇴근길을 보람있게 맺어
그 하루가 세월속에 구슬처럼 빛나야 하리니

아침길에 당을 위해 할일을 사색하고
저녁길에 당에 바친 구슬땀을 돌이켜보는
이런 마음 이런 기쁨이 없다면야
어찌 당을 따르는 하루길을 걸었다 하랴

새날의 첫걸음을 옮기는 길이
그날의 마지막길을 옮기는 길이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이어져
당을 받드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거니

이 길을 걷는 우리의 몸에서
피흐름이 심장을 향해 흐르듯
이 길을 걷는 우리의 숨결도
언제나 당을 향해 흐르고

출근길에서 량심에 심은 하루일을
퇴근길에서 그 일의 열매의 무게를
스스로 량심의 저울로 달아보는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하루가 있나니

우리모두 아침저녁 가고오는 길에서
심고 익힌 하루하루의 향기로운 열매로
우리 장군님을 말없이 일로 받들어
먼 후날 인생길을 더듬어도 기쁘게 살자

모성의 권리

김혜영

1

일요일이었다.

작곡가 송예향은 오래간만에 아들과 함께 미술 박물관을 찾았다.

미술대학 졸업반인 아들의 그림이 전국미술전람회에 입선되었다는 소식이 그를 만사전폐하고 여기로 오게 한것이다.

전시장은 각양각색의 관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아들의 전문가다운 설명을 들으며 1층에 전시된 작품들을 차례로 돌아보던 예향은 눈에 익은 그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붉은 노을속에 하얀 비둘기가 날으는 저녁하늘,

화려한 3층짜리 탁아소 현관으로 아이를 안은 여인이 나서고있다. 포동포동 젖살이 오른 아이의 한손엔 새빨간 사과가 쥐여져있는데 어머니는 들고 온 살구꽃가지를 아이의 다른 손에 쥐여주며 입을 맞춰준다. 어머니의 팔밑에선 애의 잘룩잘룩한 두다리가 어리광치듯 가슴을 박차고있다...

예향의 실주름잡힌 눈가엔 웃음이 함뱍 어렸다.

저렇게 아들애를 품에 안고 애무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그 아들이 자라 자기의 유년시절을 화폭에 담은 화가가 되었던 말인가. 이것이 정말 내아들의 숨씨가 옳긴 옳은가 의심될 정도로 그림은 훌륭했다.

사실 대학시절에 벌써 전국전람회에 당선되어 미술박물관에 자기의 창작품을 내놓는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는 영예가 아니다.

그는 멀찌감치에 뒤집을 지고 서서 머리를 기우뚱한채 제그림을 보고있는 아들의 모습을 대견한 눈으로 돌아보았다.

《어때요?》 하는 표정으로 다가온 아들에게 예향은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한데 축하연을 베풀어야겠구나.》

《사실이야 어머니가 종자, 소재를 다 주구 모델까지 서주었으니 제가 한상 차려야지요 뭐!》

《그래? 영철이가 뭘로 한상 차려줬다고 할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옥류관국수! 여기 어제 장학금탄게 있거든요.》

영철은 히죽 웃으며 샤쯔 옷주머니를 가리켰다.

《뭐? 호호... 원 자식두!...》

예향은 웃고말았다. 자식을 길러 이런 보람을 맛본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아들의 성공을 위해 애쓰던 나날들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진다. 갑자기 비가 오는 저녁이면 우산을 들고 소년궁전까지 마중을 나가기도 했고 어쩌다 아침을 설치고 나간 날이면 아들이 좋아하는 콩엿을 만들어가지고 학교까지 뒤쫓아가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이 세상의 모든 꽃을 다 그려보고싶다는 천진한 욕망을 풀어주고싶어 중앙식물원으로부터 산간마을의 깊은 골짜기에게까지 툄아다니는 휴가의 나날도 있었다. 자신이 직접 모델을 서주느라 피곤과 싸운 밤은 또 얼마였던가... 결국 오늘의 성공은 아들에게 바친 어머니의 헌신적사랑의 산아였다.

예향은 아들의 그림에 향해지는 감탄의 눈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선망의 시선처럼 느껴졌다.

즐거운 기분에 들떠 2층으로 올라간 그는 수정무리등이 드리운 중앙홀에서 두셋의 여인이 눈굽을 짊으며 서있는 어느 한 그림에 무심히 눈길을 주다가 그만 흠칠 놀랐다.

(아, 저 그림이?...)

경련의 한순간이 지나가자 그는 성급히 그림앞으로 다가갔다.

비내리는 음산한 하늘, 시뿌연 강물이 흐른다. 그 강기슭에 풀어헤친 여인의 머리칼마냥 아지를 휘날리는 버드나무, 휘우듬한 줄기에 젖먹이여린애가 엷힌채 고개를 젓히고 울고있다. 엄마의 젖을 찾아 더실터실한 나무껍질을 피나도록 허비는 고사리손, 칭칭 비끄러맨 피개밑에서 안타가이 바둥거리는 두다리, 한껏 벌어진 입술사이로 젖대신 흘러드는 눈물의 방울방울...

《엄마야!-》하는 처절한 부름소리가 금시 귀전에 울리는듯싶다.

예향은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어느새 솟아 흘러내리는 눈물의 감각...

한참만에야 그는 눈을 떴다.

조선회 《엄마품은 어디에》였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화폭을 다시 여겨보았다.

머리우에선 비가 내리는데 나무밑등에서 기여오른 커다란 개미 한마리가 아이의 발바닥에 달라붙는다. 따끔! 아픔을 느낀듯 잔뜩 꼬부라뜨린 애의 만문한 발가락...

예향은 날카로운 비수에 또 한번 가슴을 찔러오는듯한 동통에 입술을 피나도록 깨물었다.

아, 불쌍한 어린것이 애타게 찾고찾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림의 한쪽으로 치우쳐 콩크리트다리밑에 거적때기를 친 움막이 보일뿐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예향은 구석쪽에 휘갈겨쓴 화가의 이름을 더욱도록 지켜보았다.

(진호영... 어떻게 되어 이런 그림을 그렸을가? 흔히 말하는 창작가의 허구와 상상의 산물일가? 아니, 모든 예술작품엔 착상의 원점이 있고 형상의 모체가 있는 법이다. 비록 그것이 번개불과 같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령감일지라도... 하다면...이 화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가?)

《어머니, 뭘 그렇게 오래 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예향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너 혹시 이 화가를 알지 않느냐?》

《오, 진호영선생! 우리 학급동무의 아버지예요. 중앙미술창작사에 다녀요.》

《그래?... 집은 어디쯤이구?》

《광복거리 축전동, 왜 그러세요?》

《아니, 그저 물어본거다.》

예향은 얼른 자신을 다잡고 걸음을 떼었다.

했으나 그토록 흥미를 자아내던 그림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세월의 흐름으로 잠재웠던 악몽같은 추억의 환영이 갈피갈피 펼쳐질뿐이었다.

...

예향의 유년시절은 도교의 변화가 신주꾸에서 흘러갔다. 서울타리에 둘러싸인 호화로운 집, 방에는 꽃무늬 돌친 주단이 바닥에 깔리고 벽에는 대형거울이 걸려있었으며 값비싼 피아노가 운기를 뿌렸다.

그 시절 그는 《다까무라 요시꼬》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일본소녀였다. 아버지 다까무라 겐지로는 미국과 자동차기업을 합병하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처녀같이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인기가 대단했다.

타고난 미모, 타고난 예술적기질에 안받침된 이러한 배경은 요시꼬의 화려한 앞날을 담보해주었다. 다섯살이 되자 부모들은 유명한 대학교수를 가정교사로 붙여 음악기초교육을 주었다. 피아노반주에 맞추어 재롱스럽게 춤추며 돌아가는 딸애를 소파에 앉아 바라보는 부모들의 얼굴에선 흡족한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허나 운명의 장난이란 참 알קות이였다.

어느해 학교에서 원죽을 갔던 봄날 《보물찾기》를 하느라 험한 벼랑우를 돌아오르던 요시꼬가 그만 발을 디었던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벼랑밑으로 떨어진것이였다.

이튿날 병원침대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머리와 팔, 다리에는 온통 붕대가 감겨있었다.

(아, 난 이제 병신이 되고마는게 아닐가? 음악도 무용도 다 끝장이 나고...)

절망과 공포가 육체적아픔마저 눌러버리였다.

이때 문이 열리며 사색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사와 함께 들어 섰다.

순간 어머니는 대경실색하여 손으로 입을 싸쥐었고 아버지는 무참할 정도로 이마살을 찌프렀다.

요시꼬는 가슴이 싸늘해짐을 느끼며 두눈을 꼭 감아버리고말았다.

한동안 긴장되고 불안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먼저 의사에게 물었다.

《돈이 얼마 들든 관계치 않겠으니 몸을 원상태로 회복시킬수 없겠소?》

의사의 대답은 힘들게 울려나왔다.

《머리와 팔에 입은 타박상은 외상치료로 회복시킬수 있다고 보겠지만 골반과 다리사이의 골절이 문제입니다. 워낙 대퇴경부골절은 이 부위의 해부생리학적특성으로부터 잘 낫지 않으며 오래동안 로동능력을 잃게 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적지않지요.》

《불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구요?》

어머니의 놀란 소리였다.

《하지만 잘하면 나올수도 있습니다. 아무렇든 다리를 완전히 자르거나 앓은뱅이가 될 위험성은 없으니 마음놓으십시오. 지금 석고붕대로 고정한것이 잘 붙기만 하면 걷는데는 지장이 없을겁니다.》

《마음놓으라구? 요시꼬의 다리는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란 말요! 무용을!》

아버지는 화풀이라도 하듯 성나서 소리질렀다.

의사는 환자의 현상태에서 무용의 가능성을 논한다는것이 어이가 없는지 입을 찹찹 다시였다.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불편 속에 석달이 지나 드디어 석고붕대를 풀었다. 그래도 행여나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있던 부모들의 미련은 여지없이 산산조각나고말았다.

대퇴골변형이 와서 한다리가 정상다리보다 약간 짧아졌던것이다. 병원측에서는 그것이 환자가 석고붕대로 고정한 다리를 자주 움직였기때문이라고 밀어버렸다. 결국 그는 절름발이가 된것이 다!

요시꼬는 눈앞이 캄캄해지고말았다. 이 세상에 자기처럼 불행한 소년은 없을것만 같았다.

허나 그것은 아직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퇴원후 그는 갑자기 뻥뻥해지고 사나와진듯싶은 어머니의 눈길에 몸이 질로 웅송그려졌다. 아버지는 그나마 딸의 얼굴을 거들며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요시꼬는 온 집안이 썰렁한 바람으로 꼭 차있는듯싶었고 그 찬바람에 온몸이 그대로 얼어드는듯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응접실앞을 지나다가 방식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니 어쨌으면 좋겠소? 8년이나 키운걸, 그간 돈들어간걸 생각하면 끔찍하단 말이야.》

《할수 있어요? 지난날의 몇배되는 앞날을 위해서 제때에 단념하는수밖에... 우리가 무슨 자선가 다구 남이 버린 아이를 병신이 돼서까지 양육하겠나말이에요.》

《그건 그래. 절름발이처녀를 집에 그냥 둔다는 건 평생 우환거리지. 가문의 명예가 손상되는건 물론이거니와 시집을 보내는게 골치거리란 말이야.》

《홍, 누가 병신처녀를 데려가겠대요? 아마 이 집 재산을 다 섬겨바치면 어떻겠는지, 이제라도 요시꼬더러 제 친어머니를 찾아가라면 그만이지요.》

《제 새끼를 나무에 비끄러매놓구 시집을 가버렸다는 그 녀자의 행처를 어찌 알겠소?》

《다니느라면 우연히 만날수도 있지 않아요? 요시꼬는 제 에미의 얼굴을 몰라두 에미야 자식의 얼굴을 몰라볼수 있어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때 아이를 가져왔던 그 거간군의 주소라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했을걸. 에에-》

요시꼬는 《악》 소리가 터져나오려는 입을 손으로 감싸쥐며 주춤 물러섰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핑 돌았다. 10살의 어린 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무서운 타격이었다.

그는 비칠거리는 걸음을 가까스로 옮겨 자기의 방으로 가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쉴게 흐느껴울었다...

며칠후 그는 부모의 배려움을 받으며 호화주택의 욕중한 철대문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입던 옷가지와 김밥 몇덩어리가 든 보꾸레미가 들려있었다. 부모의 눈에는 희뿌연 눈물이 그렁했다.

《내가 네게 알려줄수 있는건 어머니가 조선사람이라는거다. 이진 네가 네살났을적의 일인데 한번은 널 유모차에 태우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지나치던 한 녀자가 놀란 얼굴로 다가와 널 가리키며 뭘 묻던 일이 있었다. 조선말을 알아들을수 없어 그냥 지나쳤더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의 엄마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는구나. 생김새도 너와 비슷했구 조선옷차림에 조선말까지 하던걸 보아 분명히... 틀림없이 너의 엄마는 일본 땅에 사는 조선사람들속에 있을게다.》

《고마워요, 흐흑... 고마워요!》

요시꼬는 어릴적부터 손때묻혀 자기를 거두어준 부모에게 거듭 허리굽혀 인사했다.

이렇게 요시꼬의 눈물겨운 방랑생활이 시작되었다. 온갖 사치와 환락의 요지경인 도쿄의 한복판으로부터 머나먼 북변 흑가이도에 이르기까지 백만장자들과 신사숙녀들의 멸시와 모욕의 발길에 채워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며 떠돌아다

니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가공하기 짝이 없었다.

다리아픔과 배고픔, 추위와 피곤, 설움과 모멸감이 항시 그의 심신을 괴롭혔다. 비가 와도 옷을 적시며 그냥 걸어야 했고 온갖 찬란한 색채와 달콤한 향기, 고소한 냄새로 가득찬 음식점앞을 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냥 지나쳐야 했으며 밤이면 공원의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남이 먹다버리는 음식찌꺼기들이 그의 끼니가 되었다.

그에겐 지나온 호의호식이 전혀 행복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바친 돈-그것이 결코 사랑은 아니었다는것을 그는 똑똑히 알수있었다. 멀지 않은 앞날에 일본의 예술계를 뒤흔들 인기배우로 그 가문을 빛내줄 일류미인 요시꼬가 필요했던것임을... 사랑은 오직 생명을 준 어머니만이 줄수 있는것이며 정은 오직 피줄을 따라서만 오갈수 있는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기에 그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며 끝없는 방랑의 길을 걷고걸었던것이다.

그렇게 3년이 흘렀으나 어머니는 끝내 나타나지않았다.

철이 들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가 엄마를 찾는다는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짓인가를 서글프게 깨달았다. 첫머리어린것을 나무에 매여놓고 사라져버렸다는 무정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이제와서 불구가 된 자기를 찾아줄수 있으리란 말인가? 그런 어머니를 찾기는 어떻게 찾으랴?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 도대체 나를 낳은 그 엄마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흰 구름이 떠가는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애달프게 울고우는 그의 가슴속으로는 원망의 눈물과 함께 피의 절규가 노래되어 흘렀다.

길가의 돌처럼 짓밟히라고
어머니는 이 딸을 낳으셨나요
그 품이 그리워 찾고찾는데
어디에 갔나요 나의 엄마는

비바람 눈보라 다 맞으라고
나무에 매여놓고 가버렸나요
사람이 그리워 울고우는데
어디에 있나요 나의 엄마는

세상엔 엄마들 많고많아도
날 찾아 불러주는 품은 없어요
잊으려 잊으려도 잊을수 없는
나의 엄마 그 얼굴 보고싶어요

그것은 정녕 지울수도 아물수도 없는 마음속의 깊은 상처였다...

2

이튿날 저녁 예향은 일찌기 퇴근하여 중앙미술 창작사로 찾아갔다.

화가는 보통체구에 리지적인 눈빛을 가진 50전후의 사나이였다.

예향에게 자리를 권하고난 그는 차를 따라가지고 와서 자기도 옆에 앉았다.

《그 그림과 관련해서 작가선생과 기자들도 왔더랬는데 작곡가선생까지 이렇게 오실줄은 몰랐습니다. 선생이 창작하는 음악에도 저의 경험담이 필요되는 모양이지요?》

《아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림의 창작경위에서 어떤 곡상을 잡아쥐려고 온것은 아닙니다. 저역시 예술가로서,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그 그림에 의견이 있어서…》

례의적인 웃음이 떠돌던 화가의 얼굴은 일순 긴장해졌다.

《의견이라구요?》

예향은 잠시 주저하다가 결연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어머니된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그건 제 자식을 남에게 주는것보다 더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나라의 비극이었지요.》

화가의 목소리는 몹시도 침통하게 울렸다.

《그럼 화가선생은 세상에 그런 여인이 실지로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화가는 대담대신 굳어진 시선으로 예향을 뚫어질듯 마주보았다. 락심천만한 표정이였다.

《그러니… 선생은 작품의 진실성여부를 의심하는군요.》

그렇다, 진실성은 예술작품의 생명이다.

《용서하세요. 제가 남의 고심어린 창조품을 감히 모독했다면… 전 녀성일반의 모성적본능을 두고 그에 비추어 말했을뿐이에요.》

화가는 어찌선지 꺼질듯한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담배를 꺼내 붙여물었다. 파르스름한 연기가 허공으로 춤추며 올라간다.

《물론 창조품이지요. 거기엔 마땅히 허구와 상상력이 개입되는것이고… 하지만… 유감이지만 그 그림은 사진과 같은 실체입니다.》

예향은 전물을 느끼며 흠칫 고개를 들었다.

《실체라구요? 누구의?…》

《바로 우리 어머니의… 과거의 재현이지요.》

《그렇다면… 나무에 업힌 그 아이는 화가선생 자신이란겁니까?》

《아니요, 나의 누이벌되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예향은 점점 가슴이 떨려움을 느꼈다.

《그럼 그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화가는 노을이 비껴드는 창가를 넋없이 바라보

더니 뜨직뜨직 대답했다.

《어머니는… 딸을 나무에 매놓았다가 잃어버리고 한생…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번 보았다는데…》

(그럼 그 어머니가?…)

예향의 귀전엔 보모가 하던 말이 쟁쟁해왔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해방전 일본에서 살았구만요.》

《아닙니다. 징용에 끌려간 남편한테서 병위급 전보를 받구 혹가이도에 갇던적이 있었지요. 죽은 남편을 묻고 돌아오던 길에 어느 해수욕장근처에서 딸애와 모색이 비슷한 일본소녀를 보았다는겁니다.》

《일본소녀를요?》

예향은 저도 모르게 속삭이듯 부르짖었다.

《그후 조국에 와서 몇해를 헤매다가도 끝내 찾지 못하자 뒤늦게야 그 일본인귀공녀가 분명 자기딸인것 같다는 예감을 가졌지만 빼앗긴 딸을 다시 찾을길은 없었습니다.》

예향은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을 치켜들고 화가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마주보았다.

화가는 자기 상념에 잠긴채 담배를 피워물고 창밖에 눈길을 주다나니 녀손님의 이상스러운 눈초리를 감촉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의 동생이란 말인가?!)

그은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화가선생에게는 형제가… 몇이나 되는가요?》

《예, 여섯남매입니다. 우린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속에 자랐지요.》

예향은 아연하여 입을 딱 벌린채 굳어져버렸다. 차디찬 얼음덩이가 목에 각 가로질리는듯했다.

(귀공녀!?… 이 딸이 어떻게 벌레처럼 짓밟히고 천대받으며 모욕의 구정물속에 살아왔는지를 그 어머니가 안다면… 아-)

숨이 꺾 막힐듯한 설분의 걱정속에 그는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화가는 깜짝 놀라 따라일어섰다.

《실례했습니다. 어쩐지 혼자 있고싶어서…》

그는 눈물의 소나기가 와락 쏟아지려는 얼굴을 한손에 감싸쥐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다. 그의 걸음은 어느새 거리를 벗어나 호젓한 강변유보도로 들어섰다. 우중충한 버드나무숲속에 이따금씩 서있는 복숭아모양의 장식조명등이 둥그런 광망을 그리고있다.

그는 아지를 세차게 휘날리는 버드나무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고 꺼칠꺼칠한 줄기를 아프도록 손에 쥐었다. 그 나무에 업히여 우는 아이의 모습이 영철이의 모습으로 바뀌어 안겨온다.

별안간 몸서리를 치며 나무를 떠밀쳐버린 그는 강기슭을 따라 추연히 걸음을 옮겼다.

(그래,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다. 날 버린 어

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 엄마없는 고아의 설음이란 얼마나... 얼마나 기막힌 것이었던가...)

짜디짤 눈물이 뺨을 적시고 입귀로 스며든다.

...주룩주룩주룩...

비내리는 도교의 거리로 요시꼬가 다리를 절며 걸고있다. 우산을 쓰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속에 30대쯤 되는 녀인이 보이면 혹시나 하고 그앞에 멈춰서서 애원의 눈길로 올려다본다. 하지만 그 녀인은 매정스럽게도 《비켜라, 앞을 막지 말구.》 하고는 밀쳐버리고 지나친다.

어머니와 함께 걸던 한 아이가 앞질러 땀박질 해오다가 무엇에 걸쳐어 넘어졌다. 어머니는 큰 일이나 난듯 황급히 달려오더니 물묻은 옷자락을 털어주며 어디 다친데는 없나 하여 무릎이며 손바닥을 호호 불어준다. 울상이 됐던 아이는 《해해》 하고 엄마의 목에 매달린다. 그것을 보는 요시꼬의 눈에서 뿔장 눈물이 굴러내린다.

비는 어느덧 멎고 바람에 옷은 꾸덕꾸덕 말라간다. 참을수 없는 배고픔이 그의 걸음을 음식점으로 이끈다. 지짐집이다. 치직치직 기름타는 고소한 냄새가 못견디게 창자를 허빈다. 주인은 비를맞아 불품없는 절름발이소녀를 얼핏 흘겨보고는 못본체 《아함-》 하품을 한다. 파리채로 파리를 쫓는데 열중하는것 같던 주인이 별안간 반색하며 닝큼 일어난다. 아이를 업고 꽃양산을 든 젊은 엄마가 구슬장식이 반짝반짝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다가온다. 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려는 모양이다. 지짐을 사서 아이의 손에 들려주는데 아이는 뜨거워서인지 휘뿌려던졌다. 지짐 짙은 철떡 하고 요시꼬의 발앞에 나동그라졌다. 가슴이 활랑거린다. 아이는 그걸 도로 주어달라고 떼거지를 쓰며 졸라댄다.

《에그-찌찌야! 내 그럼 뎀뿌라 사줄게, 응?》

녀인은 엷힌 아이의 궁둥이를 가볍게 추슬러올리며 멀어져간다.

요시꼬는 얼른 그 지짐 짙을 집어든다. 다문다 문박힌 흙모래를 꼼꼼히 뜯어내고는 한점한점 입에 넣는다. 그리로 다가오던 요염스런 녀대학생이 그 모양을 보고 더럽다는듯 고개를 비틀며 지나가버린다. 주인은 돈벌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서 물러가지 못할가.》 하고 파리채를 휘두른다. 마치도 파리를 쫓아내듯...

요시꼬는 안개속을 허청허청 걸어간다....

예향은 주위세계가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에 현실로 돌아왔다. 주체사상탑 공원이었다.

탑을 위시하여 랑쪽으로 늘어진 조각상들이 눈부신 투광등빛을 받아 환히 드러나있다.

예향의 걸음은 한 조각상앞에 멈춰섰다.

트레머리를 하고 조선옷을 입은 아름다운 녀인이 발가슴이사내애를 품안아 애무하고있다.

(그녀석... 어찌면 우리 영철이 어릴적모습과 꼭같이 생겼담?)

그는 그 귀염둥이를 담썩 끌어안아 비벼주고싶은 짜릿한 충동을 느끼며 빙그레 웃었다. 흘러내리던 눈물마저 구슬처럼 반짝이는듯했다.

그는 새삼스런 눈으로 활활 밤하늘을 사르고있는 주체사상탑의 거염진 봉화를 우러러보았다.

그렇다. 봉화의 빛발로 밝아진 이 세계처럼 어둡고 지겹던 나의 인생도 조국의 빛발로 이처럼 밝게 피어나지 않았던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의 귀전에는 저 대동강의 물결처럼 그윽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애수와 열정이 어우러져흐르는 《봉선화》의 선율이 울려오기 시작한다. 점점크게 울려오는 그 음향과 함께 선히 떠오르는 교포의 어느 한 다방...

어머니를 찾을 생각을 단념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어느날 예향은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다방앞에서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조선노래! 비록 가사내용은 알아들을수 없어도 어지러운 이방의 소음속에서 너무도 뚜렷이 구별되는 우아하고 순결한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마치도 《내 딸아!》 하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진 것이었다. 달리 될래야 달리 될수 없는것이 민족의 피줄이고 정인지...

어언간에 여름가고

가을바람 술술 불어

...

상처입은 마음을 부드럽이 쓸어주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이 온몸에 따뜻이 휘감기는 그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끌려 요시꼬는 저도 모르게 다방안으로 들어섰다.

앞새가 큰 남방화초들이 푸르싱싱하니 우거지고 붉고 푸르고 투명한 구슬장식이 끊임없이 반짝거리는 매대안의 큰 록음기에서 가슴을 적시는 부드러운 물결과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고있었다.

그 옆에는 연보라빛 바탕에 은박이무늬가 자르르한 치마저고리차림의 중년녀자가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고있었다.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락화로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여위고 피기없는 처녀의 창백한 두볼을 타고 맑은 진액같은 눈물이 줄기지어 흐르고있었다.

애잔하게 흐르는 구슬픈 선율이 그의 가슴속 천가지 만가지 설음에 찬 사연들을 떠올려주었던 것이다.

노래가 끝나자 요시꼬는 두손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흐느끼었다.

너주인이 록음기를 끄고 요시꼬에게 다가왔다.
검정색 기모노를 입은 옷차림새를 유심히 보며
그는 일본말로 물었다.

《처녀 이름이 뭐지?》

《다카무라... 요시꼬...》

《일본처녀인데 조선음악을 사랑하나?》

《난 어머니를 찾고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조선사
람이에요.》

《조선사람이라구? 아니, 이런...》

너인은 저르기 놀라와하며 요시꼬의 터갈라진
힘찬 손을 꼭 부둥켜쥐었다.

요시꼬는 그 너인의 눈에 금시 엷은 눈물방울
이 맺히는것을 보았다.

잠시 어쩔바를 몰라하던 너인은 《가만 좀 있거
라.》 하더니 매장에서 다과와 음료를 끌고루 갖
추어 다반에 받쳐들고 매대밖으로 나왔다.

구석컨식탁에 요시꼬와 마주앉은 그는 맑은 비
취색 유리고뿌에 달고 진한 홍차를 가득 부어주
며 배고프겠는데 많이 들라고 빵과 떡그릇을 가
까이 밀어주었다. 그 얼굴에 얼마나 따뜻한 인정
과 사려깊은 미소가 흘렀던지 하마트면 요시꼬는
40대의 이 너인을 자기가 찾는 어머니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 아지미가 나의 어머니였으면!...)

요시꼬가 음식을 다 들 때까지 너인은 아무것
도 묻지 않았다.

했으나 요시꼬자신이 심장의 문을 열어 짧고도
꼭절 많은 지난날을 다 이야기해버렸다.

《아지미, 나를 낳은 친엄마는 과연 어디에 있
나요. 나는 왜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떠
돌아다녀야 하나요. 예?!》

요시꼬는 너인의 무릎에 쓰러지며 슬피 울었
다.

너인은 한동안 요시꼬의 해진 어깨며 잔등을
쓰다듬어주다가 위로하듯 말했다.

《그만해라. 요시꼬, 아무려문 너의 엄마가 널
나무에 매놓고 어디를 갔겠니?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을게다. 젓먹이를 그렇게 할 때야 모진 맘
을 먹었으니. 그랬겠지... 내 생각엔 너의 엄마가
살길이 없어 목숨을 끊은것이라고 짐작된다.》

《정말... 그랬을가요?》

《그렇지 않다면 널 유괴해온 거간꾼놈이 거짓
말을 한것이지. 이 세상에 제 자식을 나무에 매
두고 시집을 가버릴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 우리 어머니... 아지미 난 이제 어떻게야
하나요?》

《어떡하긴? 나와 함께 여기서 일하면서 조선사
람답게 살아야지. 지금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어주
신 총련조직이 일본땅 곳곳에 퍼져있고 조선학교
들도 많이 일떠서고있단다.》

《그럼 아지미를...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너인은 잠시 눈물이 글썽해서 마주보더니 와락

품에 안아주었다.

《애야! 내 딸아!-》

《어머니!》

요시꼬는 행복에 겨워 울고 또 울었다.

너인의 남편 송철민은 교또현의 총련분회장이
였다.

그들은 요시꼬에게 《송예향》이라는 아름다운
조선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가 음악을 남달리 사
랑한다는것을 알고 예술의 향기가 되라는 뜻을
담은것이였다. 그는 열다섯살이 된 그때에야 비
로소 《엄마》, 《아빠》라는 모국어 익히기 시
작했으나 머리가 총명했던 덕분에 인차 조선학교
에 편입했다. 예술소조에 망라되어 바이올린도
배웠다.

하여 다방에서는 록음기소리대신 음색고운 바
이올린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
과 발길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기쁨과 희열속에 다섯해가 흘러갔다.

스무살 잡히면서 예향은 한떨기 백합마냥 아름
다운 처녀로 활짝 피어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날이 갈수록 우수가 짙어갔다. 입맛도 없어하고
바이올린도 그렇게 열심히 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고민이 어디서 오는것인가를 잘 아는 송
철민부부는 무엇으로 그를 위안해줄지 몰라 속을
씩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예향은 얼
나간 사람처럼 망연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중얼거
리는것이였다.

《난 이자 무대에 나가서 춤을 추었어요. 관람
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날려보냈어요.
무대는 온통 꽃바다예요... 꽃바다...》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꿈장면이 깨여질가 저어
하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 말하던 예향은 불현듯
자기 처지대로 의식이 돌아오자 이불을 끌어안고
쉽게 흐느끼고말았다.

송철민부부는 총련조직과의 합의끝에 예향을
귀국시키기로 하였다.

조국으로 건너온 예향은 현대적설비를 갖춘 정
형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자기의 뼈를 받
아달라고 저저마다 간청했다.

《여러분! 저 처녀는 저의 누이동생입니다. 오빠
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용약
수술장문앞으로 나서는 대학생청년도 있었다.

수술후에도 알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진귀한 보약들과 식료품들을 들고 찾아왔다. 하
여 예향의 베개잇은 항상 눈물에 젖어 마를줄 몰
랐다. 그는 10년전 일본에서 처음 다리를 다치고
입원했을 때의 서럽고 가련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럴수록 자기 혈육도 아니
요,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무엇을 바
라고 이렇게 과분한 성의를 다해주는지 리해할수

없었고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할는지 알 수 없었다.

(...정녕 조국의 품이 아니었다면 험혈단신 고아로, 불구로 일본땅에 던져진 나의 운명이 어찌 되었으랴! 민족적 멸시와 인간적모욕의 소낙비속에서 약육강식의 희생물로 짓밟혀버렸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속에 예향은 어느덧 문수거리의 자기 집에 이르렀다. 집안은 조용했다.

화학공업성 부국장인 남편은 지방출장중이어서 없고 아들은 먼저 잠이 들었는지 다랑다랑 코고는 소리만이 귀맛 좋게 울려온다.

부엌에는 고소한 기름내가 짙게 찼는데 아들의 숨씨가 분명한 여러가지 음식그릇들이 식탁을 채우고있었다. 식탁보우에는 《밥과 국은 가마속에 있어요.》라는 글쭉지까지 놓였다.

(원 너석두...)

무어라 말할수 없는 자부와 행복감을 뿌듯이 느끼며 예향은 아들의 방으로 건너갔다.

옴퍹한 눈확속에 얹은 눈까풀을 살퍴이 감고 입술을 하 벌린채 단잠에 든 아들의 얼굴은 볼수록 어여쁘고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잠든 모습을 정겨운 눈길로 한동안 애무하고나서야 자기 침실로 가군하는것은 예향의 굳어진 습관이였다.

만일 숨소리가 고르롭지 못하거나 희맑은 얼굴에 약간의 열기라도 보이면 무작정 들춰입고 한밤중이라도 진료소로 반달을농던 그였다. 언젠가는 유치원다니는 아이를 떼두고 보름간 지방순회 공연을 나갔던적이 있는데 6.1국제아동절이 되어 텔레비죤으로 평양어린이들의 유희모습을 보다가 아들생각이 너무 사무쳐 그만 두손에 얼굴을 싸쥐고 울어버리기까지 했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 유별스런 감정을 늦게 본 자식이라는 일반적인 원인과 결부시켜 추측했으나 그것만은 아니였다. 너무도 일찌기 어머니의 사랑을 잃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남보다 몇갑절 더 뜨겁게 자식을 사랑하고싶은 그였다. 만일 영철이를 낳지 못했더라면 그 갈망을 어찌 이룰수 있었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눈앞에는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추억이 있었다.

...함흥 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해있을 때였다.

회복기에 들어서 걸음런습을 할무렵에 이르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걸음이 뜸해졌으나 여전히 잊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후리후리한 체구와 억실억실한 얼굴을 가진 대학생, 그가 바로 자칭 오빠로 나서 예향에게 피와 뼈를 바친 화학공업대학 학생 김일호였다.

《오빠》는 울적마다 재미나는 이야기보따리를 가지고와 펼쳐주기도 하고 간호원을 도와 걸음런습도 시켜주면서 유쾌한 웃음을 안겨주었다. 머리말의 꽃병에는 항상 그가 꽂아놓고간 생화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군했다.

퇴원이 가까와올수록 예향의 마음은 쓸쓸해졌다.

그처럼 깨끗한 사나이의 체취를 피부로 감각하며 그 억센 팔에 어깨를 맡긴채 걸음마를 옮기는 그 가슴부부는 순간이 영영 끝나버린다는 생각, 이제 헤어지면 다시 남남이 되고말겠지 하는 생각이 고독한 자기처지를 돌이켜보게 한것이였다.

작별의 날은 오고야말았다.

예향은 반년만에 튼튼한 두마리로 대지를 밟아 수많은 정든 사람들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평양행렬차에 올랐다. 꿈같은 행복과 감격, 고마움의 눈물이 두볼을 적시며 흘렀다. 그 눈물은 또한 작별이 주는 아프고 쓰린 눈물이기도 하였다.

뒤늦게 달려온 일호가 종이에 쓴 자그만 꾸레미와 함께 빨갛고 하얀 두송이의 장미꽃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예향이! 외로워말구 공부 잘해!》

《고마워요, 오빠... 잊지 않겠어요. 부디 몸성히...》

예향은 렬차가 역구내를 벗어났을 때에야 꾸레미를 펼쳤다. 값진 노트들과 필기도구들이였다. 맨우의 고급수첩 첫 페이지에 《처량한 봉선화 되지 말고 밝고 열정적인 장미꽃이 되기를!》 이런 글발이 적혀있었다.

《오빠!》

예향은 보들보들한 꽃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때로부터 예향이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일호는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주었고 방학때면 평양에 있는 자기 집에 데리고가기도 했다. 명절때면 함께 유원지에 가 뽀트놀이도 하였고 극장구경도 하였으며 국수를 좋아하는 예향을 위해 옥류관에도 가끔 데리고갔다.

그런속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예향의 가슴속에서는 이성에 대한련모의 감정이 봄물썩처럼 자라났다.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인 그 사나이에게서 단순히 오빠로서의 보호만이 아닌 열렬한 애무의 갈망을 느꼈을 때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렁거림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싶었던것이다. 남편의 사랑받는 안해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그것은 녀성으로서 누릴수 있는 최대의 행복일것이다. 내가 과연 그런 행복의 향유자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처럼 허물없던 일호와의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그앞에 마주서기만 하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일호가 중앙기관에 배치된지 얼마 안되던 어느날 예향의 숙소에 찾아온 그는 뜻밖에 이런 말을 했다.

《예향이도 이젠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어떤 사

람을 리상하는지 이 오빠가 중매를 서줄가?)
예향은 원망이 서린 눈으로 일호를 쏘아보고는
입술을 깨물며 외면해버렸다.

《아니, 왜? 시집가는데 싫은가?》

《흑...》

예향은 두손에 얼굴을 묻으며 어깨를 들먹이였다. 점차 실음과 노여움이 더 북받쳐 그만 침대에 쓰러져 흐느껴 울었다.

당황한 일호가 예향을 달래느라고 그의 두어깨를 안아일으키자 예향은 일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채 떠들거렸다.

《오빠! 난... 난... 시집 안갈래! 영원히... 오빠 곁에...》

《예향이!》

일호는 어글어글한 눈에 물기를 담고 처녀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불덩어리같은 두 몸이 하나로 되어 행복의 절정으로 치달아오르고있었다.

...이렇게 그는 안해의 행복은 지닐수 있었으나 10년이 되도록 《어머니》라는 신성한 이름은 지닐수 없었다. 녀자로서 한창 성숙기였던 그 5년 세월 방랑생활을 하며 한지에서 보낸 후파로 심한 병을 안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행은 둘째치고 남편과 시부모 앞에 죄스러워 더 고통이었다. 모질게 마음먹고 리혼하려고도 하였지만 남편은 허락치 않았다. 불치의 병이라 해도 그럴수 없다는것이였다. 여기저기로 출장을 갔다올 때마다 귀한 약재를 구해왔고 시어머니는 밤을 새워 약을 달여주곤하였다. 병원들에서 써준 약만 해도 그 얼마였는지 모른다.

그 눈물겨운 지성으로 예향이 서른다섯살나던 해 봄날 귀염둥이 영철이가 태어났던것이다.

...

3

이튿날 예향은 새로 나온 가사를 작곡하느라고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음악단 피아노앞에 마주앉아있었다.

그는 열정에 넘쳐 건반을 두드리느라 출입문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잠시후 연주를 중단하고 오선지에 펜을 가져갈 때에야 그는 다가오는 발자국소리를 듣고 얼굴을 돌렸다.

《아니? 화가선생이...》

예향은 흠칫 놀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로소 전날 저녁의 무례했던 행동이 돌이켜지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손님에게 자리를 권하자 예향은 먼저 말을 건넜었다.

《저를 많이 욕하셨지요.》

《감성에 여린 예술가로서야 십분 그럴수 있지요. 직선적으로 말하고싶는데, 혹시 작곡가선생은

나의 그림의 주인공과 어떤 인연이 있는게 아닙니까?》

화가는 팔걸이에 손을 얹으며 예향을 곧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짐작하신다니 저도 구태여 부정하고싶진 않군요. 그러나 그이상 더 구체적인것은 묻지 말아주세요. 피차 그렇게 하는것이 마음 편할테니까요.》

《하지만 나에게 먼저 파문을 던진 사람은 작곡가선생이란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 전 반대로 말하고싶은데요. 화가선생의 그림이야말로 저의 목은 상처를 헤집어놓았지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심리에 충격과 의혹을 준데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우기 같은 지성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좋습니다. 화가선생은 저에게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싶은가요?》

《작곡가선생의 어머니에 대해서지요.》

《저의 어머니는 총련의 한 일꾼으로 교토의 <봉선화다방>에서 일하고있어요.》

화가는 뜻밖인듯 눈을 크게 뜨고 침묵하였다.

《저는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선생은 지금 자신을 속이고있습니다.》 하고 그는 한참만에야 말했다.

예향은 숫구치는 걱정을 애써 누르며 말하였다.

《화가선생은 그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속에 자랐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자기를 따듯이 안아줄 엄마의 품을 찾아 실음의 바다를 헤매는 방랑소녀의 가련한 모습을 상상해본적이 있습니까?》

화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두손으로 양복주머니를 더듬거렸다. 담배를 찾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꺼내놓은것은 담배꽂이 아니였다. 담배꽂크기의 납작한 물건이였다. 유지에 싸고 또 찢것을 펼치는 그의 손이 후둑후둑 떨리고있었다.

무는 증명서인가?

아니, 그것은 사진이였다! 어린애의 돌사진...

예향은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졌다.

《전 이 아이의 얼굴에서 선다섯해전의 작곡가선생의 모습을 련상해보았습니다.》

예향은 전기에 닿은듯 흠칫 놀라며 저도 모르게 사진을 집어들었다. 반듯하면서도 약간 도두룩한 이마, 쌍까풀진 오목눈, 동그란 볼과 상큼한 턱, 되뜯한 코날과 선이 또렷한 입술...

그가 어찌 어린 시절의 자기모습을 몰라볼수 있으랴.

그는 화석처럼 굳어진채 점도록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림에서 본 다리밧의 움막집이 떠오르면서 그

처럼 가난한 살림에도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해준 부모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지성, 기대와 염원이 뜨겁게 느껴졌다.

《바로 그 사진을 찍기 하루전날 아버지는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하루 두끼 풀죽을 먹으면서 한 푼두푼 모은 돈으로 옷과 쌀, 학용품을 사다주며 이다음에 학자가 되라고 축복해주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화가의 이야기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

남편이 끌려간 저녁 어머니 조순정은 우는 아이를 업은채 눈물로 절구질을 하고 떡을 빻었다.

이튿날 돌아 사진을 찍어주고 꼬깃꼬깃 싸두었던 돈을 마저 털어내고나니 당장 술에 넣을것이 없었다.

돈을 벌지 않고는 하루도 살수 없었으나 일을 나가자니 아이를 맡길데가 없었다.

할수없이 아이를 업은채 공장으로 나갔다.

《잔등에 혹이 달린 너자는 안돼!》

감독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순정은 물러설래야 물러설데가 없었다.

《아이를 업고서도 처녀들과 똑같이 일할수 있어요. 받아주세요.》

감독은 순정이 처녀시절 4년남짓한 동안 얼마나 이악하고 걸싸게 일하는가를 보아온터이고 또 그만한 기능공도 쉽지 않은지라 다소 타협조로 나왔다.

《일자리나 얻고싶거든 혹이나 떼버리고 오란 말이다.》

《저...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애아버지는 징용에 가구...》

《그러기에 애새끼를 남이나 주란 말이야. 그러찮으면 별수 있나?》

순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남을 주다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을 거듭했다.

《감독님, 사정 좀 봐주세요. 이애마저 없으면 전 누굴 믿고...》

《글쎄 애새끼를 업고는 일할수 없다지 않어?》

《휴게실에 눕혀놓으면... 안되나요?》

《빠가야로! 그럼 일은 안하고 새끼나 끼고있겠다는건가? 잔말 말고 나갔!》

감독은 채찍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순정은 뿌리내린듯 움직일념을 앓고 서있었다.

《자자, 빨리 나가지 못하겠는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애새끼를 저 뿔는 가마속에 누에고치와 함께 처넣을테야.》

감독이 채찍끝으로 등에 업힌 아이를 꺾꺾 찢러대며 으름장을 놓았다. 찢진 눈을 부릅뜨고 시누런 버덩이로 아래입술을 감쳐문 그 기상에 질겁했던지 아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순정은 그만 쫓기듯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빈혈이 와서 비칠거리는 걸음을 겨우 옮겨졌

다. 집가까이에 서있는 강기슭의 버드나무에까지 이르자 그 줄기를 부여잡고 얼굴을 확 문었다.

(여보! 난 이제 어찌문 좋아요? 살수도 없고 죽을수도 없구... 아...)

정녕 이 넓은 세상에 우리 모녀를 구원해줄 손길은 더는 없단 말인가?

애달픈 눈길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는 그의 눈앞에 검은 연기가 느물느물 피어오르는 공장굴뚝이 바라보였다. 그 굴뚝은 잡아먹을듯이 노려보는 왜놈감독의 험악한 상관으로 바뀐다. 그것은 또 색광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씹적거리며 덮쳐들어 처녀의 정조를 유린하려던 지주놈의 흉물스런 모습으로 뒤바뀌더니 이번엔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소매없는 피상한 옷으로 유혹하던 술집주인의 징글맞은 모습으로 다가든다. 《반반하게 생긴 제집이 그 좋은 밑천을 두고 오금을 고생시킬 필요가 있나?》 하던 그의 말...

아, 이 세상은 이렇게만 되어먹은것일가? 가는 곳마다 승냥이의 함성이요, 구렁이의 소굴이니...

그는 어디까지나 순결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피땀흘리는 로동현장을 찾아왔건만 아이를 낳은 죄아닌 《죄》로 여기서도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가 이제 갈곳이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어디?...

그의 처지를 동정하듯 버드나무아지들이 세차게 휘날리며 흐느적거렸다.

(나무야, 날 동정해주는건 너밖에 없구나.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는 나에겐 의지할 것이 정녕 너밖에 없구나. 으흐흐...)

순정은 기막힌 신세를 한탄하며 한동안 어깨를 들먹이다가 업은 아이를 내리워놓았다.

《복녀야, 오늘부터 이 나무가 네 엄마다, 이 엄마를 대신해서... 나무가 널... 업어줄게다.》

순정은 해죽이 옷은 팔애의 얼굴을 미친듯이 끌어안아 불에 비비며 오열을 터쳤다.

한참만에야 마음을 진정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나무에 매기 시작했다. 아이는 엄마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질하며 울었다. 그러는 아이를 거칠고 차디찬 나무줄기에 정작 매놓으려니 숨이 꺾 막히는것만 같았다.

(내가 미쳤지! 제 자식을 나무에 결박해놓다니...)

그는 그만 아이를 풀어 다시 품에 꼭 안았다. 아이는 두손으로 암팡스레 저고리앞섶을 잡아헤치더니 젖을 더듬어 찾았다.

순정은 아이에게 젖을 물린 동안 모진 마음의 각오를 다시금 가져야 했다.

(미치지 않았으면 그럼 어떤단 말이야? 아이를 남한테 줄수는 없잖아? 다른 길이 어데 있어? 이렇게 불안고있기만 하다간 둘다 죽고말텐데...)

잠시후 아이를 안고 일어난 그는 집안으로 들어가 알뜰하니 숨을 두고 만든 아이포단과 남편

이 만들어주었던 장난감 깡통을 찾아들고 나왔다.
차고 꺼져칠한 나무줄기의 휘우듬한 허리에
포단을 먼저 둘러감고 그우에 아이를 업혀주었다.
아이는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자지러지게 울어댔
으나 순정은 입술을 꼭 깨문채 띠개를 비끄러냈
다. 풀어질세라 쾅쾅 당겨매는 그의 손이 후들후
들 떨리었다. 아이는 고개를 젓히고 발을 벌디디
며 목이 터져라고 울어댔다. 순정은 터지는 가슴
에 피눈물을 삼키며 돌맹이가 든 깡통의 끈을 한
손에 쳐들고 흔들어주었다. 《땡그랑 땡그랑》 소
리가 나자 아이는 울음을 툇 그치더니 그것을 달
라고 손을 내밀었다.

안도의 숨을 쉬며 순정은 그 《딸랭이》 끈을 아
이의 손이 닿을수 있는 가지에 매달아주었다.

아이는 깡통을 한번 쳐보더니 땡그랑 소리가
나자 캐득 웃었다. 그리고는 연방 쳐대며 깔깔거
리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정의 가슴은 천갈래만갈
래로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아, 헤집어진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들 이다지 쓰리고 아플수 있으랴...

그는 눈을 꼭 감고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용서해다오. 내 사랑아, 이 못난 엄마를 부디
용서... 흐흑...)

그는 와락 얼굴을 감싸쥐고 정신없이 돌아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공장에 나간 순정은 감심을 먹고 일에 온 정신
을 쏟으려 했으나 나무에 매달려 우는 아이의 모
습이 자꾸만 눈앞에 밟혀와 멍청해지곤했다.

오는 길에 강가에서 샅빨래하는 세탁부녀인을
만나 멀찌감치에서라도 살펴보아달라고 부탁은
하고왔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두발을 바둥
거리고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우는 모습이 쪼각쪼
각 가슴을 허버내는것이였다.

《야! 무슨 판 생각이냐 하는거야? 일은 안하
고.》

감독의 고향소리에 순정은 펄쩍 정신이 들어
일손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드디어 점심고동이 길게 울렸다.

순정은 어떻게 강변의 그 버드나무에까지 달려
갔는지 의식할수 없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어있었다. 두팔과 머리
가 잔뜩 뒤로 젖혀져있었다.

순정은 눈물, 코물이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 엄마가 없는 동
안 얼마나 애가 나게 울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간신히 잠들었던 아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
길을 얼른 감축하고 반짝 눈을 떴다.

《음마, 음마.》

아이는 금시 초생달눈이 되어 새하얀 이발을
방긋 드러내더니 어서 빨리 안아달라고 온몸을
비틀어대며 킁킁거린다.

순정이는 헤덤비며 띠개를 풀고 아이를 덤석
안아 젖을 물린다. 기쁨에 넘쳐 구슬알같이 반짝
이는 아이의 두눈을 내려다볼 때면 그리고 꿀작
꿀작 젖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면 바작바작 타
들던 자기의 가슴에도 생명수가 흘러드는듯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별일도
나지 않았다. 순정은 차츰 마음이 놓였다.

(이제 몇달, 아니 한두달만 참고 견디자. 그러
면 월급을 타서 아이를 맡길 집을 얻게 될거야.)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아이를 나무에 업혀놓고 공장에 나가
일하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장구름이 몰려오
더니 사방이 캄캄해졌다. 휘-익 바람소리, 썉-썉
나무설레임소리...

순정의 마음도 불안스레 뒤설레였다. 그 불안
은 오늘따라 세탁부녀인을 만나지 못하고 나오데
서 더하였다.

(제발... 비가 내리지 말아주었으면!)

그러나 녀인의 이 애절한 녀원을 하늘은 야속
하게도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엇에 성난
듯 시퍼런 칼날같은 번개불을 번쩍이며 우르릉
광광 굉음을 내지른다.

순정은 속이 새까매져서 문쪽을 돌아보았다.

감독이 문가에 까치다리를 하고앉아 담배를 꼬
나물고있었다.

(어쩌나, 비가 올텐데...)

불로 지지는듯하던 가슴은 시시각각으로 솟덩
어리가 되어갔다.

또다시 《평곳》 하고 무시무시한 섬광이 일더니
《짜르릉-썉!》 하고 무엇이 바스라지는듯 아츠
러운 소리가 울렸다. 벼락치는 소리였다.

순간 끔찍한 환각이 눈앞에 휩 떠올랐다.

순정은 더는 앞뒤를 가릴 여유가 없었다. 무작
정 문쪽으로 달려갔다.

《어딜 가?》

바지에 각반을 친 다리가 문을 뚝 건너지른다.

《가봐야겠어요, 아이를 한지에 두어서...》

《뭐라구? 척쇼! 애새끼가 비나 맞는다고 똤지
는가? 작업장을 잠시라도 비우면 안된다는걸 몰
라?》

썉-하고 채찍같은 비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
다.

순정은 울먹이며 애원했다.

《감독님! 당신께도 자식이 있겠지요? 불쌍한
우리 애를 생각해주세요.》

《뭐야? 대일본제국의 아들과 조선놈의 새끼를
대비하는가? 주제사납게...》

온몸이 화들화들 떨리고 주먹이 으스러지게 쥐
여졌다. 자기자신에 대한 천대와 구박은 열백번
참아온 그였건만 자식을 모욕하는것만은 참을수
없는 어머니였다.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감독놈을 쏘아보던 순

정은 문을 가로막은 그 다리에 와락 덮쳐들어 사정없이 이발로 물어뜯었다.

《으악!》

감독이 기겁하여 나자빠지는 순간 순정은 문을 박차고 비탈속으로 달려나갔다.

《저... 저 미친년 잡아라!》

감독이 소리치는것을 들은 털부숭이 보초놈이 정문밖으로 빠져나가려던 순정의 목덜미를 잡아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헐금씩금 쫓아온 감독놈이 피눈을 하고 다가들었다.

《이 쌍년! 조선년의 계집이 신성한 대일본제국을 모독해? 어디 맛좀 보라!》

놈은 악에 받쳐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순정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진탕우에 쓰러지고 말았다. 휘-휘-휘파람소리와 함께 너인의 온몸에 채찍이 휘감겼다.

보초놈까지 달려들어 징박은 구두발로 그의 허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순정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함을 느꼈다.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늘땅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듯할뿐이었다.

실컷 분풀이를 하고난 감독놈과 보초놈은 반주검이 된 순정의 량손을 잡아 질질 끌어내다가는 공장밖의 도랑창에 쓸어넣었다.

《이 짐승...》

순정은 피흐르는 입술로 외마디 부르짖음을 내고는 정신을 잃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가 정신을 차린곳은 공장가까이에 있는 어느 한 노동자의 집이었다.

《우리 복녀는... 어떻게 되었어요?》

《복녀라니?》

주인내외는 영문을 몰라했다.

순정은 무슨 힘으로 일어났는지 몰랐다. 어혈진 허리가 시큰하여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났다.

《아니, 그 몸으루 어델 간다구 그러나? 영?》

《일없어요. 집에 아이가 기다리고있을텐데.》

《에그- 아이가 무언지? 너자들이란 참...》

순정은 불안과 공포, 희망과 기대가 마구 엇갈리는 가슴을 안고 한치한치 지팽이를 내짚었다.

(왜 조용할가? 하긴 이제야 울 기력도 없을테지. 밤새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라구... 복녀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드디어 강쪽우에 올라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복녀의 보습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풀어헤친듯한 버드나무만이 홀로 외로이 설레이고있었다.

(?!)

덜컥 심장이 멎어버리는듯했다. 온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듯했다.

하나 순정은 이 무서운 현실을 섣뜻 믿을수가

없었다. 자기의 두눈을 의심하고싶었다.

지팽이를 내던진 그는 초인간적힘으로 나무를 향해 달려내려갔다. 덜개만 감겨져있는 나무줄기를 두손으로 뻗히 보면서도 손으로는 행여나 하여 더듬더듬 훑어내려보았다. 터실터실한 나무껍질, 비에 젖은 녹록한 포단... 귀여운 살붙이는 끝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 《복녀야!》 하고 불러보았다. 《음마!》 하고 금방 나타나 아장아장 다가올것만 같았다. 그러나 괴괴한 정적뿐이었다.

강물은 예대로 흐르고 나무는 변함없이 서있건만 어제까지 방긋 웃던 복녀는 간데없어 없어지고만것인가?

싸늘한 오한이 등골을 훑어내린다. 눈을 꼭 감았다.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허나 꿈이 아니었다.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순정은 무너지듯 폴짝 주저앉고말았다.

《복...녀...야... 복...복녀야아!-》

가련한 너인은 자기에게 남아있던 단 한점 생의 불꽃마저 앗아간 그 저주로운 나무를 주먹이 깨지도록 치고 또 치며 몸부림쳤다.

《복녀야-이 어미를 버리고 너 어디 갔느냐-이 불쌍한것아- 어디로 갔느냐!-》

절통한 부르짖음이 광막한 하늘가로 메아리쳐 되돌림해왔다...

《흑... 흑흑...》

예향은 어느새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고있었다.

복녀를 잃은 어머니의 그 아픔이 그대로 영철이를 잃은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져 더욱더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아, 그 순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내 정녕 원망과 비난의 칼로 란도질을 했더라 말인가? 조국을 빼앗겨 모성의 권리마저 빼앗겼던 그 불쌍한 어머니, 이 딸을 잃고 모진 아픔에 시달렸을 어머니를 내 어떻게 오해하고 저주해왔던가...

눈물은 끝없이, 건잡을수 없이 솟구쳐 하염없이 두볼을 적시었다.

화가의 목소리도 눈물에 짙 잠겨있었다.

《그후 어머니는... 다시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죄의식때문에말입니다.》

《네에?》

예향은 뜻밖의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새 아기를 낳고 그 행복에 도취되는것이 버린 자식에 대한 최악이라는것입니다.》

《그럼 화가선생은?...》

《우리 여섯남매는 다 어머니가 전쟁때 부모없는 고아들을 데려다 키운 성이 다른 자식들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예향은 전신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환각을 느끼며 두손으로 이마를 훑어쥐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에 별찌가 튀었다.

그의 의식속엔 한동안 공허가 흘렀다. 귀전엔 전선줄의 울음소리같은것이 무섭게 웅웅거렸다. 형언할수 없는 모진 아픔이 집게처럼 심장을 비틀어댔다.

차츰 의식이 돌아오자 그는 공포에 질린듯한 어조로 물었다.

《어머님은...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난해에 저의 집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딸의 이름을 애타게 찾다가... 이 사진을 넘겨주고...》

틀림... 심장이 가슴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한껏 커진 그의 눈에서 파르르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이 죄많은 딸을... 이 불효한 딸을... 어찌 그냥 놔두고 가셨나요?! 이 죄를 어떻게 씻으라고... 누구한테 용서를 받으라고... 으흐흑... 어머니-》

예향은 오열을 터치며 사진우에 쓰러져 몸부림쳤다.

×

잠들수 없는 밤

예향은 진정 못할 몸부림을 달래며 피아노를 마주하고있었다.

음악은 강한 흥분제이기도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또한 그만한 명약이 없는 법이다.

애수에 젖은 은은하고도 절절한 선율이 흐른다. 짓밟힌 녀성의 권리를 절규하는 《봉선화》이다.

흰손가락들이 자유분방하게 헤엄치는 건반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 노래와 함께 생각이 흐른다.

(난 지금까지 녀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아이를 낳을수 있고 사랑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했었다. 모성의 권리-그것은 인간이 지닐수 있는 모든 권리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고

또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모성애는 이 세상의 사랑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사랑이라고! 인류력사가 그것으로 발생했고 또 그것으로 존재하며 발전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안아키울수 없었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어찌하여 저 《중군위안부》들은 끝내 《어머니》란 신성한 이름을 지녀보지 못한채 시들어버렸던가. 만일 내가 저 일본땅에 고아로 그냥 남아있었다라면 그러한 운명을 피할수 있었더라면 말인가...)

돌연 음악소리가 푹 멎었다. 예향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려진 창가로 다가갔다.

문수거리의 야경이 황홀하게 안겨온다. 형형색색의 장식등불빛이 명멸하며 현란한 무늬를 뿌리는 거리, 소리없이 미끄러져 엇갈리는 승용차들의 흐름, 뿌려던진 보석마냥 허공에 총총히 반짝이는것은 살림집의 불빛인가, 하늘의 별빛인가...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품처럼 두팔 벌리고 선 평양산원의 웅장한 자태에 더욱더욱 머물러있었다. 창문마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행복넘친 어머니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

부지중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부름소리...

그러자 어제날의 어머니와 오늘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낮과 밤같이 상반되는 두 그림이 떠오른다. 궁전같은 탁아소와 버드나무...

(그렇다. 이 나라 수천만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꽃피워주는 위대한 품! 정녕 조국이라는 큰 어머니가 없이 개개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어찌 존재할수 있으랴.)

흥벽을 치는 이런 생각과 함께 그의 머리속엔 새로운 곡상이 빔발쳐갔다.

마침내 그는 흥분하여 피아노앞에 다시 앉았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성찬가 《어머니사랑》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